



함께일하는재단 20년사

함께 일하는 사회,



Work together,
Live together

TH



함께 열어나가는 미래

여명기

1997
~
2003

이윽고
희망의 일자리

*

아름다운 연대의 시작으로

움튼 재단은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정착했습니다.



2

3

- ❶ 1999. 실업극복국민운동 1주년 기념 사진전시회를 둘러보는 3인 공동위원장과 노동부장관
- ❷ 2003.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현판식
- ❸ 실업극복국민운동 공공근로 실업기금모금 진행
- ❹ 1998.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발대식
- ❺ 2003. 6.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로의 재출범

정착기

2004
~
2007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무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재단은 또 한걸음 내딛습니다.



- ① 2004.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발대식
- ② 2006. 희망청 활동 모습
- ③ 2004.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의정부노인 전래동화팀
- ④ 2006. SK행복도시락
- ⑤ 2004.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기업참여 방안 세미나
- ⑥ 2006.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워크숍



발전기 I

2008 ~ 2010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



손 맞잡은 우리의 동행은 언제나처럼
소중하고 든든한 친구가 되어
함께할 것입니다.

- ❶ 2008.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 ❷ 2010. 정책연구원 3주년 토론회
- ❸ 2008.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아카데미 워크숍
- ❹ 2009. SBS희망TV 모금생방송
- ❺ 2008. 전통문화지도사 발대식
- ❻ 2009. SBS희망TV 네팔

6



7

발전기 II

2011 ~ 2014

사회적경제를
일구는 손길,
세계로
나아가는 발길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도전하며
상생을 꿈꾸는 우리는,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 ❶ 2013. Light a Lamp 자립 지원사업
- ❷ 2012.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워크숍
- ❸ 2013.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지원기관
'Friends International Family'
- ❹ 2014. 골목카페지원사업 기금전달식
- ❺ 2012. 사회적기업인증지원기관 인증 권역 설명회
- ❻ 2014.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전환기 I

2015 ~ 2018

일자리 미래의 열쇠를 찾아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합니다.

- ❶ 2016. 무업사회 발간기념회
- ❷ 2016. 기부 캠페인 내일에서ON편지
- ❸ 2016. 시니어케어 매니저 성과공유회
- ❹ 2016.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송년회
- ❺ 2017. 취업잡(Job)이
- ❻ 2018. Hello New() World 본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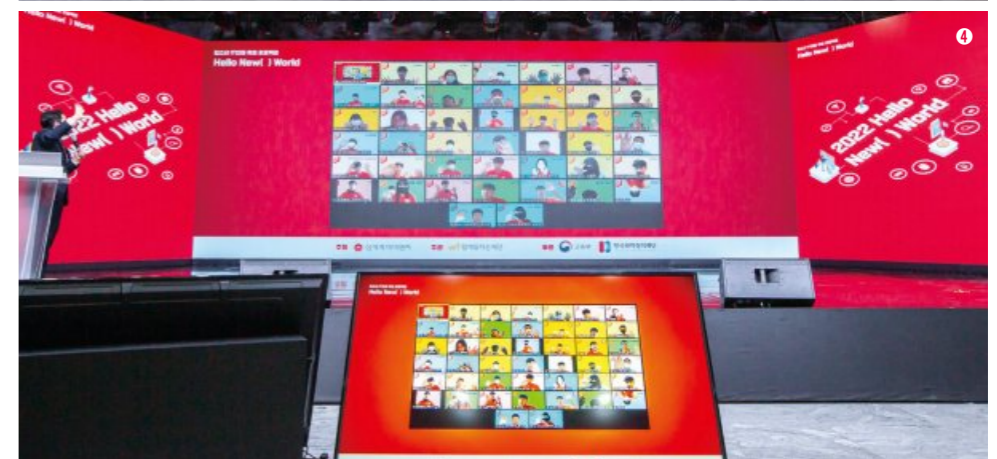
전환기 II

2019 ~ 2023

같이 도약하는 미래



희망을 품고 도약한
재단의 흔적들은, 앞으로의 재단에
값진 유산(遺産)이 될 것입니다.



- ❶ 2022. MG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홈커밍데이'
- ❷ 2023.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지원사업 기금 전달식
- ❸ 2022. INSPIRED FORUM
'Work Different : 변화하는 일의 방정식'
- ❹ 2020. Hello New() World 해커톤대회
- ❺ 2019. 특성화고교 화이트헤커 경진대회
- ❻ 2021.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기업가의 도전'

발간사

함께 일하는재단 창립 20주년, 그 값진 발자취에 동행한 모든 분에게 감사



먼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재단의 운영과 사명을 성실하게 이끌어 주신 역대 임원과 현재의 임원진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산업화 성장 후 최대 위기로 닥친 IMF 외환위기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량실업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국민운동이 전개된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근거로 일자리의 개발과 지속적 유지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재단은 이런 사회적 필요에 따라 2003년 6월 공익법인으로 창립된 것입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국민 최고의 복지이며 행복한 삶의 원천입니다. 재단은 창립 후 일자리 개발과 지원에 업무를 집중해 왔습니다. 일자리 개발의 모델로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과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국가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매년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정부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제휴하여 매년 5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준비와 창업 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개발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약 500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민간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외사업도 재단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의 일자리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글로벌 조직인 사회적기업 세계 본부와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최초로 사회적기업 세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단의 성장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한때 무분별한 노사분규로 재단의 업무가 어려움을 겪었고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초저금리시대를 지내오면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운영경비의 부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굴곡과 난관은 재단 운영진과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극복해 냈습니다. 재단 본연의 업무를 지속하게 만들어준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재단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제휴하거나 지원한 기업과 단체 그리고 재단사업에 기부한 모든 기부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재단 20년사의 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최종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편집에 실무적 지원을 담당한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용과 노동 행정 업무에 다망하신 중에도 귀한 축사로 격려해주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하는재단 이사장

축사

함께 일하는재단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란을 극복하고자 설립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모태가 되어, 2003년 함께 일하는재단이 출범한 지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의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헌신했던 재단의 지난 노력은 일하고 싶은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담은 20년사를 발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한 일자리를 위해 정부, 기업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동행했던 재단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더 큰 역할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자, 자아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민 행복과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이자, 중요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디지털·신산업 전환, 저출생·초고령 사회 진입 등 숨 가쁘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간 재단은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왔습니다.

다가올 20년에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시장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일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뜻있는 기업과 함께 이상적인 민·관(民官) 협력 시너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일하는재단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1997~2003

대량실업, 민간운동에서 발견한 희망

2003

-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출범
- 사회적기업 지역개발금고사업(대부사업) 개시
- 사회적기업 학교 개설
- 청년실업 채용박람회 개최(노동부, MBC, 한겨레신문사)
- MBC 희망기금 릴레이 캠페인 진행



2003~2007

사회적일자리의 발견, 연대와 협력의 결실

2004

- KTV,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기부, 함께 일하는 사회' 진행
-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사업 개시(교보생명)
-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메사업 개시(삼성증권)
-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 출범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개시(노동부)
- MBC, 희망기금 기부 릴레이 캠페인 '실업극복 희망을 추천합니다'



2007

- 사회적기업저널 번역 출간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개시(보건복지부)
- 사회적일자리 참여단체 경영컨설팅사업 개시(노동부)
- 사회적기업 설립(인증)지원기관 지원사업 개시(노동부)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시범사업 개시(서울지방노동청)
-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사업 개시
- 피터드러커 혁신상 '우수상' 수상



2006

- 결식이웃 행복도시락사업 개시(SK)
- 사랑나눔 무료간병사업 개시(포스코)
- 재단 정책연구원 개소
- 청년실업네트워크센터 희망청 개소
- 대학 및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시
-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워크숍 개시(노동부)

2005

- 자유공모사업 지원
- 실업자 민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사업 개시(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모니터링사업 개시

2008~2014

사회적경제를 일구는 손길, 세계로 나아가는 발길

2008

- 복지사업 지원 개시(휴먼예금관리재단)
- (재)함께일하는재단으로 명칭 변경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노동부, SK)
- 제1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개최
- 소셜벤처 경연대회 운영(노동부)
- 문화재관리 일자리사업 개시(문화재청)
- 사회적기업 육성 공헌 국무총리상 수상
- 신재생에너지 우드펠릿사업 개시(강원랜드)

2009

- SBS희망TV 모금 캠페인 진행
- 사회적기업을 위한 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 개시(신한은행)
- 윤리적소비 촉진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개시(G마켓)
-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개시(BAT코리아)
- 소셜벤처인큐베이팅 마포센터 개소(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 청소년 꿈터사업 개시(KB국민은행)
- 1사 1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개시(한국수출입은행)



함께일하는재단이
걸어온길

2010

- 실직빈곤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Light a Lamp 개시
-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사업 개시(LH)
- 사회적기업 유통 지원 프로젝트 개시(현대홈쇼핑)
-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 개시
-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사업 개시(한국주택금융공사)
- 제2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개최

2011

-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양천센터 개소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개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녹색성장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개시(LG)
- 사회적기업 인증 가이드북 발간
- 송실대학교 창업아카데미사업 개시
- 제1회 SBS희망내일나눔대상 'NGO참여상' 수상



2012

-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개시(한화)
- 제3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개최
- 청년층 대안사회적안전망 설립 운영사업 개시
-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개시(금천구)



2014

-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비전선포 및 기금 전달식 개최(한화)
- 함께일하는재단 전자도서관 개관
-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2014 개최 주관
-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발족(한국수출입은행)

2013

- 액티브 시니어 생활용품 공모사업 개시(유한킴벌리)
- SE 희망씨앗 전파사업 개시(한국수출입은행)
- 글로벌 드라이브 프로젝트 개시(SK)
-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 개시(한국전력공사)
- 한화B&B 사회적기업 전환사업 개시(한화켈러리아)
- 시니어 기금 전달식 개최(유한킴벌리)
- (예비)사회적기업 IT 기기 및 교육 지원사업 개시(삼성SDS)
- 전통시장 소상공인분야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운영모델 개발 용역사업 개시(서울시)

2015~2023

일자리 미래의 열쇠를 찾아서



2015

- 지구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시(KOICA)
- 양천구 항공소음대책지역 소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개시(한국공항공사)
-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로 사업 이관
- <무업사회> 번역서 출간

2016

- 특성화 고교생 IT 희망키움 지원사업 개시(신세계아이앤씨)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우리마을 체인지메이커' 개시(보잉코리아)
- 시니어케어 매니저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 개시(유한킴벌리)
- 캠프 희망Replay,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 개시(한국자산관리공사)
- 허그 셰어하우스 취업역량 강화사업 개시(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인권재단, 지역재단, 한국여성재단, 환경재단, 공익재단 네트워크 포럼 'SDGs 시대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 개최

함께 일하는 재단이
걸어온 길

2017

- 소셜벤처성장나눔사업 Go Together 프로젝트 개시
- 허그 셰어하우스 1호점 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겨레 나눔꽃 캠페인 진행
- 청년 채무자 상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한국장학재단)
- 카카오 같이가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진행
- 소셜테크 이노베이션랩 개소
-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개시(한국전력공사)
- 허그 셰어하우스 2호점 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
- 공항 포티케어 서비스 확대 및 전문화 사회공헌사업 개시(한국공항공사)
- Salta Programme 지원사업 개시(자라코리아)



2018

- 마음톡톡 치료사 경제적 자생조직 구축사업 개시(GS칼텍스)
- BUFF(부산지역대학생 역량 강화 네트워크) 3기 개시(한국자산관리공사)
-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지원사업 개시(에스-오일)
-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 개시(현대오토에버)
- Hello New() World 해커톤대회 개최(신세계아이앤씨)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개시(MG새마을금고중앙회)
- 가치(Value)여행사업 개시(인천국제공항공사)
- 전력그룹사 이천지역 농수축산물 박람회 개최(한국전력공사)
- 허그 셰어하우스 3호점 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아카데미 사업 진행(현대백화점)
-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이전 개소



2020

-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지원사업 개시
- 서울시 골목길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사회적경제조직 해외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한전KDN)
-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개시(한전KDN)
-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개시(울산항만공사)
- 5060 그린체인지메이커사업 개시(한국지역난방공사)
- 디지털 사회적기업월드포럼 골드스폰서 참여 공동 개최(한국국제협력단)
- The minimize사업 개시(한국지역난방공사)
-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가치그린 세(SE)상 사업 개시(인천국제공항공사)



2019

-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네트워크(AVFN) 가입
- 증평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진행(SK이노베이션)
-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지원사업 개시(이마트)
- 소셜 시니어벤처 설립 및 지원사업 개시(유한킴벌리)
-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개시(인천국제공항공사)



2021

- 청년 취창업 준비생 디지털 교육기기 지원사업 개시(JT코리아)
- 사회적경제조직 동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 개시(울산항만공사)
- 허그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 및 셰어하우스 5호점 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
- 청년이 그린(Green) 창업캠프 개최(MG새마을금고중앙회)
- 사회적경제조직 해외 진출 지원사업 개시(한국공항공사)
- Try Everything 협력 프로그램 '지역기반 로컬밸류-업 스테이션' 진행(서울산업진흥원)
- 함께 서울-S 프로젝트 진행
- 강서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진행(강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포스트 코로나시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 포럼 공동 개최(서울시 청년청)



2022

- 사회적경제 근로자 복지지원사업 개시(하나은행)
- 사회적경제조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활주로 상점 개시(인천국제공항공사)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교육 및 연계 지원사업 3기 개시
- 사회적경제기업 ICT 솔루션 및 교육 지원사업 개시(한국전력공사)
- KRX 사회복지시설 아동 문화-예체능교육 지원사업 개시(KRX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 MG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판로지원 '무궁무진한 MG희망나눔 상생 스토어' 개시(MG새마을금고중앙회)
- 사회적경제기업 해외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개시(한전KDN)
-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INSPIRED FORUM 개최
-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합성소리 캠퍼스 개시
- 액티브 시니어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 개시(상상우리)
- SOVAC 2022 오프라인 행사 파트너사 참여(소셜밸류커넥트)
-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 개시(한국전력공사)



2023

함께일하는재단이
걸어온길

PART 1

통사

인트로 포토 에세이 ... 02
발간사 / 축사 ... 14

타임라인 함께일하는재단이 걸어온 길 ... 16

Prologue. 1997 ~ 2003 여명기 ... 32

대량실업, 민간운동에서 발견한 희망

-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 33
- 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연대 ... 34
- 새로운 미션을 향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행보 ... 35
- 민간 주도 국민운동, 5년의 성과 ... 37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과 상설기구로의 전환 ... 38
- 현안을 분석하고 후속사업을 기획하다 ... 39
- 해외 선진사례 연구로 해법을 찾다 ... 40
-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굳건한 민간기구의 필요성 ... 41

1장. 2003 ~ 2007 정착기 ... 44

사회적일자리의 발견, 연대와 협력의 결실

01. 민간 주도형 실업대책기관의 출범 ... 45

- 장기화된 실업의 그늘, 일자리 창출이라는 난제(難題) ... 45
- 실업극복국민운동을 계승한 함께일하는사회 출범 ... 46
- 재단의 첫 사업, 전국실업자지원센터 지원 ... 48
-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 방식의 시도와 시련 ... 49

02.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고심 ... 51

- 사회적일자리를 위한 정부와 재단의 하모니 ... 51
- 실업 관련 민간 협의체의 참여 주도 ... 52
- 실업 관련 민간단체의 연대,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 ... 53
- 사회적기업,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모델 ... 55
- 미래 사회적기업가 체계적 육성 ... 56
- 청년실업자를 위한 네트워킹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 57
- 청년 일자리 해결의 거점, 희망청 설립 ... 58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송 캠페인과 홍보 ... 59
-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외부 협력 및 연대 노력 ... 61

03. 지속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 정책연구원 ... 62

-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문제 대비, 정책연구원의 개소 ... 62
- 다양한 정책연구사업 추진 ... 63
- 정책연구원 심포지엄 개최 ... 65

04. 새로운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개발 ... 66

- 재단의 사회적경제 모델 추구, 교보다솜이 간병사업① ... 66
- 사회적경제의 가시적 성과 실현, 교보다솜이 간병사업② ... 68
- 문화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 모색, 신나는 문화학교 ... 69
- 시니어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전통문화지도사사업 ... 70
- 여성 대상 일자리문제 해결방안, 사랑나눔간병사업 ... 71
- 시의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사업 ... 73
-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탈북자 자활공동체 지원 ... 74
- 결식아동을 위한 기업과의 협업사례, 행복도시락사업 ... 75
-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자유공모사업 ... 77

05. 사회적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다 ... 79

- 고용친화적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사업 ... 79
- 사회적기업 경제기반 마련, 지역개발금고사업 ... 81
-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육성, 사회적기업 경연대회 ... 81
- 사회적기업의 법적 근간 마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82
- 대한민국 1호 사회적기업, 다솜이재단 ... 84
-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인(公認), 피터드러커 혁신상(우수상) 수상 ... 85

2장. 2008 ~ 2014 발전기 ... 88

사회적경제를 일구는 손길, 세계로 나아가는 발길

0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노력 ... 89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민간 영역에서 커지는 재단의 역할론 ... 89
- 사회적기업이 싹트고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 ... 90
- 함께일하는재단, 더 큰 도약을 알리는 새 이름 ... 90
-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변경과 자립전략 ... 92
- 재단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와 출판 ... 93
- 공동연구로 가속화된 정책연구원 활동 ... 95
- 사회적 가치평가도구 개발 착수 ... 97
-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 SROI ... 98

02.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 ... 100

-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립과 재단의 전방위 활약 ... 100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위탁사업의 일시적 종료, 재단의 선택과 집중 ... 101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재개와 변화의 움직임 ... 10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체제 정비와 네트워크 모색 ... 103

03.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모델 형성 및 시도 ... 105

-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대부사업 ... 105
-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및 다양한 발굴·지원전략 ... 107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108
- 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 ... 110
- 맞춤형 창업육성공간,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개소와 발전 ... 111

04. 혁신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협동조합형 인프라 마련 ... 114

- 사회적경제의 기초 인프라, 회계 전문인력 양성 ... 114
- 사회적기업의 산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115
-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 117
- 사회적경제 종사자 복지지원과 교육 ... 118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119
- 몬드라곤대학과의 인력 양성 공동 개발 ... 120
-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 120

05. 사회혁신의 핵심, 청년층 지원 ... 122

-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청년벤처 창업 공모전 ... 122
-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성장 ... 123
- 청년 주도공간, 희망청의 약진 ... 124
-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꿈지락기획단 ... 125
- 청년문제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 126
-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노력 ... 127
- 청년 니트족 연구 및 포럼 ... 127

06. 사람과 환경을 고려한 실업대책과 교육지원의 확장 ... 129

- 고령화시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시작과 확대 ... 129
-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131
- 친환경 가치 창출모델 발굴 및 육성 ... 132
-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 ... 133
-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창출 ... 133
-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 ... 134
-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 ... 135
- 취약계층 분야 지원을 통한 복지의 저변 강화 ... 135
-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 137

0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 138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138
- 지역 맞춤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 139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형 사회적기업의 탄생 ... 140

08. 국내 사회적경제의 벤치마킹 모델 확산을 위한 해외 진출 본격화 ... 142

-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개최, 해외 교류의 확장 ... 142
-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①, 글로벌 네트워크의 본격화 ... 143
-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②, 내실 있는 운영과 확장된 프로그램 ... 144
- 네트워크 확장의 알찬 성과들 ... 145
- 해외 사회적경제 창구 발굴과 교류 증대 ... 146
- 재단 특화 국제 교류사업의 기반조성 ... 147

09. 국내 사회적경제 모델의 해외 전파,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 ... 149

-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사업의 착수와 진행과정 ... 149
- STP 임팩트 리포트 발간, STP 가치의 재확인과 사업 지속 ... 151

10. 세계적인 서울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 153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 교류와 공유의 장 ... 153
- SEWF 2014 서울 개최 배경과 준비 ... 154
- SEWF 2014의 성공적 개최 ... 155

3장. 2015 ~ 2023 전환기 ... 158

일자리 미래의 열쇠를 찾아서

01. 기술혁명의 시대, 일자리 패러다임의 대변혁 ... 161

- 새로운 일자리 해법, 가치 창출과 삶의 질 향상 ... 161
- 디지털 시스템의 구축과 확장, 재단 역량의 지속 강화 ... 162

02. 디지털 전환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활동 ... 164

- IT 기술과의 상생과 조화 ... 164
- ICT 인프라 구축 및 교육지원 ... 165
- 소셜벤처 성장지원 프로젝트 ... 165
- 소셜테크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 166
- 마을기업의 성장을 돕는 스마트 경영지원 ... 167
-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활용, 클라우드펀딩 ... 168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도전, 해외판로 개척 ... 170
- 미래 IT 인재육성을 위한 포석 ... 171
- 화이트해커 양성 and 일자리 연계지원 ... 172

- 03.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도약 프로그램** ... 174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자원의 출발 ... 174
 - 일자리의 존엄함과 공동체 가치의 재확인 ... 175
 -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미래 ... 176
- 04. 선순환 일자리 분야 생태계 구축** ... 178
 - 시니어 서비스 지원을 통한 고용모델 창출 ... 178
 - 초고령화시대, 시니어케어 매니저의 양성 ... 180
 - 신중년을 위한 커리어 전환 기회 제공 ... 181
 - 상생의 열매,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고용 ... 181
 - 일자리 창출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182
 - 청년의 취업 경쟁력 확보 ... 184
 - 청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184
- 05. 생애주기별 지원, 창업** ... 186
 - 혁신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186
 -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배양, 소셜벤처 경연대회 ... 187
 - 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 복지 실현 및 사회적기업 지원 ... 188
 - 예술치료의 직업 안정성과 지속성 추구 ... 189
 - 지역문제의 자생적 해결 및 생태계 구축 노력 ... 190
- 06. 생애주기별 지원, 성장** ... 192
 -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지원 ... 192
 - 자립을 위한 성과 측정 및 입체적 지원 체계 확립 ... 193
 - 에너지·친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195
 - 푸드트럭 창업 청년 유류비지원 ... 195
 - 같이 가는, 가치(Value) 여행 ... 196
 - 농어촌 상생 협력 지원 박람회 주관 ... 197
 -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 198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재생 ... 199
- 07. 가치 창출-사회적 가치 확산** ... 200
 - 디지털 전환기, 소외층을 위한 지원과 응원 ... 200
 -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 ... 201
 - 재단이 주도하는 일자리 대안 연구 ... 202
 -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재생 아이디어 공모 ... 203
 - 디지털시대의 국제 교류와 사회적 가치 전파 ... 204

- 08. 숨겨진 변화의 시대, 재단의 지속 발전 방향** ... 206
 - 재단 미래상의 재정립 ... 206
 - 재단의 지속적 발전전략 ... 208
 -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 ... 209
 - 재단 20년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 ... 210

Special _ 재단에게 ... 212

**PART
2
테마사**

- 01. (재)다솜이재단 무료간병서비스 사업 ... 220
- 02.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 222
- 03.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 224
- 04.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 226
- 05.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 228
- 06.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 230
- 07. 가치가세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 232
- 08. 가치가세 가치그린 세(SE)상 ... 234
- 09. 사회적경제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 236
- 10. 시니어비즈니스 기금 사업 ... 238
- 11. 공향 포티케어 서비스 ... 240
- 12. 특성화 고교생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 ... 242
- 13. Hello New() World ... 244
- 14.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 246

**PART
3
부록**

- 01. 역대 임직원 명단 ... 250
- 02. 재단현황 ... 258
- 03. 주요 통계 데이터(각 사업별 현황, 실적 등) ... 262
- 04. 숫자로 보는 재단 20년의 성과 ... 271
- 05. 주요 연표 ... 276
- 06. 파트너기관 리스트 ... 278
- 07. 정관 ... 280

편찬후기 _ 시대적 다리를 건너는 재단의 역사 ... 282

PART 1

통사



Prologue.
여명기

1997-2003
대량실업, 민간운동에서
발견한 희망

01
정착기

2003-2007
사회적일자리의 발견, 연대와
협력의 결실

02
발전기

2008-2014
사회적경제를 일구는 손길,
세계로 나아가는 발길

03
전환기

2015-2023
일자리 미래의
열쇠를 찾아서

PART 1
통사

Prologue

1997 - 2003

여명기

1997 2003



대량실업, 민간운동에서 발견한 희망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써 내려가던 대한민국에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고도성장의 신화와 희망을 믿고 달려온 세대에게, 한순간 외환위기 국가로의 추락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기업의 연쇄도산과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대규모 실업 상황에 면역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했던 시절, 직업을 잃은 사람과 그 가정은 거리로 내몰렸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家長)이 길을 잃으면서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고, 낯선 절망의 깊이를 헤아리다 삶을 포기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실업대란이 유독 잔혹했던 건, 일이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믿고 있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위기는 다시 우리 국민을 결집시켰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외환위기 탈출 방법이 모색되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국민운동이 도모되기 시작했다. 외채를 상환하기 위한 금모으기운동에 이어 실업문제를 도우려는 실업대책 기금의 모금운동이 벌어졌다. 종교·경영·노동·시민·여성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국민은 너도나도 십시일반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에 동참했다. 성과는 놀라웠다. 실업극복국민운동 5년간 모금된 국민성금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293억 원에 달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민간운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은 다양한 기획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구제사업을 전개하며 더욱 더 진화해갔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작지만 큰 흐름이 되어, 정부와 국민의 여러 경제정책과 노력과 맞물리며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7%를 넘어서던 실업률은 점차 낮아졌고, 정부의 사회안전망도 조금씩 확충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일자리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공식 실업률은 떨어졌으나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긴급 대응'의 성격이 짙었고 시장 논리에 밀려난 실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했다. 해법을 찾고자 진행된 해외 선진사례 조사에서 실업이 확대되면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실업의 시대는 곧 변화의 시대였다. 시대와 사회는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정부를 보조하던 민간 차원의 움직임은 이제 그 자체로서 고유한 특질과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아, 범사회적 실업 해결의 주체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한시적이라 생각했던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맥도, 민간 주도의 사회운동으로 지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이 주도한 실업극복운동은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미션으로 이어졌고, 훗날 함께일하는재단의 설립 근거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 유동성 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일순간 뒤집어놓았다. 무분별한 차입경영으로 덩치를 키워온 한국기업은 악화되는 유동성 위기 속에서 단기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대기업부터 시작한 부도는 중소기업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로부터 초유의 실업난이 생겨났고, 취약했던 사회적 안전망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뒤이어 대한민국은 IMF 관리체제를 맞이해야 하는 엄혹한 현실에 다다랐다.

IMF는 특히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감량을 요구했다. 금융권의 인수합병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곧이어 5대 그룹의 빅딜이 시작되었다. 이를 필두로 모든 대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한쪽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선 기업의 도산이 이어졌다. 어느 쪽이건 그 결과는 일자리 축소나 상실로 이어졌다.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이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1,000개가 넘는 기업이 무너졌다.

쓰러지는 기업 뒤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실업대란이 자리했다. 1997년 11월 이후 대한민국의 고용 사정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1997년 12월의 실업률은 3.1%로 1년 전의 2.3%보다 0.8% 증가했다. 1998년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실업률이 7.9%까지 치솟았다. 1998년의 연평균 실업률은 6.8%, 1999년에는 7.2%에 이르렀다. 1997년 4월 기준 실업자 총계는 61만 명이었는데, 1998년에는 146만 명, 1999년에는 157만 명으로 늘어났다. 최악의 실업대란이었다. 취업자의 감소는 더 심각했다. 기업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도 인원 감축으로 여념이 없었다. 많은 기업이 신입 사원을 모집하지 않거나 그 수를 최소화했다.

하지만 그렇게 경제가,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었다. 역사의 국난마다 깃발을 세우고 일어섰던 의병들처럼, 빈사(瀕死) 직전의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민간 주도의 국민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1997년 12월,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외환 유출 방지와 외환 통장 개설 캠페인을 벌였고, 한국개신교 15개 주요 교단장이 모여 구국을 위한 실천운동을 결의했다. 동시에 여러 단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목소리를 냈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환부족과 실업의 양대문제 해결에 국민의 힘을 모으자는 것이었다.

외환위기 시기 실업률 추이

단위: 연도/분기/% 출처: 통계청

시기	1999년					2000년				
	1/4	2/4	3/4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실업률	8.5	6.7	5.6	4.7	6.3	5.2	3.9	3.7	3.8	4.1
시기	2001년					2002년				
	1/4	2/4	3/4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실업률	4.9	3.6	3.3	3.3	3.8	3.7	3.0	2.8	2.9	3.1



✳

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연대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과 함께 민간이 주도한 또 하나의 운동이 실업기금모금운동이었다. 외환부족의 심각성은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긴 어려웠지만, 실업은 달랐다. 실업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뚜렷하게 위협하며 모두가 실감(實感)할 수 있는 문제로 다가왔다. 더욱이 1998년 당시 실업자의 24%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76%는 갑작스러운 실업대란 속에서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사회 전반에서 민간 차원의 실업기금모금운동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할 민간 통합기구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곧 힘이 실렸다. 경영계와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언론계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한자리에 모였다. 실업 해결은 인간 본연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였으므로, 평생을 인간 존중에 바쳐온 개신교의 강원용 목사,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불교의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이 국민운동본부 구성에 앞장섰다.

1998년 6월 22일,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이들 3인은 '실업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개인의 불행과 사회의 불안이 가중돼 나라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며 '은 국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실업자 구제는 물론 의식개혁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발기문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6월 23일, 3인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원로 40여 명이 서울프레스센터에 모여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출범을 선언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에는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윤환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중배 참여사회시민연대 대표,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인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대표, 송보경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이갑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영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현승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표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민간 분야 인사가 참여했다. 이 운동은 IMF 외환위기 이후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국민운동이 하나로 결집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 ① 실업극복국민운동 실업자 지원 활동
- ② 실적가정돕기 범국민결연운동 모금
- ③ 실업기금모금 MBC 특별생방송 실업의 고통, 함께 나눕시다

1998년 10월 13일에는 실업극복사업의 전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실업극복심포지엄을 열었다. 출범식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범국민운동(큰 운동), 정부대책과 연계(하나된 운동), 투명성과 신뢰 확보(깨끗한 운동)라는 3대 원칙을 천명하고 5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5대 사업은 국민의식 개혁, 실업기금 모금, 실업자 구호 및 자활지원, 민간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21세기 복지를 마련이었다. 실업극복심포지엄에서 결정된 사업 전개 방향에 따라 아홉 차례의 제안사업과 다섯 차례의 기획사업이 이루어졌다. 생계비 지원사업, 겨울나기 지원사업, 상담사업, 취업 알선사업, 희망의 카드사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구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실업자의 생활안정사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당장 실업자 가정의 생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사업 첫째 실업극복국민운동이 두 차례의 제안사업과 저소득실직가정돕기 범국민결연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핵심사업은 실업자 가정에 대한 직접적 구제사업이었다.

1998년 6월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1,142억 1,300만 원의 실업기금이 모금되었다. 성금 기탁자는 개인과 단체를 합해 147만 9,000여 명에 이르렀다. 총수입은 이자수입 151억 100만 원을 합해서 1,293억 1,400만 원에 달했다. 1998년 실업극복국민운동은 19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겨울나기와 급식을 포함한 방과 후 교실과 심터지원 등의 구호 및 자활사업에 85%가 넘는 164억 원이 투입되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부도기업을 인수하거나 인턴제를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10억 원, 종합(취업)알선센터와 이를 통한 직업훈련 등의 고용정보제공사업에 12억 원, 기타 조사 및 정보사업과 심포지엄 개최 및 의료지원사업에 6억 원이 사용되었다.

✳

새로운 미션을 향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행보

외환위기에 비뚤어진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데 민간단체는 큰 활약을 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종교기관의 활동이 눈에 띄었다. 초기에는 실업자 가정에 쌀을 나눠주거나 무료급식을 하는 식의 구호 활동이 주를 이루다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일자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공공근로 민간위탁 및
인력지원 내역
(1998~2003)

구분	사업위탁			인력지원	
	단체수	예산지원액	선발인원	단체수	지원인원
1999년	177	10,637	5,364	1,901	14,823
2000년	515	11,220	5,896	3,073	12,549
2001년	132	5,092	2,455	1,756	9,908
2002년	113	4,181	2,453	1,048	3,768
2003년 1/4	10	186	79	174	322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과 내부자료

리 창출운동으로 모습을 갖춰갔다.

당시 일자리 창출운동의 큰 줄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다. 하나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공모사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이었다.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정부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이 더 컸지만 장기적인 지속과 발전 가능성 면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이 더 나을 수 있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제안공모사업을 통해 전국의 종교기관이나 민간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전국에서 전문적으로 실업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টে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숲 가꾸기, 무료간병도우미나 초등학교 형광등 세척, 집수리 등의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신속하고 높은 고용효과를 내는 동시에 지역에도 유용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민간단체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제안공모사업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던 것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아이টে을 실업극복 용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제안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아이টে을 실업대란이 극복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토대가 되었다.

- ① 사랑의 도시락 나눔 지원
- ② 실직노숙자 방한복 나눔 지원
- ③ 실직가정 교육지도 지원



실업극복국민운동 사업
지원규모(1998~2002)

(단위: 건, 연명, 백만 원)

사업별	사업 건수	금액		지원인원 및 건수	사업기간	
		지원결정액	집행액			
기획 사업	실직가정동기범국민결연사업	1(191)	24,547	22,738	258,785	98/11~99/12
	실업자종합지원센터	1(4)	957	785	11,852	99/02~00/04
	실업극복지원센터	1(100)	17,095	16,324	514,998	00/01~01/03
	장기 실업자 심층추적상담사업	1(16)	880	759	12,266	01/09~02/08
	기타 실직노숙자지원사업 등	22(50)	2,630	1,625	84,101	수시
소계	26	46,109	42,231	882,002		
제안 공모 사업	1차 실직여성겨울나기 등	23	2,606	2,484	64,575	98/10~99/09
	2차 실직가정 교육지도 및 무료급식 등	63	12,746	12,079	486,253	98/12~99/12
	3차 사랑의 도시락 등	83	8,096	6,580	277,827	99/04~99/12
	4차 저임금인력 해외취업	2	503	475	515	99/12~00/06
	5차 실직가정자녀 무료학습지도 등	69	6,193	5,519	282,971	00/01~00/12
	6차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20	999	955		
	7차 실직가정 긴급구호사업	1(77)	4,192	4,032	18,442	01/01~01/03
	8차 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	56	5,387	5,015	202,841	01/07~02/06
9차 실직가정 생활안정지원	47	2,745	1,924		01/08~02/07	
10차 무료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등	41	2,594	400	추진중	02/07~03/06	
소계	405	46,061	39,463	1,333,424		
계	431	92,170	81,694	2,215,426		

*괄호는 참여단체의 수 / 출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
민간 주도 국민운동, 5년의 성과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게 한 것이었다. 이는 민간의 거의 모든 노동단체가 실업극복국민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위축되면서 가장 큰 실업자군(群)으로 떠오른 건 건설일용직 노동자였다.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는 전국건설일용직노조협의회에서 제안한 건설실직자 무료취업알선센터의 운영을 지원했다. 이는 건설 노동시장의 음성적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건설일용직 노동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또한 부도기업을 노동자가 인수하도록 지원하

• 1998. 7. 13.
실업극복국민운동 현판식





· 1999.2.14.
실업극복국민운동 공동위원,
노숙가족 쉼터 「살림터」 방문

는 고용지원사업도 진행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고용유지 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유지지원사업은 부도기업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출자해서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여 직접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부도 또는 부도 위기의 32개 기업이 노동자에게 인수되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2,8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 성과를 노동자인수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법안 추진으로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실업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사업과 지역 단위 실업 실태조사 등도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1999년 3월에는 전국의 기초협의회체와 민간단체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가운데 모범사례를 모아서 전국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실업자지원종합센터도 전국에 설립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간 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1999년 시범 운영된 실업자지원종합센터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을 통해 2000년에는 전국의 100여 개의 실업자지원종합센터 설립으로 확대되어, 취업알선과 생활·노동법률 상담 그리고 생계비지원 및 기타 복지지원 프로그램의 거점이 되었다. 같은 시기 건설무료취업알선센터도 30개가 넘게 설립·운영되었다.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과 상설기구로의 전환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산재한 민간단체와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투명하게 재원을 관리하면서 실업대란 극복에 일조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실업률이 감소해 2001년에는 4%대까지 떨어지면서 국민성금으로 실업자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물음이 던져지자, 전국에 설립된 실업극복지원센터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2001년 3월, 전국의 실업극복 관련 단체는 '지속적으로 실업극복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업 상황을 외면한 채 실업극복국민운동 조직을 해체하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며 '실업성금은 전액 실업극복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변화된 실업구조에 걸맞게 장기적 계획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에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속 여부와 잔여기금 사용방안을 놓고 의견이 대립했다. 한편에서는 매년 사업이 감소한다는 근거를 들어 잔여기금을 실업 관련 단체나 복지기관에 기부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등 실업대책이 체계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정부 주무부처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운영위원들도 실업대란 시기에 맞춘 긴급구조 성격의 운동은 마무리할 때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범국민적 참여로 이루어진 실업극복국민운동 조직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적 해체와 상설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용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을 멈추자는 측이 내세운 가장 큰 논거는 실업률 감소였다. 그러나 막상 실업률 감소와 상관없이 낮아진 고용의 질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졌고, 중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실업자 문제도 심각했다.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시장도 불안정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2000년대 들어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했고, 고용시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업극복국민운동을 해체하되 상설 비영리재단을 설립해서 국민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현안을 분석하고 후속사업을 기획하다

2000년 10월 21일, 개신교의 강원용 목사,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불교의 송월주 조계종 전 총무원장 등 3인의 공동위원장과 상임운영위원은 수유리의 아카데미하우스에서 5시간에 걸친 연석회의 끝에, 잔여성금의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론 내렸다. 특별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강원용 목사와 송월주 전 총무원장이 맡았고, 성한표 상임운영위원장, 김성희·지은희 공동운영위원장, 방극윤 위원, 이석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간사로는 신재면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과 최영선 사무차장이 임명되었다. 11월 6일 열린 첫 회의에서 특별소위원회는 실업성금과 용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비영리재단을 설립해서 실업극복국민운동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였다.

2001년 8월 17일부터 이틀간 실업극복국민운동 상임운영위원회와 특별소위원회의 연석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국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성한승, 김정열, 신재면, 이석태, 이수봉, 이영환, 이정희 위원과 최영선 사무차장 등 8인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기획단장은 성한승 위원이 맡았다. 기획단은 2001년 8월부터 후속기구 설립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방향 전환과 후속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후속기구의 법인설립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부와 협의할 별도의 협의단도 구성했다.



해외 선진사례 연구로 해법을 찾다



• 2001. 해외 선진사례 조사 활동

2001년 9월에는 후속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해외 출장 조사는 2001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2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조사1팀은 프랑스와 스페인을, 조사2팀은 일본과 호주를 방문했다.

조사1팀은 프랑스에서 독립자영업자협회와 사회연대금고의 사례를 조사했다. 독립자영업자협회는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자조조직(自助組織)이었다. 구성원인 자영업자들이 평소에 회비를 냈다가 위기 상황에서 재기자금을 지원받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조사1팀의 눈길을 끈 것은 사회연대금고였다. 프랑스정부와 유럽연합, 대기업이 출자해서 만든 사회연대금고는

민관이 연합한 공적자금 성격이 강했다. 사회연대금고는 실업자 개인 대신 기업을 상대로 기금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회적 목적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스페인에서는 민간 실업대책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선진 시스템을 조사했다. 스페인의 민간 실업대책기구인 실업대책 네트워크기관 거미 네트(Red Arana)는 고착화한 실업구조에서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을 계승하는 상시적 민간기구 설립의 당위성을 확인한 것이다. 거미 네트는 스페인정부 노동사회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하는데, 취업처 소개뿐만 아니라 소규모 창업도 지원했다. 1980년대 이후 실업이 장기화된 유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실업급여 적용 범위 조정, 실업자 개별 상담과 관리를 정책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였다.

조사2팀은 일본의 노동연구기관인 일본노동기구(ILL)를 방문해서 높은 실업률(5.3%)에 대응하는 일본의 실업대책을 조사했다. 일본정부는 비영리단체법을 만들어 정부나 지자체사업 일부를 이관하는 분위기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하천관리사업이나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이 있었다. 비영리단체법은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해당기관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해서 고용창출과 공익 실현의 성과를 모두 내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센터링크제도가 인상적이었다. 호주정부는 공공사업을 민간에 개방해서 운영능력이 뛰어난 단체에 사업을 맡기는데, 공공서비스의 통합 네트워크인 센터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센터링크는 호주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실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 기능도 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해외조사팀은 선진 산업국가에서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고용창출과 연결하는 데 주목했다. 실업이 장기화되던 프랑스와 스페인, 일본에서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전의 고속성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또한 외환위기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 것도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문제요인이었다. 전통적인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알선으로는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새로운 고용시장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해외사례에서처럼, 공익성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해법이 될 것으로 보였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고용효과가 컸다. 조사팀은 보고서에서 사회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실업성금의) 잔여기금을 넘길 것을 제안했다. 설립 초기 재단이 사회적경제 도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굳건한 민간기구의 필요성

해외사례 연구 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실업성금의 잔여기금으로 새로운 민간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반해, 노동부는 의도는 이해하나 국민성금으로 모인 잔여기금을 별도의 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는 원칙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업성금은 실업자를 위한 대책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근원적 입장의 노동부 입장을 바꾸기 위해, 강원용 공동위원장과 이세중 변호사가 끈질기게 노력했다. 실업과 고용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니 공익법인 설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업대책 등 목적사업에 잔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논리로 정부부처를 설득하려 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도 구조적 실업문제가 이어지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선 항구적인 실업대책 기구가 필요했다. 결국, 정부도 운영위원들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노동부는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비영리재단 설립을 수용했다. 2003년 1월, 제7차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에는 강원용, 강영훈, 김수환, 김정태, 김중배, 노진귀, 성한표, 송월주, 신철영, 은방희, 이광택, 이세중, 이수봉, 지은희, 최학래 위원이 참여했다. 추진위원장으로는 강

원용 공동위원장이 선출되었고, 성한표 상임운영위원장이 실무 추진 책임을 맡았다. 추진위원회는 실업극복국민운동 2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만든 후 노동부와 협의해가며 정관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는 6개월간 총 10회의 회의를 이어나가며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잔여성금을 신설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출연문제 등을 검토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비영리 공익재단의 설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 2003.4.1.
제8차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1장

2003 - 2007

정착기

2003 2007



사회적일자리의 발견, 연대와 협력의 결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를 계승한 민간조직의 새 이름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이하 함께일하는사회)로 정해졌다. 함께일하는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상존하거나 새롭게 도래할 실업문제를 대처하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로 자처해 맡을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 직후 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3~4%로 떨어지며 실업대란이 끝나가는 모양새였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고용환경은 외환위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더욱더 깊은 일자리문제가 전개되고 있었다. 전통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기업들은 모험적인 투자를 줄이고 그만큼 인력 모집에 소극적이었다. 저임금 임시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점점 악화되었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깊어졌다. 실업문제의 구조화와 경제적 양극화는 가속화되었고, 실업과 빈곤문제는 복잡하게 뒤얽혀 그 매듭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함께일하는사회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과 빈곤이 결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제도나 지원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현존한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사회문제를 함께일하는사회가 적극 주도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함께일하는사회가 마주친 일자리문제는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과거와 달리 실업문제는 계층별로, 성별로, 직업군별로, 직업의 구조별로 복잡하고 상이하게 진행되어 갔다.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양적으로 줄어들고 질적으로 열악해져 갔기 때문에, 재단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과 빈곤에 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막대한 시설 투자나 장기간의 교육 없이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거둘 곳은 사회서비스 분야가 최선이었다. 재단은 이를 위해 정책 제안과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의 양방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대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함께일하는사회는 정부를 비롯해 여느 민간단체도 실현하지 못한 일자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민간조직이기에 가능한 민첩하고 현장감 있는 일처리로 실업문제 접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갔다. 그렇게 탄생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법은, 민간 주도형 솔루션이 닿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과이자, 주체이면서도 주도적인 재단의 존재 가치를 만방에 입증하는 값진 열매였다.

01 민간 주도형 실업대책기관의 출범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가정을 대상으로 민간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던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실현에도 앞장서는 민간 실업대책 전문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함께일하는사회로 일신(一新)해 그간 민간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 시대의 일자리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 장기화된 실업의 그늘, 일자리 창출이라는 난제(難題)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은 2003년 무렵에는 수치상 어느 정도 진정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정부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40~50대 장기 실업자, 청년실업자, 불안정 고용층,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당장의 일자리가 시급했다. 재단은 이들과 일자리를 연결할 방법을 속히 찾아야 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소위 '고속 성장'의 특수 속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고성장 기조는 막을 내렸다. 당시 기업은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외환위기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사라진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일자리의 질적인 하락도 문제였다. 고용의 유연화로 구조조정이 법제화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졌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재단은 실업대책 전문기관으로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적합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을 계승한 함께일하는사회 출범



· 함께일하는사회 전경

2003년 3월 2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성한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재단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강원용 추진위원장이 임시 의장을 맡았고, 임시 서기로는 이광택 위원이 추대되었다. 그리고 4월 1일 열린 8차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해산과 새로운 민간법인의 설립을 결의했다. 그래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5년 여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실업대책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의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6월 23일, 노동부에 제출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허가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비영리 민간 실업대책 전문법인인 함께일하는사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창립총회에서 임시 의장을 맡았던 강원용 목사가 선임되었다.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상임운영위원장으로 많은 활동을 한 성한표 위원이 상임이사를 맡았고, 이사회에는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가 고르게 참여했다. 함께일하는사회는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힘을 모았던 경험과 연대의 가치 계승을 표방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 정치계, 여성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의 의의가 있었다.

재단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었고, 사무처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조직으로 설치되었다. 사무국은 업무분장에 맞춰 재정총무팀, 기획개발팀, 사업지원팀, 홍보팀, 정책실 등 4팀 1실로 구성했다.

2003년 7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빌딩에 입주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함께일하는사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사회안정망 구축을 미션으로 내걸고 정부와 국가단체와 협력하되 재단만의 주체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전략과 방식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해법을 모색했다. 재단의 설립취지서에서 읽을 수 있듯, 함께일하는사회는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되 사업 영역의 중복은 가능한 피할 것'을 적시하면서, 민간조직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 즉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였다.

- ① 함께일하는사회 초기 구성원
- ② 2003.11.21. 실업극복국민재단 1대 강원용 이사장 연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설립취지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이로 인해 발생한 대량실업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기가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실업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실업성금을 모으고 금붙이를 모으는 등 전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전 국민의 참여 속에 민관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하나 된 마음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조화된 실업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빈곤의 양상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국민운동의 전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국민 참여의 민간운동으로 변화,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는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갈 것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되 사업 영역의 중복은 가능한 피할 것입니다. 국민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며 대상의 특성상 정부 정책의 손길이 부족한 영역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실업자, 불안전취업자, 실망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 가치를 국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활동들을 해갈 것입니다. 실업자 지원사업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저소득층 청년실업해소사업,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캠페인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빈곤 및 사회적 배제로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을 여론화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나눔의 가치와 공동체성 문화를 국민의식과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들을 사회통합운동으로 발전시켜가고자 합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초대이사회

이름	직책	당시 소속
강원용	이사장	크리스찬아카데미 전 이사장 평화포럼 이사장
성한표	상임이사	한겨레신문사 부사장
고희범	이사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강영훈	이사	전 국무총리
송월주	이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경숙	이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광택	이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금희	이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이세중	이사	전 대한변협 회장 (재)환경재단 이사장
은방희	이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기산	이사	천주교 인천교구장
강지원	감사	변호사 /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감사	회계사 / 딜로이트투쉬회계법인 전무

이름	당시 소속	이름	당시 소속
성한표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용철	문화방송 전무이사	이수봉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용안정센터 소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조준모	송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인규	전북 실업자종합지원센터장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부소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황주석	YWCA 전국연맹 대외협력국장
오귀환	인터넷한겨레 상임고문		

• 2003.6.23.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제1회 이사회
및 입주식



★ 재단의 첫 사업, 전국실업자지원센터 지원

재단은 설립 이전 해외사례 조사에서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민간 차원의 일자리 안전망 시스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재단은 설립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민간 안전망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해 1998년부터 지원해 온 '전국실업자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가사	산모	간병	청소	경비	건설	제조	경리	사무	서비스	판매	텔레마케터	기타	총계
2,303	98	1,070	773	242	159	588	79	113	421	63	17	1,410	7,336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지원을
통한 2004년 직종별 취업실적



• 2003.10.10.
실업자지원센터 실무식

지원했다. 전국실업자지원센터는 1998년 12월 개소한 전북 실업자민간지원센터에 뿌리를 두며 지역 실업자의 구인·구직과 법률상담, 실직자 가족 심리상담, 바자회를 통한 실업기금 마련, 복지지원 실업자와 가족에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전국의 100여 개 실업자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민간단체들의 실업대책사업을 조정하거나 연결하면서 민간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업대란 극복을 도왔다.

재단은 2003년 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가운데 20억 원 이상을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2004년에도 실업자종합지원센터 27개소와 건설센터 10개소에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전국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전국 지역센터를 일일이 방문하여 사업 및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했다. 전국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핵심사업은 취업알선과 교육, 상담이었는데, 센터별로 담당자별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달라서 데이터의 축적과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단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개발 전문 업체를 통해 사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였고 이후 사업 데이터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장지원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층적 지원의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 방식의 시도와 시련

재단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의 내용과 양태 등 실업구조가 바뀌어가는 데 주목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실업 양상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다. 실업 상황은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단은 다가오는 사회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실업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해 실업문제에 대처하고자 했다. 하지만 고용안정센터는 실업급여 신청업무에 치중해서 실업자의 취업알선이나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여력이 없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역별 실업자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각 지역 민간 실업 지원 단체들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연결하면서 실업자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지역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예산은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지원했다.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지역실업자지원센터가 다시 자신과 연결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배분하는 식이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예산지원을 받았던 많은 민간단체가 원래

02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고심

외환위기 당시의 실업률은 누그러들었지만, 고용흡수력이 저하된 탓에 장기 실업자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했고,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새로운 요청도 거세어지고 있었다. 이에 재단은 일자리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복지 개념의 사회서비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 사회적일자리를 위한 정부와 재단의 하모니

2004년 정부의 7개 부처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총괄조정권자인 노동부는 재단에 행정적·정책적 지원 역할을 요청했다. 재단의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일주일간의 간담회로 시작되었다. 간담회는 방과 후 공부방사업, 재가간병 및 장애통합교육·도우미사업, 청년문화사업의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했는데,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결과 방과 후 공부방사업, 재가간병 및 장애통합교육·도우미사업 그리고 재가간병사업의 3개 광역사업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각 사업을 운영할 시민사회 단체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이 전국 단위의 광역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도록 정부지원 이외의 사업비와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모델은 다시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발전에 참고·반영되도록 정책 제안으로 연결했다. 간병사업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역 관련 단체의 확대된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장애통합도우미사업과 학교 방과 후 사업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사업으로 확대·시행되는 성과를 올렸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2005년 한층 강화·확대되었다. 1월, 재단은 노동부와 사회적일자리사업 컨설팅과 지원 대상 선정심사 지원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노동부의 예산지원을

의 업무로 돌아갔지만, 실업 관련사업을 철수하지 않고 남은 일부 단체들은 전국실업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결집했다. 재단은 2004년에도 기존 방식대로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연간 2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금액을 재단이 계속 오롯이 감당하긴 어려웠다. 재단은 전국실업자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의례적으로 지원하던 예전의 방식 대신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재단의 재원인 국민성금 잔여기금은 제한적이어서 아무 대안 없이 전국실업자지원센터를 무조건 지원해서는 머지않아 자금이 고갈될 것이었다. 결국 2005년, 재단은 다른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심의해서 지원할 것을 결정하고, 전국실업자지원센터에 향후 지원을 위해선 관련한 사업기획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국실업자지원센터가 이에 반발했다. 실업자를 지원하려고 조성한 기금인 만큼 갑자기 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업무상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실업자를 지원하는 기존 일도 벅찬데 매번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재단은 보다 객관적 평가를 보강하고 합리적 설득을 위해 2005년 3월 3일, 전국의 전국실업자지원센터를 방문하고 평가할 특별위원회(남인순 위원장, 강지원 감사, 이광택 이사)를 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실업자지원센터에서는 재단의 방향성에 대해 여전히 이견(異見)을 보였다.

특별위원회는 중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의견 차가 점차 좁혀졌고, 2기 상임이사로 안재웅 목사가 선임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재단의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추구 방향성에 대한 논쟁은 일종의 성장통이었고, 이를 통해 재단은 더 주체적인 존립기반을 확보하고 추구할 미션과 비전을 더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다.



• 2004.1.26.
일자리만들기 토론회 진행

받는 143개 단체사업을 심사했다. 100여 개의 비정부기구를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36개 단체에 사업컨설팅을 제공했다. 최종적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350여 개의 비정부기구 가운데 20여 개소를 현장 실사하고 사후관리도 진행했다.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구 6개 단체에 자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민간 네트워크 구축작

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사회적일자리사업 중에도 수익성 있는 모델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었다. 재단은 이러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민·관 공동연수를 주최하여 새로운 성공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기업과 사회적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를 연결해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한 것도 성과였다.

✱
실업 관련 민간 협의체의 참여 주도

재단은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돕는 한편 사회적일 자리를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했다. 2005년의 사회적일자리 TF 활동이 대표적이다. 재단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7개 정부부처, 기업,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회적일자리 TF를 구성했다. 재단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과 정부부처의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통로로 기능했다.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지원을 제도화할 방안을 의제로 삼은 것이다. 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사회적일자리가 사회적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TF에서 재단은 사회적일자리 개념을 재정립하고 유형별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회적일자리사업 가운데 사회적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2006년, 재단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수행업체로 선정된 450여 개의 단체 가운데 46개 단체를 방문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했고, 2007년에는 74개 단체의 모니터를 진행했다. 사회적일자리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부 관계자와 사회적일자리 업체가 함께한 사회적일자리 정책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성과였다.



• 2006.7.20.~22.
제1차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워크숍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매년 높아졌다. 2003년에는 7,071명, 2004년에는 21,632명, 2005년에는 69,314명, 2006년에는 133,509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재단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직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견인하고자 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전체 고용시장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2.6%로 OECD 평균인 21.7%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국민은 기존에 없던 사회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었고, 고용시장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민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재단은 정부의 일자리사업을 단기적 고용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도록 이끌고자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은 2004년 12.7%, 2005년 13.1%로 꾸준히 향상되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욕구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영리조직들이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과 자립 지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 것도 재단 노력의 성과였다. 이들 다수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기초가 될 환경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들어지고 있었다.

✱
실업 관련 민간단체의 연대,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

외환위기 이후 정부도 다양한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단이 보기에 변화하는 여러 환경과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재단은 민간단체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업대책 고민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부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문제 관련 민간단체들을 아우르는 단체가 필요했다. 그래서 재단은 연대기구인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의 발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4년 초, 재단은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의 구성 기획을 마무리하고 40여 개 민



• 2007.5.16.
제1차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워크숍

간단체에 제안서를 발송하는 한편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을 방문해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일 자리를 확대하고 있었다.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가리킨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노숙자 돌봄서비스,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단기·저임금 위주의 사회적일 자리는 불안전 일자리를 양산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는 순간 고용과 복지제공의 지속성이 사라질 소지가 일부 있었다. 그래서 재단은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개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의 운영을 주도하면서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나아가 재단은 이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꾸준히 이어갔다. '실업-빈곤 포럼'과 '실업극복을 통한 지속성장가능성찾기' 등 토론회와 공청회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재계에서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실업정책의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했다. 이러한 재단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정부의 실업 관련 정책 발굴과 수립에 일조할 수 있었다.

특히 재단은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민간단체가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재단은 일자리의 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제안했다. 그 결과 2004년 광역 사회적일자리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재단의 정책 제안이 노동부에 채택되었다. 방과 후 공부방사업, 재가간병도우미사업, 장애통합교육도우미사업, 청년문화사업의 네 가지 사업아이템도 받아들여졌다.

사회적일 자리는 과거의 공공근로사업과 다른 영역의 사업이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

경기복지사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인인력지원기관협회, 대한YWCA연합회, 대안연대회의, 미래가족문화연합,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생명이슈,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료생협연대회의,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지부,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주)컴원 등 32개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에
참여한 민간단체**

해서는 개별사업을 담당할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 아이템을 평가하고, 사업진행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했다. 재단에는 실업극복국민운동 시절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복지·문화·보육서비스 부문의 민간단체와 손발을 맞춰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다. 재단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유도했다.

*** 사회적기업,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모델**

재단은 설립 이전부터 실업문제의 주요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도입을 모색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모델로 적합했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 측면에서도 유용했기 때문이었다. 2003년 민간재단으로 전환 직후부터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조차 낯설던 2003년,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재단사업은 2003년에 시작되었다. 2003년 11월, 재단은 한국경영컨설턴트협회와 사회적기업 경영지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3개 기업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컨설팅 대상에는 6개의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도 포함되어, 총 9개 사업체에 경영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2004년에는 좀 더 자세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3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했다. 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사업도 진행했다.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경영이나 조직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조치였다. 시험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학교를 열어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 이해도를 높이려고 시도했다. 실업활동가 리더십계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사회적경제 강좌를 개설해서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알리려는 노력이었다.

2003년에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돕기 위해 자금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업이 안정화하도록 도우려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사회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가운데 기업의 형태를 한 곳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들의 상황 역시 매우 열악해서 대부사업과 지원사업의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 일부 사회적기업 지향사업체에 자금 대부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대한민국 사회적기업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 미래 사회적기업가 체계적 육성

많은 민간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수행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문화·복지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진행할 인적 네트워크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재단은 이들의 경험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기업과 겹친다고 판단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민간사회단체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제시하며 권유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집행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사회적기업 역시 경영능력을 요구하는 엄연한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은 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사회적기업의 법적·제도적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서자 재단은 사회적기업 창업 또는 전환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낮춰 줄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만큼 대학 역시 사회적기업의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006년 1월, 재단은 SK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의 개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민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도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논의 끝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사회적기업연구원이 함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지도자들에게 경영마인드와 경영 실무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리더십과 한국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조직운영 시스템을 배우면서 기업 경영의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재단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가 개인적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시너지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 현장실무자, 각 주관기관의 조언을 모아서 업종별, 지역별, 참여대상별 교육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2006년 12월, 재단과 SK행복나눔재단은 최종적인 공동 주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주관으로 1기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2007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가 열렸다. 6월부터 8월까지 열린 부산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1기에는 29인이, 7월부터 10월까지 열린 2기에는 33인이,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전문가과정에는 25인이 수강을 완료했다.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① 2006.12.8.~9.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진행
- ② 2007.10.9.~17. 해외 선진사례 유럽 연수 진행



• 2010.5.26.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해외연수 발대식

카데미를 전국사업으로 확대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 현장 전문가에 대한 해외연수와 포럼도 지원했다. 해외 선진사례를 시찰하거나 연수하여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이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선진 기술과 사례를 국내에 보급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사회적기업 관계자, 비정부기구 구성원, 대학생, 학자, 일반인이 참여하는 '열림포럼'도 2007년 두 차례 개최했다. 매회 100명 이상이 참여한 포럼에선 전문가와 사회적기업 관계자가 열띤 토론을 벌이며 사회적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해외연수와 열림포럼을 통해 재단은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얻은 사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 청년실업자를 위한 네트워킹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재단은 청년실업 대처 인프라의 구축도 진행했다. 1998년 이후 청년실업이 7년째 장기화하면서 청년층 예비취업자를 중심으로 좌절감이 팽배해갔다.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청년층의 소비능력을 저하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경제의 잠재 성장력과 국내총생산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칭)을 제정했지만 청년실업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200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재단은 청년층 인터뷰와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실업자네트워킹센터를 재단 사옥 2층에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실업자네트워킹센터는 청년실업자들에게 능동적으로 실업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공간이다. 취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최신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청년층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문제에 위축된 청년층의 용기를 북돋았다. 청년실업자끼리 의사소통하면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이들이 자조집단까지 형성

하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목적이었다. 청년층이 창업이나 프로젝트의 공동 기획이나 작업을 진행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좋은 기획과 열정적인 청년이 만나면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터였다.

5월, 재단은 청년실업자 시공팀에 공간 설계를 의뢰했다. 청년실업자 온라인정보실과 공동작업실을 갖춘 청년실업자네트워크센터의 시공이 진행되었다. 공동작업실에는 ‘함께 만드는 내일의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재단은 청년실업자네트워크센터에 최신 취업정보를 올리고 청년 멘토링을 진행할 전문가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실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으로 공간만 만들어진 채 사업은 일시 보류되었다.

다음 해 사업이 시행되었다. 2006년 1월, 재단은 청년실업자네트워크센터의 이름을 희망청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지원할 기업을 찾았다. 청년실업문제에 관심을 가진 커리어다음과 SK텔레콤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3월에는 청년실업자네트워크센터의 위탁단체로 전국백수연대를 선정했다.

전국백수연대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실업자들이 온라인기반으로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로, 2004년 해외 청년실업 극복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을 탐방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06년 당시 전국백수연대에는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했다. 청년층 사이에 퍼진 위기의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백수연대와의 사업 약정을 체결한 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청년실업네트워크센터에서 진행할 개별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했다. 희망청은 온라인정보실과 청년공동작업장의 운영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전문서비스, 직장체험 및 현장경험, 멘토링 서비스 등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청년 일자리 해결의 거점, 희망청 설립

2006년 7월 5일, 희망청이 개소했다. 2년간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도 시작되었다. 청년실업 운영 간담회, 상담 서비스 간담회, 청년실업연구모임이 희망청에서 열렸다. 여러 민간단체도 희망청을 통해 청년층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희망청으로 모였다. 청년공동작업장 함께 만드는 내일의 공간에 입주하는 팀이 생겼고, 2006년 3회에 걸쳐 진행된 창업지원 오픈강좌에 57인의 청년들이 귀를 기울였다. 멘토링 및 네트워킹 행사 2회에 21인이, 사회관계 프로그램 4개 강좌에는 71인이 참여했다. 취업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22인이었다.

2007년에는 매달 한 차례의 청년실업포럼을 개최하여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사회에 환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도록 촉구했다. 2007년 4월, 희망청은 UCC 동영상제작워크숍도 개최했다. 이 무렵에는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면서 비싼 영상기자재 없이도 사용자



• 2006.7.6.
희망청 개소식

가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창작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2010년대 이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세계적인 정보문화 콘텐츠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희망청은 청년층에게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여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다가오는 미래형 콘텐츠시장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취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7월에는 백수방송국을 개국했다. 백수방송국은 라디오용 방송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주 마포FM 주파수를 통해 송출했다. 마포FM은 2005년 설립된 소출력라디오방송국으로, 2008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2013년에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곳이다. 백수방송국은 청년실업문제를 알리고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희망청이 어떻게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교류 활동도 벌어졌다. 2007년 3월에는 일본외무성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일본국제 교류기금이 희망청의 시민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국경을 넘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희망청은 청년의 목소리를 사회에 내놓으면서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희망청은 청년실업 현황과 분석, 기업의 청년고용 및 정부 대책 수립에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이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이었다. 희망청의 존재는 정치권에서도 청년실업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실업자네트워크센터의 운영 프로그램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관계 형성이나 상담 프로그램, 멘토링 서비스 연결은 사교육 서비스 및 기존 학원에서 진행하던 기능적 역량 강화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접근이었다.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송 캠페인과 홍보

재단은 과거 해외사례 연구과정에서 인상적으로 접했던,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함께일하는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해부터 재단은 언론매체와 밀접하게 협력하며 홍보를 통해 보다 더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서려 노력했다.

2003년 11월 21일, 함께일하는사회는 민간재단 전환 이후 최초의 대중 행사인 희망기



• 2005.9.30.
기빙엑스포(Giving EXPO)

금 릴레이 캠페인 <실업극복 희망을 추천합니다>를 문화방송(MBC)과 공동 주관했다. 재단은 방송을 통해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계승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업극복사업의 2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방송 후 이어진 함께일하는사회 후원의 밤 행사에는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세중 변호사, 이광택 국민대 교수,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지은희 여성부 장관, 최기산 천주교 인천교구장, 한승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 재단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 2월, 재단은 KBS와 기획 협의과정을 거쳐 KBS 1TV에서 연중기획 프로그램 <이제는 동반성장이다-실업탈출국민운동본부>를 연중기획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 중장년 등 세대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해온 유럽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7월에는 KBS저널을 통해 3주 동안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사례를 홍보했고, 연말에는 MBC와 공동모금회 공동 주관으로 희망모금 캠페인을 벌여 방송 중 실업극복 모금코너를 방송했다. KTV와는 <아름다운 기부, 함께일하는사회>를 연중캠페인으로 진행했다. 이 밖에도 2004년 인쇄매체에 90건 이상, 방송매체에 30건 이상 노출하며 실업극복사업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관심을 제고했다. 2005년에는 홍보팀 인력에 결원이 발생하면서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나 인쇄매체 20건 이상 방송매체 10건 이상의 노출 성과를 냈다. 또한 KBS 기획특집 <양극화사회, 희망의 로드맵>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줘서 비정규직문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을 환기했다.

재단은 당시 주류 소셜 플랫폼이었던 싸이월드와도 협업하여 '사이좋은 세상, 사이좋은 사람들 청년백수 바로보기' 실업 캠페인을 진행했다. 만성화되는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실업자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청년실업사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는 '즐거움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포털 사이트와 연계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구직자들이 계층별, 직종별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강연,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행사를 기획해서 주최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기빙엑스포를 공동 주최하면서 홍보부스를 통해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활동을 국민에게 선보였고, 온라인 소식지도 발행하면서 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2006년부터는 계간지 <함께일하는사회> 발행과 홈페이지의 뉴스서비스 제공도 시작했다.

*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외부 협력 및 연대 노력

재단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재단의 목표를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협력 활동을 벌였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 재단의 상임이사가 참여하여 고용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책을 제언했고, 역시 국무총리실 산하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고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 국회 사회복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청와대 정책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며 정책 제언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 일자리 창출특위가 참석하는 실업-빈곤정책간담회도 추진했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실에서 정책 제안 미팅을 진행했다. 2005년에는 재단의 기획개발팀장이 청와대 정책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고용을 통한 실직빈곤층의 삶을 개선할 정책 제언을 수행했다. 기업과 힘을 합해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였다. 2004년 8월 전경련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사회공헌세미나가 대표 사례다.

사회서비스를 대한민국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해외사례의 연구조사도 추진했다. 2004년 6월에는 사회적기업의 전망을 확인하고 사회적기업 지원기구의 역할모델을 탐방하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해외사례 연구조사 결과는 8월에 보고서로 만들어 배포했다. 선진 산업국가인 프랑스 실업운동가와 학자를 초청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익재단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실업과 빈곤문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른 공익재단과 연합모금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재단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십분 발휘되도록 노력했다. 기업 컨설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한 것도 이 시기 재단이 이루어낸 성과였다.

재단의 다각적인 활동으로 사회적기업의 유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점차 널리 알려졌다. 2005년 이후 사회적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언론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사와 방송을 쏟아냈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도 사회적기업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고 팔을 걷어붙였다.

• 2004.7.14.
실업,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진행



03 지속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 정책연구원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일자리를 창출할 지원사업의 기획과 운영뿐만 아니라 실업문제 해소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회적일자리 도입과 복지 제공 연계방안 등은 모두 재단의 연구로부터 비롯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었다. 이러한 재단의 연구는 더욱더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연구원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다. 이는 또한 미래 일자리 모색과 재단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기도 했다.

*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문제 대비, 정책연구원의 개소

재단이 추구한 사회적일자리 모델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기업에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재단은 설립 이전에 유럽과 일본, 호주를 탐방하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해법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이 진행되면 훨씬 더 구체적인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사회적기업이 상당한 고용과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이나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올 순 없었다. 그들에게 그들의 사회경제적 역사와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안착시킬 정책적 방안을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해야 했다. 재단 밖에서

도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문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이어서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재단은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업 정책을 연구할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 재단 산하 정책연구원을 개소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출범한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한국 사회의 실업과 고용 창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정책연구원은 직접 수행할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학계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연구의 폭과 깊이를 높였다. 정책연구원에서 도출한 실업 및 사회적기업의 대안모델은 연구보고서나 발간물로 제작되었다. 연구 발표회나 포럼도 개최해서 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당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을 맡았던 최종태 교수가 초대 정책연구원장으로 위촉되었고, 재단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던 안재웅 박사가 상임 연구위원을 겸했다. 연구위원으로는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허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선희 기부정보가이드 대표,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실장을 선임했다.

정책연구원은 개소 첫해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원연계방안' 연구보고서와 '2005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실태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연구원은 사회적기업 및 모금전략에 대한 교육도 실시, 내부 역량 강화에도 일조했다.

* 다양한 정책연구사업 추진

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현실 개선에 일조하도록 했다. 정책연구원 설립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조사, 학교급식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조사연구, 실직빈곤계층 가구유형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기부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형 보조기구 비즈니스 접근 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도 크게 늘어났는데,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노인 요양보호를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공공 영역에서 노인요양을 책임지기 위해 정부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

• 2007.11.9.
보조기구 공모전





• 2007.11.9.
보조기구 공모전

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했다. 2006년 12월, 재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과 고용창출을 연계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조사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창출될 서비스 영역과 이에 필요한 인력 수치를 예측하며, 서비스 실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이었다.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2006년 12월부터 4개월에 걸쳐 문헌 연구 및 현장 조사, 연구회의와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했고, 최종보고서는 2007년 4월에 발간되었다.

학교급식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조사연구는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된 연구사업이다. 당시 학교급식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급식대상자의 수는 700만 명을 웃돌았는데, 급식비의 횡령 등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곤 했다.

일부 지역의 급식 열량은 성장기 청소년의 하루 필요 열량 2,200kcal에 한참 못 미치는 400~550cal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은 학교급식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모델을 수립해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낼 목적으로, 학교급식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획했다. 12월의 학교급식 실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1월에는 학교급식 관련자의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개월간 축적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사회적기업 기초모델과 식자재 공급을 위한 물류시스템 기초방안을 연구했다. 재단의 연구 결과는 이후 학교급식의 조리는 물론 급식재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는 기초자산으로 활용되었다.

실직빈곤계층 가구유형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는 기업의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진행한 사업이다. 2006년 3월, SK그룹 사회공헌팀은 이후 진행할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하는 동시에 전·현직 임원의 개인 기부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직빈곤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재단에 의뢰했다. 재단은 실직계층의 빈곤탈피를 지원하는 기업의 개입 프로그램과 기부자의 단계별 개입전략을 매뉴얼로 만드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기업의 지원 개입 프로그램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조직화해서 실직빈곤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활공동체 또는 사회적기업 수립 등으로 지원방안을 차별화할 필요성도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기부 활성화방안 연구는 2007년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다. 기부금 운영 관련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한국형 보조기구 비즈니스 접근 방향에 관한 발주기관은 서울지방 노동청이었다. 이 연구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자립생활에 제약이 있는 이들의 보조기구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보조기구 시장을 활성화할 비즈니스 접근 방향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 이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황을 재해석하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이 가진 보편성과 국내 적용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
정책연구원 심포지엄 개최

2006년 11월에는 특별연구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 심포지엄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사회적기업 실무자, 시민사회단체, 비영리기구,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고용을 통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 방향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시장 발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다.

2007년 6월의 정책연구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더욱 성대하게 열려 재단 정책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했다. 정책연구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4월부터 재단 전체가 준비에 참여했을 만큼 심혈을 기울인 행사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는 정부 정책관계자, 학계 연구원,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 등이 다수 참여하여 정책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정책 제언을 경청했다. 재단의 연구발주사업인 사회적기업평가도구와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조사 연구 결과도 이 자리에서 소개되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이었다. 먼저 이승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와 정선희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사회사업평가도구 개발의 연구 성과를 발제했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각 발제 뒤에는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심포지엄을 통해 재단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대중에게도 홍보할 수 있었으며, 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노동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후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효과도 만들어졌다.

• 2007.6.1.
정책연구원 1주년 심포지엄
개최



04 새로운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개발

재단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성공모델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 다각화된 지원 및 협력·연계사업을 펼치면서, 사회적경제의 바람직한 접근에 대해 여러모로 고심을 거듭했다.

수혜 대상을 다층적으로 나누고, 시의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아이টে을 섬세하게 마련해 재단의 지원사업이 사회에 폭넓고 고르게 미치도록 애썼다. 그 결과, 재단은 교보다솜이 간병사업과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수확할 수 있었고, 사회적경제를 복돋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재단의 사회적경제 모델 추구, 교보다솜이 간병사업①

재단은 생소한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공헌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널리 알려줄 수 있는지 보여줄 성공모델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이었다.

2004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된 직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간병서비스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간병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그만큼 처우의 수준 또한 낮았다. 고용시장에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이 간병인으로 지원했지만 열악한 근무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간병서비스는 취업이 아닌 봉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로 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곤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2004년 재단은 교보생명에 저소득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간병사업을 기획해서 제안했다. 교보생명은 크게 환영하며 예산지원을 약속했다. 2004년 3월, 재단은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역을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으로 정했다. 곧바로 각 지역사무국을 구성했다. 자활후견기관



· 2004.4.21.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발대식

협회의 도움을 받아 지역별 지원자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으로는 총 70인을 선발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간병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재교육과 보수교육도 진행했다.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

험에 가입시키고, 여름캠프와 지역별 송년회도 개최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원들에게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강한 직업의식을 심어줬다. 간병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이루어졌다. 간병서비스의 수혜자는 주로 2차 의료기관(중소병원 및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과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의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그리고 무의탁환자 가운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장기입원 환자 가운데 병원이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정했다. 2004년 한 해 동안 실인원 1,064인, 연인원 12,735인이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의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병원과 환자의 반응이 모두 좋아 2005년에는 간병사업단의 규모를 100인으로 확대했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수교육의 정례화도 추진했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의 간병서비스는 체계를 갖췄고, 간병봉사단원은 전문간병인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의 사례는 TV<KBS스페셜>에 소개되어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와 기업에서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예산도 일부 편성되었다.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고조되었다. 2006년에는 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을 다시 150인으로 늘리고 사업지역도 인천을 추가해서 6개 도시로 확대했다. 재단은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원을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업무상 애로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은 문제에도 빠르게 대응하면서 좋은 업무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7월부터는 무료간병서비스와 함께 유료간병사업도 우선 병행하여 대전과 대구, 광주에서 실시했다. 당시까지 의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던 간병비용을 현실화하면서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조 맞고대 형식의 공동간병제도도 도입했다. 취약계층 대상의 무료간병서비스는 하루 10시간씩 운영했고, 일반 환자에게는 공동간병 방식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유료서비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재단은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맞춰 명칭을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로 변경하고 BI(Brand Identity)도 개발했다.



사회적경제의 가시적 성과 실현, 교보다솜이 간병사업②

사회적일자리사업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저임금·임시직 일자리가 많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험도 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지녔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기업 모델은 정부 부담을 저감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실업대책 전문기관인 재단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에 공익성 높은 사회적경제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했다. 2005년의 정부 사회적일자리 TF에서 교보다솜이 간병사업모델이 중요하게 부각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재단은 2004년부터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형태를 제안했는데, 2005년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을 실제사례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다. 재단이 참여한 노동부 주관 사회적일자리 TF팀은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을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모델로 들어, 사회적기업법 제정 관련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은 사업 자체의 성공 이상의 효과를 발생시켰다.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전형이었다. 기업지원형 사회적기업의 전형이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는 기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려 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은 교보생명의 지원을 받아 재단이 직접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다. 사업 성공으로 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업참여형 사회적기업 개발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의 유명세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도록 했다.

- 2006.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활동
- 2004.7.9.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2기 하계캠프 '일하는 여성 힘내기 한마당'



문화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 모색, 신나는 문화학교

재단은 복잡하게 진행되어 가는 실업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령별, 성별, 취업특성별로 다양한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2000년대 초반 고용시장의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령대는 청년층이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몸집을 줄이면서 경력직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면서 구조화되고 있었다.

재단은 취업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인 '신나는 문화학교' 사업을 기획했다. 창의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경험은 업무역량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에 재단은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 고용창출과 복지향상을 실현하려 했다. 세부사업 목표로는 연간 50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취약계층 아동 1,000인에게 무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웠다.

2004년 5월, 청년 실직자 문화강사 육성사업은 재단이 삼성증권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추진했다. 재단은 문화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경험을 갖춘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와 사업을 공동 주관하기로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에 착수했다. 8월에는 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실업자 50인의 모집을 완료했다. 수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9월에는 전문가 워크숍도 진행했다. 교육 장소로는 서울과 인천, 안산을 선정하여 지역 공부방과 시설에 95개의 교실을 설치했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나는 문화학교 1기 수업이 시작되었다. 문화예술 강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높았다. 이에 따라 재단은 애초 기획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역 실직자와 주민 대상의 강좌도 개설했다. 2004년 한 해 동안 실인원 1,308인이 신나는 문화학교의 교육에 참여하여 문화적 경험을 쌓았다. 높은 호응을 확인한 재단은 2005년 시흥과 부천도 사업지역에 추가하고 문화예술 강사도 75인으로 확대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교실 수도 100개를 넘어섰다. 2005년의 교육수혜자는 1,489인으로 집계되었다. 신나는 문화학교 구성원의 결집도도 높아져서, 사업지원을 받는 강사들이 스스로 교사협회를 구성하고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진행하기도 했다.

- ① 2004. 신나는 문화학교 서공연송년공연 모습
- ② 2004. 신나는 문화학교 우리들 공부방 활동



2005년 일시적 예산문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지만, 문화예술 강사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 의지로 인해 사업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었다. 2006년부터는 재단이 사업비를 전체 부담하는 예산상의 한계로 사업이 다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모집하는 강사와 교실의 수도 각각 48인과 51개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에 대한 열기는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된 신나는 문화학교는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역사업단을 강화했다.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안을 개발하고 구성원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서 차별화된 자체적 교육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들은 지역별로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문화예술인의 공공일자리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고용의 사각지대였던 문화예술 분야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은 지역복지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했다.

2007년 신나는 문화학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첫해에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2010년 인천지부와 경기지부가 별도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기존에 없던 고용시장을 창출해서 고착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다.

연도(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실업률 (%)	2.1	2.0	2.6	7.0	6.3	4.1	3.8	3.1	3.4	3.5
20대 청년 실업률(%)	4.3	4.4	5.3	11.4	10.1	7.0	6.9	6.3	7.4	7.5

출처: 통계청

＊
시니어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전통문화지도사사업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7년 처음으로 60세를 넘어섰고, 다시 21년이 흐른 1988년에 70세를 돌파했다. 이후 경제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빠르게 상승된 반면, 은퇴 시기는 이전과 동일하여 시니어 일자리문제는 더 심화되어갔다. 정부는 다양한 시니어 실업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실업대책은 노년기 진입 예정인 50대 초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4년 재단은 5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3만 명 이상의 노인이 일자리를 찾아 실버취업박람회를 방문하였고 250여 개 구인 업체를 통해 3,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① 2005.10.12. 전통문화지도사 발대식
② 2006.6.20. 전통문화지도사 발대식

재단은 2005년 삼성그룹에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하여, 전통문화지도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한 시니어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통문화지도사로 양성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기관에 파견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였다. 재단은 시니어층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통문화지도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파견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다. 2005년에는 146인, 2006년에는 156인, 2007년에는 142인이 은퇴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2006년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운영지침에 교육복지형 일자리로 전통문화지도사를 채택했다. 이에 맞춰 그해 재단은 수행기관 대상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참여한 시니어의 기량과 자질향상 효과 및 수혜기관 교육 수혜자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전통문화지도사 파견사업은 시니어 대상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여성 대상 일자리문제 해결방안, 사랑나눔간병사업

재단의 교보다솜이사업은 재단의 성공적 사업모델로 평가받으며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다수의 대기업에서 교보다솜이사업모델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재단에 관련한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포스코 기업도 그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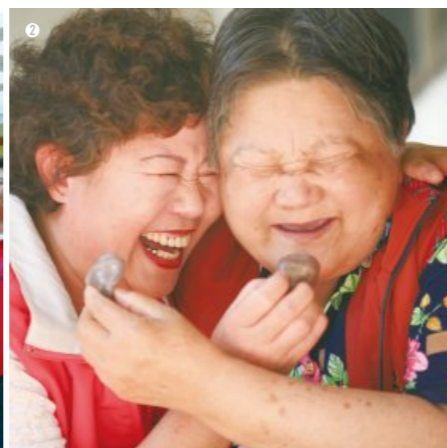
포스코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재단은 컨설팅을 통해 해당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설계하며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먼저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고용의 문제가 있었다. 포항과 광양은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중견도시로 성장했는데, 대부분의 일자리가 남성에 국한된 상황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취약성이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었는데, 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시설과 병원이 압도적으로 부족했다.

재단은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재단은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포항과 광양YWCA를 지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무료 재가간병 사업에 참여할 여성 33인을 대상으로 간병교육을 실시했다. 또,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무료 재가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혜자도 모집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총 176시간의 전문 간병교육과 보수교육이 이루어졌고, 지역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실습훈련도 진행했다. 포항의 간병사업 참여자 19인은 연간 345가구를 방문해서 3,484회의 무료 재가간병 서비스를 제공했고, 광양의 14인 역시 260인을 대상으로 2,616회의 현장경험을 쌓았다. 간병인이 집으로 찾아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기대 이상의 반응이 쏟아졌다.

재단이 간병사업을 확산하고자 한 이유는 2007년에 신설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과도 관련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하위소득 60% 이내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공공 영역에 부담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매우 낮은 비용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업체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의 수익모델이 된다. 재가간병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유용한 사회서비스가 직업으로 연결되기 수월해지는 것이다. 재단의 간병사업은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립할 수 있는 전문간병인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역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었다. 재단은 사업 참여자들이 최대 2년까지 교육과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2006년의 1기 사업 참여자의 80%가 넘는 27인이 이후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1기 사업종료 시점과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 시점이 일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체계화된 교육과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 간병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음에 가능한 성과였다.

- ① 2006.7.3.
포스코 사랑나눔
무료간병사업 발대식
- ② 2006. 포스코 사랑나눔
무료간병사업 포스터



* 시의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사업

외환위기 이후, 아동을 돌보기 힘든 취약계층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아동 돌봄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을 지원했지만 예산이나 운영의 전문성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시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도 2007년까지 전국에 약 1,50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심화하는 아동빈곤문제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업의 실효성은 낙관하기 어려웠다.

재단은 정부와의 논의 끝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우수한 아동복지교사를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2월, 재단은 이 분야의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 YMCA연맹이 재단의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3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는 저소득층 여성과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구직자,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공모를 냈다. 두 달 만에 기초학습과 독서지도 등 10개 분야 2,699인의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대 졸업 이상의 30~40대 고학력자들이었다. 매뉴얼에 따라 기초교육과 특화 분야 개발 등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었고, 권역별로 한 차례씩 보수교육도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했다. 7월에는 사업실적 통합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국에 15개의 지원센터도 구축했다. 중앙지원센터와 14개 권역별 지원센터는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적 개별성을 모두 갖춘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국에 걸친 15개 지원센터 설치 이후 빈곤아동 지원 및 관련 분야 일자리사업을 지속할 전국사업의 인프라를 마련했다는 의의도 지녔다.

첫 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와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양측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은 직무내용과 동료관계 등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만들려는 사업기획 취지에 부합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빈곤 아동보호기관을

- ① 2007. 아동복지교사 지원 활동
- ② 2007.10.12.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교육





• 2007. 아동복지교사 지원 활동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교사 구인의 어려움 해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재정적인 어려움 해소,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의 제공 등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통해 2,699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성과는 인적자원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지역아동센터가 안착 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도입과 운영이 성공하면서 아동복지교사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사업 첫해의 2,699인에 대한

고용창출을 넘어서 직업 자체의 시장을 확장한 것이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는데, 정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최초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교부되었다는 의의도 크다. 2007년, 전국 1,919개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에서 아동보육을 책임지는 2,699인의 모집 및 육성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008년에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권역별 지원 센터를 18개로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재단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컨소시엄의 대표단체를 맡아 사업의 초기설계와 안정화에 기여한 후 컨소시엄 대표단체 역할 순환의 원칙에 따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대표단체를 이관했다.

*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탈북자 자활공동체 지원

2005년에는 다양한 계층별 실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탈북자의 자활공동체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2000년대 이후 탈북자의 입국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착지원금을 제공했는데, 높은 비용에 비해서 정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독 탈북자의 경우 3,590만 원의 정착금이 주어졌는데,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들은 정착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통일부 산하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이 2004년 탈북 입국자 206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응 실태조사에서 59.2%인 123인만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탈북자 78%의 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탈북민의 정착금을 2,0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을 책정하여 이들을 고용시장 안으로 유인하는 식으로 지원체계를 변경했다.

재단 역시 탈북자가 자영업이나 자활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효과적으로 편입해야 실업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5년 탈북자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재단은 탈북자 자활공동체에 시설과 차량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전경련 중소기업 경영자 문단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영역량을 높이고 수익사업을 다각화해서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사업 진행 결과 자활공동체는 연매출 8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탈북자 지원사업은 이후 발생할 북한 이탈주민의 대규모 증가에 대한 해법 모색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 결식아동을 위한 기업과의 협업사례, 행복도시락사업

SK행복도시락사업은 2005년 SK그룹의 사회공헌 컨설팅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당시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은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종교단체를 필두로 많은 시민단체가 결식아동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과 경험의 부족으로 양질의 도시락을 만들진 못하는 상황이었다.

재단은 SK그룹에 HACCP 위생 기준을 맞춘 급식센터를 만들고, 표준화된 식단에 따라 맛있고 영양 높은 도시락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6월에 재단과 SK그룹 관계자는 전문가와 연구자를 대동하고 미국의 사회적기업을 시찰하며 사업화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와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했다. 사명감을 가진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엄격한 위생관리 기준(HACCP)의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영양사 등 전문가와 함께 표준화된 식단에 따라 도시락을 만드는 한편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행복도시락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정부가 힘을 합하기로 했다. 기업은 예산지원을, 지역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는 위탁운영 업무를, 지자체는 급식비 보조와 자활근로자의 수급을, 정부는 정책·제도적 지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재단은 이 모든 자원을 연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다.

2006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총 775인의 취약계층 고용을 창출하여 자

• 2006. SK행복도시락 활동





• 2006.9.1.
행복도시락사업 부천점 개소 및
활동

립기반을 만드는 동시에 결식아동들에게 맛있고 영양 높은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연내 직영점 1개소를 포함해서 총 13개소의 급식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2월 23일, 서울시 중구에 시범도시락센터가 문을 열었다. 조리실, 포장실, 가공실, 사무실, 휴게실을 갖춘 급식센터에는 조리사와 배송 기사 등 21인이 배치되었다. 이 가운데 14인은 차상위계층의 실직자였다. 센터에서 만든 도시락은 매일 점심과 저녁에 구내 결식아동 114인과 독거노인 80인에게 배달되었다. 식단도 도시락을 받을 이들의 연령별, 계층별 특성에 맞춰 구성했다. 재단은 194인의 도시락 제공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시범도시락센터는 SK행복도시락센터 1호점으로 정식 출발했다. 기획한 대로 SK행복도시락센터는 지점별로 약 20인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도시락을 제공받은 취약계층의 반응도 좋았다.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기존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들던 도시락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행복도시락사업은 고용창출과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면서, 4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의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었다. 5월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모델로 대통령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2006년 상반기 1호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관찰한 후 7월에는 추가적인 급식센터의 운영을 맡을 단체를 공모하여 11개소의 지원을 확정했다. 한 해 동안 410인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하루 평균 217인에 대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만 374,100개의 도시락이 전달되었다. 연말까지 행복도시락센터는 14개소로 늘어났다.

재단은 행복도시락사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재료와 설비는 물론 직원의 고용안정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다. 식자재는 반드시 광역단위별로 선정한 업체를 통해 구매했고,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식자재 구매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업무별로 체계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어 고용인원이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했고, 업무상의 안전과 보건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점검했다.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정부는 이후 3년간 예산 일부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2006년 9월, 행복도시락사업을 전담하는 SK행복나눔 재단이 만들어졌다. 1년에 걸친 재단 인큐베이팅의 성과였다. 이후 SK행복나눔재단은 120

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키는 복지재단으로 성장했다(2020년 기준).

2007년부터의 행복도시락사업은 자립기반을 갖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행복도시락센터는 1월의 15호점과 16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29개소로 늘어났다.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유료도시락사업도 개발했다. 2007년 29개 도시락센터는 공공 매출 61억 원 이외에 유료도시락 판매로도 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에서 위탁운영하던 인천남구급식센터와 나눔공동체의 서울관악급식센터는 12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2006년 410인, 2007년 494인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애초의 775인 고용창출 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였다. 재단은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행복도시락사업은 그 결실 가운데 하나였다.

*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자유공모사업

우리나라에선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자유공모사업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원 현장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사회문제와 욕구를 수집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2004년 9월에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출발했다.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에 걸쳐 실업빈곤층을 위한 고용창출과 노동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실직가정 지원사업의 공모를 진행했고, 응모한 사업을 2단계로 심사한 후 16개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2004년 자유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는 주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였다. 사업비 지원규모는 지역 사업일 경우 2,000만 원 이내, 광역사업일 경우 5,000만 원 이내였다. 2004년 12월 재단 단체들과 약정을 체결했고, 자유공모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초의 자유공모사업 수혜기업은 흥문협(흥대앞문화예술인협동조합)이었다. 흥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은 창작물을 판매하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단을 찾기 전, 이들은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상업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창작물의 내용에 관여하려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재단은 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업 예산을 지원했고, 흥문협은 300여 명의 창의적인 작가들과 흥대의 청년문화를 담은 180여 개 시설을 한데 모아 흥대 앞 사이버마을을 구축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흥대 앞 사이버마을의 경험은 이후 프리마켓 형성으로 이어져, 토요일마다 젊은 작가들의 예술품을 판매하고 인디뮤지션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이어졌다.

2005년 재단이 지원한 16개 자유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성가장, 노숙자,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 등 총 340인의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직업훈련을 제공받은 이들도 285인이었다. 자유공모사업은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게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다. 이들의 활동을 통

05 사회적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다

해 연간 약 8,000명의 실업빈곤층에 15,000건 가량의 의료연계, 정부복지연계, 간병, 노동인권교육, 복지체계교육을 제공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공모사업을 통해 재단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저소득층 복지전달 현황, 지역적 사회적 욕구 등을 심도 깊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재단은 자유공모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원과 관리의 체계화를 진행했다. 지원매뉴얼 개발, 회계교육, 행정교육, 현장방문의 정례화, 회계평가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들을 개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한 것이다.

2006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맞춤형 헤드헌팅대회 2% 실천사업도 성공적인 자유공모사업의 하나로 꼽힌다. 7월에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맞춤형 헤드헌팅대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취업박람회였다. 고용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에게 능력과 경력에 맞는 직업군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고용이 창출되도록 했다는 점이 맞춤형 헤드헌팅대회의 특징이었다. 삼성에버랜드와 KT 등 12개 대기업이 박람회장에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응시자들의 면접을 진행한 후 곧장 채용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헤드헌팅 대회는 많은 언론을 타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7년부터는 자유공모사업을 초기설립 지원사업과 사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진행했다. 초기설립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방안의 창의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업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자유공모사업을 통해 2006년에는 590인의 직업훈련과 608인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2007년에는 4,152인의 직업훈련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자유공모사업은 재단의 사업수행업체 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재단은 아이디어나 조직력이 돋보이는 자유공모사업 응모단체와 지속적으로 별도사업을 진행하며, 이들의 역량을 대한민국 고용시장 개발 및 확대에 투입했다. 자유공모사업은 민간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지원했다는 의의를 지녔다. 사회서비스 시장과 저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에 사회적경제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화되었고, 재단은 민간 영역에서 그 연구와 정착을 주도하는 위치에 섰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자립 가능한 기업 연계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이어갔고,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그렇게 재단은 정교하면서도 활발하게 사회적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사업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갔다.

* 고용친화적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사업

재단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간 사회서비스의 품질 격차를 확인했다. 사회적일자리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가운데는 지역 자활단체가 많았는데, 이들을 통해 조사해보니 보다 낮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의 실업, 장애, 질병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급급한 이들에게는 업무 성과를

고려할 정도의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는 사회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재단은 사람이 아니라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지역 복지와 고용을 연결해서 취약계층이 가족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개인의 업무능력과 지역 사회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다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발전으로 이어져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 2007.8.30.~31. 고용친화적 네트워크 전주워크숍 진행



- ① 2006.3.30. 실업극복국민재단 자유공모사업 약정식
- ② 2006.7.13.~14. 장애인 정보화 대제전 & 장애청년 헤드헌팅대회 개최





• 2008.4.24.
고용친화적 네트워크 간담회
진행

2007년 재단은 지역의 사회적일자리사업 수행단체와 다양한 시민 사회운동 단체를 연결하는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07년 한 해 동안 355개의 단체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했고, 112회의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 네트워크사업은 고용창출과 근로 빈곤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업 결과 지역기반의 고용창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고용복지단체연대회의가 창립했고 지역협의체가 발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후 재단은 지역조사를 통한 지역전략 수립, 특정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체계구축, 여성 유휴인력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사업을 진행했다.

2007년에는 사회적기업 지역 허브 구축사업도 진행했다. 이 사업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였다. 재단은 개별사업들이 연결되어 시너지를 일으키고자 했다. 사회적기업 지역허브를 구축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나 제품의 수요공급현황을 조사하고 공동 브랜드화를 진행하여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했다. 또한 표준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해서 사회적기업 구성원의 인적역량도 강화했다. 네트워크는 기업 사이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회적기업 지역허브는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통로로도 작동했다. 재단은 대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부산 등 5개 지역의 사업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7개월에 걸쳐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함께 사회적기업가 교육, 연구조사, 포럼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사업 선정기관**

기관명	사업명	지역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부산(서구)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실업 빈곤 극복을 위한 희망 전북네트워크	전북(전주)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온라인 취업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경기(일산)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지역 고용, 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천(남구)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강북지부	강북 job-matching network 구축	서울 (강북구)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이구주의 심리경제적 자활과 지역고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CRIS	서울 (서대문구)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충북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충북(청주)
경기고용복지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이주민 고용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경기(포천)
춘천노동복지센터	대안적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행동	강원(춘천)

**사회적기업 지역허브
구축사업 선정기관**

기관명	사업명	지역
대전실업극복연대 일어서는 사람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대전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충청북도 재할용 사회적기업 지역허브 구축사업	충북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북지부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활동사업	전북
함께사는 세상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블록만들기 사업	강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사회복지연구소	사회적기업 부산지역 허브구축사업	부산

*** 사회적기업 경제기반 마련, 지역개발금고사업**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은 자본금, 시설비, 기술, 경영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수익확보가 어렵고, 독자적인 법적 구조와 사회적 목적 변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 경영권을 맡기기도 쉽지 않다. 투자에 대한 자본거래 시장(Secondary Market)이 결여되어 있고, 일반 금융시장이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과하기에는 기업 자체의 담보 및 신용능력이 취약했다.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사회적경제 영역 기업은 원활하게 자본을 융통하지 못해서 창업이나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사회적 금융자본을 형성하고 사회적경제 영역 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금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초기에는 사회적기업의 저변이 얕아 자금 신청 기업이 많지 않았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인 2008년부터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재단의 사회적금융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신설인 경우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입하여 사업시작의 원동력으로 삼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과 함께 개발한 사회적기업 성과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기업별 성과측정을 진행하여 금융지원 효과를 확인하고 향상할 방법도 모색했다.

***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육성, 사회적기업 경연대회**

재단은 2006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에 뒤이어 2007년 사회적기업 경연대회를 주최,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은 미래의 사회적기업가로 발굴하려 했다.

사회적기업 경연대회는 1999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대회의 한국 예선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99년 UC버클리의 하스경영대학은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이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문제에 창조적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경연대회를 만들었다. 인텔과 딜로이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서 후원자로 나섰고 대회의 범위는 점차 미국 밖으로도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제화가 진행되던 2006년 첫 대회가 열렸다.

재단은 2007년의 제2회 사회적기업 경연대회에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민간투자사인 ARK투자자문과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서울대학교·KAIST의 5개 경영대학이 재단과 손발을 맞춰 대회를 진행했는데, 사업추진 경험이 많은 재단이 운영업무를 맡았다. 대학생 이외에 일반인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7년 6월, 재단은 사회적기업 경연대회의 개최 공고를 내고 약 1개월간 사회적기업 창업팀 또는 예비 창업팀의 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사업기획안이 모집되는 동안 벤처캐피탈, 컨설팅 전문기업, 기업 사회공헌부서의 전문가 21인으로 멘토단도 구성했다. 최종적으로 19개 팀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7월부터 9월까지 멘토단의 도움을 받아 사업 아이디어를 다듬은 후 10월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다.

사회적기업 경연대회는 다채로운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학생과 비영리단체의 일반인 사회적기업가와 경영을 전공한 예비 사회적기업가, 대학과 벤처캐피탈·컨설팅 전문업체·대기업 사회공헌부서 사이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단계별 멘토링 워크숍을 통해서 대회 참가자의 사업역량을 높여 사회적 사업 설계의 초석을 마련한 점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최종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5개 수상팀 가운데 2개 팀이 민간 비영리기구 소속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장 중심 사회적기업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단은 2008년에도 2년 연속 사회적기업 경연대회를 운영하며 사회적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소셜벤처 경연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되게 되었다.

✱ **사회적기업의 법적 근간 마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재단은 사회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4만 6,000명의 취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취업자 32만 명의 45.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재단의 실업대책 설계에 실효성이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 2006. 올바른 사회적기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진행

실업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었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도 13.1%에 지나지 않아서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이 있었다. 유럽의 경우 그 수치가 20%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더욱 확대되어야 했다.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고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낮추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임금·단기 일자리조차도 이후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생력을 가진 사회서비스의 제공 사업체, 즉 사회적기업으로

의 전환이 시급했다.

재단의 문제 인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일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005년 3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재단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의 연구자, 현장 전문가들로 사회적 고용창출 TF를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입법을 검토했다. 8월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안명옥, 진영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공동체의 현상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정비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12월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OECD 선진국은 무분별한 복지예산의 증액보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추세였다. 영국은 공동체이익회사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확대를 견인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지역사회재투자법'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장애인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 고용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한 부분으로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공론화했다. 2006년 8월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YWCA연합회, 환경정의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사회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토론회를 주최했다. '외국의 사회적기업 법제화의 분석' 발표와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법안 설명'으로 시작된 이 토론회는 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연대은행에서 후원했다.

전 국민적 관심 속에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회적기업과 이들이 활동하는 공공성 높은 사회적경제의 시장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려주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항)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는 동시에 인증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증 권한은 노동부에 설치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부여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충족이 필요했다. 첫째,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영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는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속성을 규정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후자는 사회적기업의 공익성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지원은 조세감면과 재정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받는다. 또한 근로자 1인당 77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사회보험비용도 정부가 대신 부담한다. 이 밖에도 정부 심사를 통해 운영비와 컨설팅비용, 국·공유지 임대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지원은 사회적기업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많은 일반 기업이 사회적기업과 연계 활동을 벌여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넓히는 효과를 기대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은 재단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자, 대한민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단 활동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대한민국 1호 사회적기업, 다솜이재단**

2007년 10월 24일,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가 발표되었다. 1호 인증 사회적기업은 다솜이재단이었다. 2003년 재단이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한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이 다솜이재단이라는 사회적기업으로 재탄생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제1회 인증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재단의 직접지원 또는 재단에서



· 2007.7.5. 다솜이재단 보호자 없는 병원 협약식 진행

구축한 인프라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였다.

그러나 제1회 인증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 당초 7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제1회 인증 사회적기업은 36개 사업체였다. 제도 시행 첫해의 시행착오 때문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노동부는 8월 20일까지 제1회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짧은 시간에 자활공동체와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1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신청

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증을 신청한 대다수의 사업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의 회사 등의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정관이나 규약에도 사회적 목적, 수익 배분 및 채투자구조 등의 필수조건을 기재해야 했다. 일부 사업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진 못했고, 정관이나 규약을 정비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유급 근로자의 고용 조항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어렵게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다가 사업 경험이 부족한 사업체가 많아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는 전문 경영컨설팅기관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사업체가 경영·세무·노무·회계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청 기간을 9월 3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인증 신청 사업체들이 급히 정관과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우여곡절 끝에 10월의 36개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탄생한 것이다. 이 수치는 12월 추가 인증을 받은 19개 기업을 합해 2007년 55개로 증가했다.

***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인(公認), 피터드러커 혁신상(우수상) 수상**

2007년 9월 14일, 재단은 한국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에서 혁신과 창조경영, 평생학습,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고 숭선수범하는 민간, 공공, 사회 분야의 우수기관에 시상하는 피터드러커상을 수상했다. 국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기업 협력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재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성 있는 사회서비스가 기업에 의해 시장 영역에서 제공되도록 하는 변화를 선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용효과도 발생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탄생은 설립 이후 재단이 꾸준히 진행해 온 다양한 사업들의 총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피터드러커상 수상은 재단이 지속해 온 도정(道程)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제조업 중심 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로 일자리 방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향해였다.

SEWFF 2014 SEOUL, KOREA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



사회적경제를 일구는 손길, 세계로 나아가는 발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재단은 사회적기업을 비롯해서 공익성을 실현하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사회서비스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하도록 이끌었고,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인적자원을 개발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시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육성사업도 벌였다. 특히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자금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담임 멘토제를 실시하여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사회적기업이 빈곤문제의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고 환경이나 에너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도록 노력한 것도 이 시기의 특성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과 빈곤이라는 당장의 문제 해결이 시급했지만, 외환위기의 충격이 점차 해소되면서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대한민국의 장기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서비스 산업이 거의 부재했던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경제를 빠르게 전파하는 데 주효한 해법이었다. 하지만 청년 창업가들 가운데는 인증제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이 익에 따라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조직이 자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해졌다.

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 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소셜벤처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재단은 국제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었다.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를 운영하며 아시아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 민간재단으로 자리 잡은 데 이어, 세계 최대의 사회적기업 관련 대회인 SEWF를 2014년 유치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분야 최고 민간재단으로의 위상을 보다 확실히 했다.

0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노력

2005년 이후 사회양극화와 가족 해체, 인구 다원화, 근로빈곤층 증가 등 다변화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재단은 국내 사회적기업 조성의 만행격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 정착을 돕는 역할을 주도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더불어, 재단 역할에 대한 안팎의 관심과 기대는 더 커졌고, 재단은 책임감을 지니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 시작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민간 영역에서 커지는 재단의 역할론

재단의 초기 사업엔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이들이 다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 많았다. 실업과 빈곤의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다 점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어 갔다.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확대에 효과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5년까지의 취업자 32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4만 6,000명이 사회서비스 부문에 고용되었다. 2005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사회적경제를 시장의 한 축으로 키워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환경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에서 민간을 대표하는 재단의 역할은 확대되고,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방향은 변화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인만큼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과 역량이 필요했다. 사회서비스를 처음 도입해서 확대할 때에는 정부 재정의존도가 높았는데, 점차 그 비중을 줄여가야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을 터였다.



사회적기업이 싹트고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

사회적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의 사회적기업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했다.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일반기업에게 사회적기업은 사회공헌사업의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과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이나 회계, 경영 관련 지원이 절실하다. 사회적기업과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지역사업도 강화하려 했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역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재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전부터 추진해온 지역화전략을 심화해야 했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원도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조례 변경을 이끌 정책적 지원 활동도 필요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 다양화도 추진해야 했다. 사회서비스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가장 중요했다. 이는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집중된 분야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사회적기업 창업 주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초기에는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기업 전환이 핵심이었지만 이후에는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태어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것이었다.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에서 육성으로 연결되는 통합지원도 필수적이다.

시장에서는 점점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외의 우수한 사업아이템과 추진 방법을 수입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기에 재단은 국내 사회적기업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요청받을 수밖에 없었다.



함께일하는재단, 더 큰 도약을 알리는 새 이름

외환위기 발생 이후 10년이 흘렀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도입으로 사회적경제의 기본 환경이 조성되었다. 대한민국의 실업환경은 재단 설립 초기와 많이 달라졌고, 재단의 사업 환경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함께 일할 대상이 확대되었다. 정부나 대기업, 시민사회단체와 주로 협업을 진행



• 2008.10.16. 함께일하는재단 현판식

하던 전과 달리 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개인과의 접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협력사업도 확대될 것이 분명했다. 재단은 글로벌사업을 강화할 준비에 나서고 있었다. 그 전초로, 2007년 대학생 동아리와 함께 인도·방글라데시의 사회적기업 탐방 세계희망경제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한 바 있다.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취재한 인도·방글라데시아 탐방은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청년층의 예비 사회적기업가 가운데 일부는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2007년에는 재단소개 브로슈어도 제작했는데, 영문 버전을 국문 버전보다 먼저 발간한 것만 봐도 해외로 시야를 넓히려는 재단의 움직임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재단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라는 긴 이름을 간소화해 인지도 및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명칭 변경과 CI 개발을 추진했다. 2007년 2월, 19차 이사회에서 재단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5월부터 9월까지 기업과 비영리기구의 명칭 변경과 CI 개발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 상담을 진행했다. 내부 심사를 통해 네이밍과 CI개발업체를 선정한 후 조직의 비전을 재정립할 CI를 개발했다. 12회의 간담회와 워크숍에서 다가올 실업환경에 적합한 재단 역할과 비전을 검토하고, 이를 CI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2008년에는 기업·정부·언론·유관단체·관련분야 전문가의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 후 5월에 비전 수립과 재단 역할 점검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몇 개의 최종안을 놓고 선호도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문은 '함께일하는사회'가, 영문은 'Working Together Foundation'의 반응이 가장 좋았다. 이에 따라 함께일하는사회에서 함께일하는재단으로 명칭 후보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직후, 재단은 함께일하는재단이란 명칭이 한글 어법에 맞는지에 대해 한글학회에 의견을 구했다. 한글학회에서는 이 명칭이 통용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7월 29일, '함께일하는재단', 'Work Together Foundation'으로의 재단 명칭 변경이 23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8월 28일에 정관 변경 및 명칭변경에 의한 법인 설

• 2023. 현재 영문CI



함께일하는재단의 CI는 Work의 'W'와 Together의 'T'를 연결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손잡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상징하도록 W와 T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이 연결은 파도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품위 있는 일자리를 함께 고민하는 긍정적인 파장을 의미한다. 재단의 새로운 CI는 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단의 의지를 담고 있다.

립 허가 변경신청이 노동부에서 승인되면서 재단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0월 16일에는 함께일하는재단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변경과 자립전략

재단은 명칭변경과 함께 사업 확대에 대비한 조직변경과 내부 역량 강화도 추진했다. 재단 직원들을 실무진으로 소진하지 않고, 현장 단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교육체계를 정비했다. 2007년까지 재단은 재정총무팀, 홍보팀, 전략개발팀, 사회적기업지원팀, 기획지원팀 5개팀과 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 아동복지교사 중앙센터, 포스코 사랑나눔간병단, 중구 행복도시락급식센터의 4본부 체제를 유지했다.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 구축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핵심사업을 본부 차원에서 관리했는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업별 본부를 해체하고 3부 1연구원 체제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재단은 기획커뮤니케이션부, 사회적기업지원부, 경영지원부의 3부로 조직 구성을 변경해서 유사·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길 시도했다. 그러나 2008년 운영과정에서 업무의 통합 관리에 난점이 발생하여 2009년부터는 기획개발팀, 기획창업팀, 기부파트너즈팀, 커뮤니케이션팀,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지원팀, 사회적기업 경영지원팀, 청년지원팀, 국제협력팀과 정책연구원의 8팀 1연구원 체제로 조직을 다시 세분화했다.

또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진행했다. 기업 기부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모금전략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의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와 개인기부가 활성화하지 않은 국내 여건으로 인해 기부자클럽의 조직화와 모금 활동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진 못했다. 더구나 금리가 인하하면서 기금운영 이자수익이 급감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① 2009. 고용기반조성 유유자적 프로젝트 활동

② 2009.4.16. SBS희망TV 협약식



· 2009.10.23~24. SBS희망TV 모금생방송 진행

재단은 2009년 기부파트너즈팀을 신설해서 이에 대처하고자 했다. 기부파트너즈팀은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벌일 개인기부자 60인 이상을 발굴해서 기부 서클을 편성했다. 2009년 제1호 기부 서클로 '매니아 기빙 서클'이 만들어졌다. 매니아 기빙 서클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이후 밴드 음악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이 은둔형 외톨이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유유자적 프로젝트의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유유자적 프로젝트의 밴드 활동 지원은 2014년 그간의 활동을 담은 책서 <유유자적 피플>의 출판과 함께 종료되었다.

2009년부터는 개인기부자의 발굴과 관리에 방송모금 방식도 도입했다. 2009년 5월부터 SBS희망TV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자를 모집한 재단은 이후 미팅과 소식지 발송, 기부금 영수증 제공 등의 기부자 관리를 진행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3,000명 이상의 기부자가 신규로 발생했다. 기부자 수는 2011년 8,000명을 넘어섰다.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정 기부된 금액은 이후 재단이 해외에 국내 사회적경제 모델을 소개하는 자산으로 활용되었다. 2010년에 신설된 국내 실직 빈곤가정지원사업 'Light a Lamp'와 해외 빈곤가정지원사업인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사업이 SBS희망TV 기부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재단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와 출판

재단은 적극적인 언론홍보 활동에 나섰다. 2009년에는 SBS희망TV의 <대한민국이 댔다>와 KBS의 연중기획 특별생방송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경향신문의 연중기획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의 사회적기업 연중캠페인 <착한 기업, 행복한 사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1년에는 SBS <모닝와이드>에서 재단의 해외지원사업인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사업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재단은 필리핀 봉제센터와 캄보디아 로터스희망미용센터를 설립해서 해외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이 내용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시청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재



① 2008.10.27.
국무총리상 수상
② 2009.10.10.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

단은 SBS희망내일나눔대상인 NGO참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아직 대중적 관심을 받지 못한 사회적기업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다수 개최하였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2008년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사회적기업 한마당에는 108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참여했고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체험, 공연, 청년포럼, 열린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 한마당의 여러 세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사회적기업 시상식도 열렸는데, 우수한 사회적기업과 모범적인 사회적기업가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확산에 기여한 민간단체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재단은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부문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008년 사회적기업 한마당의 일부로 진행된 사회적기업엑스포는 특히 많은 관심을 끌었다. KBS는 사회적기업엑스포의 진행 상황을 특별생방송 <10만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에서 시작합니다>으로 방송했는데, 재단의 이은애 사무국장이 출연해 사회적기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서울시 시니어엑스포에서 열린 2012 정책포럼을 후원하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박람회 안에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출판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매년 재단소식지 <함께일하는사회>를 발간했고, 2008년에는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 보고집 <꿈을 꾸다>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확산효과를 국민에게 알렸다. 2007년 세계희망경제프로젝트의 인도 탐방 내용을 담은 <아름다운 거짓말>(2008)과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의 사례로 구성된 <내 일을 부탁해>(2012)는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다. <착한 가게>와 <착한소비365>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① 2008. 'KBS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방송 장면
② 2012.5.24.
내 일을 부탁해 북콘서트



홍보했으며, <사회적기업 사회경제적가치 측정지침서>(2009)와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성과보고집>(2009), <사회적기업 영역, 어디까지인가(2011)>, <서울시 사회적기업 인증 가이드북>(2011)으로 사회적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2013년에는 함께일하는재단 10년사 <일자리로 만드는 세상, 일>을 출간하며 실업극복국민운동 시절부터 재단 설립 후 10년간의 역사를 정리했다.

2008년에는 재단이 5개의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했다. 재단의 국문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날개달아주기,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노동부 사회적기업의 홈페이지가 그것이다. 영문 홈페이지는 그해 신규 제작한 것으로 이후 해외 교류 증진과 효과적인 국제사업을 강화·추진하겠다는 재단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10년에는 SBS희망TV E-쿠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모금 활성화를 도모했고, 2011년에는 중문과 일문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재단 홍보를 위해서 2012년부터 재단의 재발견사업을 추진했는데, 2호선 홍대입구역 종합안내도에 재단의 위치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내비게이션과 포털 사이트에 재단 정보가 노출되도록 했다.

*
공동연구로 가속화된 정책연구원 활동

2006년 재단 부설기관으로 개설된 정책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2008년 정책연구원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패러다임에 맞춘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연구위원 7인의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목적이었다. 공동연구사업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었다. 최종태 연구원장은 변화의 흐름을 개괄하고 이에 맞춘 경제·경영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이광택·고형면·남원호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과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장홍근·허식·이홍직 연구위원은 노동시장과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내용은 이듬해 정책연구원 총서 제3권 <경제사회 변동과 공동체 패러다임>에

• 2012.9.27.
상생 토론회 진행





• 2010.10.26.
정책연구원 3주년 토론회 개최

로 발간되었다.

정책연구원은 산하기구로 분야별·과제별 연구분과를 조직·운영하여 정책 토론회를 전개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정책연구원 정기회의 8회, 연구위원 공동연구 공동 심의 및 토론회 3회, 발주 연구용역 심의 및 토론회 3회가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0년에는 '녹색성장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결혼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토론회, 포럼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의 네트워킹을 추진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고용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계층별·업종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7건의 연구 성과를 올렸다. 특히 청년실업과 관련한 특화연구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과 함께 진행하여 결과물을 이후 정책 제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2011년에는 '청년층 대안적 사회안전망 모델 개발 연구'와 '한국협동조합 섹터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가능성',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방법 및 조사항목 구성에 관한 연구'를 특화 연구사업으로 진행했다. 또한, OECD 발간보고서를 번역한 <사회적기업 영역, 어디까지인가?>의 기획에도 참여했다. 11월에는 한국빈곤문제연구소·국민대법학연구소·한국사회법학회와 함께 '동아시아 3국의 사회법 및 복지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도 공동 주최했다. 세계협동조합의 해인 2012년에는 '협동사회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법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의 법률자문 의뢰와 연구지원을 강화했다. 재단의 협동조합 관련사업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간담회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다. 2012년의 '상생-대기업,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는 이후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13년에는 전년도 연구 결과를 모아서 정책연구원 총서 제4호 <협동사회와 일자리 창출>을 출간했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 및 복지 개선방안 연구'도 수행하여, 국내 협동조합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설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관련한 정책간담회와 정책토론회도 진행했다. 정책연구원의 연구 활동은 재단의 사업 수행은 물론 정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연구자	연구 과제
최종태	산업사회의 지각변동과 새로운 패러다임
이광택	사회적기업 법적 형태의 진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형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남원호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 인식연구
장흥근	숙련개발 시스템의 변화: 산업구조, 경제산업발전전략, 숙련개발정책을 중심으로
허 식	문화산업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 제조업과 문화산업 간의 비교 중심으로
이홍직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여성 대상 사이버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2년 정책연구원
공동연구 내역

연구자	연구 과제
최종태	새로운 사태, 노동하는 인간
이광택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전망
강희원	19세기 도이치 협동조합운동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21세기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시사점
변철환	한국 협동조합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장흥근	청년층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사업에 대한 검토: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고형면	한국 사회적기업의 협력적 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제갈재상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역할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른 지원사항 우선순위 조사를 중심으로

2008년 정책연구원
발주 연구용역

연구 과제	연구 내용	연구자
노동취약계층 일자리 질에 대한 인식 연구	노동시장 참여 취약계층 여성의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실증 연구하여 규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이홍직(책임) 김수안 백학영
경제 패러다임 변혁 시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특성과 이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한 경제환경에서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김중권(책임) 홍길표 장승권

2009년 정책연구원
발주 연구용역

연구 과제	연구 내용	연구자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	사회적기업의 노동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이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고용위기와 기후변화 시대, 녹색일자리 전환전략: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과정에 예상되는 고용조정 대응책, 고용과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밑그림 제시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
사회적 가치평가도구 개발 착수

2006년, 재단은 사회적기업평가도구 개발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사회적기업평가도구의 개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경제구조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이론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사회적기업 관련법의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척도가

필요해졌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지닌 이해관계자와 사회적기업가에게 제공할 이론적 분석 도구가 필요했다. 재단에서 추진한 사회적기업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많은 기업이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분위기였다. 다양한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도 사회적기업평가도구는 반드시 필요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에 앞서 정책연구원은 시의성 있게 평가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사회적기업평가도구 개발사업은 2006년 11월부터 진행되었다. 사회적기업을 비즈니스 운영모델과 국내외 사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기존의 평가도구를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체계와 측정지표를 구축하는 연구가 잇따랐다.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비영리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기획 이론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가치 창출 프로세스의 정의, 기업유형별 조합별 평가체계 수립, 측정지표 후보군의 데이터베이스화한 모형개발도 이루어졌다.

영국 해외방문 조사를 거친 후 사업계획, 경영 시스템, 외부지원협력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을 포함한 평가도구 최종안이 3월에 완성되었다.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 성과 측정 워크숍도 진행했다. 사회적기업과 재단에 반드시 필요한 평가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현장기업 사례를 개발하고 실무자의 교육과 경영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워크숍이었다.

재단의 사회적기업평가도구 마련으로 학계의 이론적 논의와 현장의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한 사회적기업의 정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가치 창출 프로세스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이 기준은 이후 사회적기업의 확대·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와 예비 사회적기업가가 사업모형을 개발·평가하거나 내부 경영역량을 진단할 때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 SR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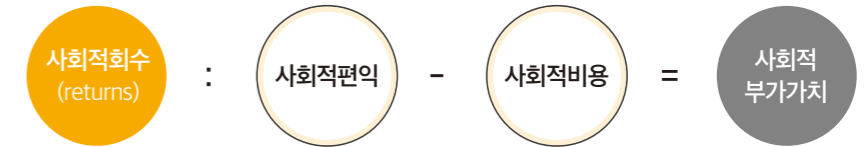
사회적평가도구를 통한 사회적기업 정의 기준 마련과 함께 시혜적 자선 관점에서 기부에 따른 배분의 형평성,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했던 기존 기부 환경과 달리 기부를 통한 사회활동의 실제 성과와 사회적 영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는 시혜적인 소모성 지출 중심의 복지보다 사회 투자 관점에서 실제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대기업에서는 주요 비영리조직과 협업하여 사회적기업을 만들거나 육성하여 직접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시장의 변화를 배경으로 정부, 기업 및 사회투자기관 등 기부 당사자들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모형의 타당성과 함께 수익성, 경제적 생존가능성, 사회적, 환경

적 영향의 크기 등 비즈니스의 예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부금, 지원금 규모와 투자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변화된 기부 환경에 맞춰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타당성을 평가하고 기업 활동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를 KAIST 사회책임경영센터에 의뢰하여 개발하였다. SROI는 투자타당성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비율지표인 사회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의 원리에 기반한 모델로, 투자 또는 기부로 산출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유용해 미국과 유럽의 사회투자 관련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text{사회적 ROI(SROI)} = \text{사회적회수(returns)/투자(investment)}$$



2009년 재단은 SROI를 적용하여 지역금고개발사업의 수혜기업 3개 사업체의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작·발간했다. 이 작업은 SROI의 유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재단은 앞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홍보와 투자유치의 도구로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모델을 활용한 지속가능보고서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SROI 소개 및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리는 출판 작업에 들어갔다. 2009년 12월 발행한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 2011년 2월에는 <사회적기업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매뉴얼>의 출판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에게는 사회경제적 가치와 사업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자 했던 기관에게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2010년 재단은 제19차 열림포럼에서 'SROI를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과 사회 보고서 작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10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도 '국내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 사례'를 발표하며,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활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견인했다.

- ① 2009.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SROI)측정 워크숍
- ② 2011.4.13.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SROI) 토론회



02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예산지원도 전보다 늘어나면서, 재단은 지자체와 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해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과 보다 건실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쓰려 했다. 재단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민간지원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 방향과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

*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립과 재단의 전방위 활약

재단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설계와 추진은 물론 진행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사업의 발주 주체인 정부와 수행기관인 민간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지원사업을 해온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로도 재단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이어나가며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추진했다.

2007년 11월, 재단은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했지만 지원업체가 인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분명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기관에게 인증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게 된 것이다.

재단은 교육과 자문, 경영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사회적기업이 배출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위탁수행기관은 총 3개 단체였는데, 재단은 서울·경인·강원도의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운영을 맡았다. 2008년에는 150개 이상의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상담을 진행해서 총 84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태어나도록 했다. 전문법인과 연계한 서비스도 제공하여, 법무·노무 관련 서비스는 물론이고 전문 경영컨설팅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과 대전에서는 사회적기업 입문교실도 개최해서, 400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



· 2008.1.29.
사회적기업 입문교실

소속 1,200여 명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 사회적기업 입문교실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은 이후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나 지원조례를 준비·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재단은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의 5개 지방노동청과 예비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컨설팅지원사업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의 경영지원 활동도 별개 사업으로 진행했다. 사회적일자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회적일자리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익성과 자립가능성, 경영 상

황을 분석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밖에도 예비 사회적기업 희망업체에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등 재단은 인증부터 컨설팅까지 단계적·통합적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2009년부터 모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인증과 운영지원 업무를 통합·수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위탁사업의 일시적 종료, 재단의 선택과 집중

한편 2008년에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는 2009년 더욱 심화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재정위기는 1997년의 외환위기 당시처럼 국가위기 상황의 실업과 빈곤문제로 확대되진 않았다.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이 충격 완화장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정부는 효과가 검증된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확대했고, 재단의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업무도 폭증했다. 재단은 430개 이상의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700건 가까운 인증 컨설팅을 진행했다. 2009년 4차까지의 인증지원 활동을 통해 인증 사회적기업이 된 사업체는 291개였는데, 이 가운데 재단의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배출된 인증 사회적기업이 절반 가까운 134개였다. 2009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가 6개로 확대되면서 위탁·운영업체도 6개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다시 9개의 지원기관이 추가되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특히 많은 서울의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는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설치되었다. 재단은 서울 서부의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2010년 재단은 내방상담 230건, 교육지원 30회 이상, 99개 기업 경영지원,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24개 기업 지원, 지자체와 업종별 간담회 25회 추진 등의 성과를 올렸고, 23개 인증 사회적기업을 배출했다.

그러나 실업대책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재단이 일부 지역사업에 역량을 집

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내부 의견이 대두했다. 재단은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도입을 기획하였으며,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적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성공모델을 구축한 것 역시 재단의 성과였다. 재단은 세분화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의 일부 운영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원업무를 총괄할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재단은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에 재단은 2011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재개와 변화의 움직임

2012년,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권역의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업무를 재단이 맡아주길 원하는 외부 요청이 이어졌다. 재단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만형같은 존재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2010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증 사회적기업보다 낮은 단계의 요건을 갖춘 예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서 고용창출과 지역활성화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전국의 시도 단위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정비하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추진했다. 서울시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을 민간 협동으로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태세에 나선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도 1조 원 규모의 공공구매시장과 1,000억 원의 자본시장을 조성하여 지원 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통합적 사회적경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재단 의견과 일치했다.

재단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집행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통합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협의한 후 서울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업무를 맡기로 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설립부터 자립까지의 단계별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업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했다. 기업별 전담 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지원 강화, 지역·업종·대상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모델 개발, 기업·지자체·프로보노 등 지역별 자원연계의 활성화, 교육지원의 다각화와 특화, 서울시 사회적기업 진단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역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사회적기업 홍보 강화와 구매환경 조성 등이 그것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체제 정비와 네트워크 모색

2012년의 간담회와 토론회 진행 내역만으로도 재단이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주체들과 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재단은 먼저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직원의 업무를 전문화하는 동시에 다른 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인큐베이팅 솔루션도 개발했다. 창업부터 성장기, 성숙기까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담당 팀이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통합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고용노동부, 관련 지자체, 서울고용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심사지원, 지정 후 교육 등, 정책 제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제언 등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예산이 중복되어 낭비되지 않는 협력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단체 등의 사회적기업도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협력과 협동의 문화를 생성하도록 하고, 업종·부문·지역의 현안과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구매시장 활성화, 사회투자기금 형성,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사회적기업 5개년 육성계획, 마을공동체기업, 지역활성화사업, 자원연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고 현장과 제도의 효율적인 연결을 시도한 결과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공모를 통해 성북구, 금천구,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재단은 금천구의 사업 주체로 참여하기도 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서울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의 중요한 운영성과 가운데 하나였다. 행정기관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예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인큐베이팅, 경영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2012.5.8. 재단·시대문구청 협약식

월일	주요 논의 사항	월일	주요 논의 사항
03.27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08.23	· 2012 대선정책 및 2013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
03.28	·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2012 정책 설명회	08.27	· 마포구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논의
05.29	·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 소개	08.31	· 재정지원사업 집행 실적 제고방안 간담회 (고용노동부)
06.04	· 성동지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구성을 위한 소모임	08.23	· 2013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06.12	·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과의 사회적 기업 정책 연계 논의	09.05	· 2013 서울시 사회적기업 열린 정책 간담회
06.20	· ASES 관련 협의	09.07	· 제1기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성공 및 실패사례 강의)
06.21-06.22	· 은평(예비)사회적기업 워크숍	09.10	· 강남구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모임
06.27	· 사회적기업 현황논의	09.10	· 지역특화사업을 매개로 네트워크구성 활성화
07.11	·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간담회	09.12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간담회
07.18	· 2012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자 대면식 · 사회적기업과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09.12	·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제안 논의
07.19	· 사회적기업 설립 확대방안 논의	09.14-09.15	· 사회적기업 경영 이슈 논의
07.24-07.25	· E-zero waste 녹색미래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재활용업체 4개 기업)의 공동 영업 및 공동 정책 제언 관련사업 및 역할 논의	09.18	· 도봉구 지역특화사업단 간담회
07.26	· 2012년 국회 신임사무관 사회적기업 현장 간담회	09.20	·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간담회
08.13	· 청년벤처사업 소개를 통해 사업 연계 모색	11.09	· 제5기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교육(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성공 및 실패사례 강의)
08.17	· ASES 평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21	· 2012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자 대면식 · 사회적기업과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토론회 주제	참석 단체
일자리 창출사업 및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 간담회	서울시 사회적기업과, 25개 지자체
회계 및 노무 전문가 사회적기업 간담회	기초컨설팅 참여 회계사 및 노무사
2012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 공동포럼	내국인 400인, 외국인 80인
사회적기업 현황 및 통합지원기관 업무 관련 정책 제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현황 및 통합지원기관 업무 관련 정책 제언	서울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경영 이슈 논의	17개 사회적기업 실무자
대기업, 사회적기업을 어떻게지원할것인가	연구자, 대기업 복지재단,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주요권역지원기관 간담회	주요권역지원기관

03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모델 형성 및 시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할 기반도 취약했다. 사회적경제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였다. 이에 재단은 사회적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힘을 기울였다.

*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대부사업

사회적기업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금·경영역량·인적자원·환경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갔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인만큼 창업과 육성 등 발전단계별로 자본의 투입이 필요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발전 단계에 적합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2003년부터 지역개발금 고 대부사업을 진행하며 2007년까지 22개 사업체에 20억 2,8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 발효 이후 늘어날 사회적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자금 규모는 전과 다를 것이었다. 이에 재단은 지역개발금 고 대부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재단의 대부사업 확대는 2008년부터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복지사업자 약정을 맺고 진행한 사업이 하나이고,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 수행기관으로 진행한 사업이 하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은행권은 휴면계좌를 통해 4,800억 원 이상, 보험사는 6,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고객의 휴면계좌를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공익 추구



• 2010.4.13.
한국은행 대부심사 진행

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7년 4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고, 2008년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은 휴면예금을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에 활용하여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재단은 2008년 지역개발금고사업을 통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자금을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의 주무부처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휴면예금관리재단과 함께한 대부사업을 통해서는 10개 기업에 14억 6,000만 원, 노동부사업을 통해서는 12개 기업에 24억 500만 원, 총 22개 기업에 44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다. 2003년부터 5년간 집행한 지역개발금고 대부액이 20억 원을 조금 넘는 점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사업 확대였다.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기업 대부효과는 컸다. 재단은 사회적기업에 사업자금은 물론 재단이 구축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했다. 재단은 현장 기업의 자금 수요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대부금액을 지원하기 전에 긴급대부를 실시하기도 했고,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 회계, 법률자문 등 개별 기업에 맞춘 집중경영컨설팅이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경영능력 증대효과를 내기도 했다.

2개 기업이 집중경영컨설팅을, 16인의 기업 대표자 또는 실무자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경영교육 지원혜택을 받았다. 집중경영컨설팅은 소셜컨설팅 그룹의 프로보노 활동가들을 통해 지원했다. 창업 단계의 사회적기업에는 인증지원도 연계해서 2008년 한 해 동안 6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종합적 지원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09년, 재단은 인증준비기관이 긴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는 재단의 지역개발금고사업으로 전환해서 처리하고, 사업성장이 기대되는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지원 대부금을 집행했다. 재단은 대부기업의 사회보고서 제작을 돕기 위해서 성과측정도 지원했다. 성과측정 과정에서 수혜기업은 정기적으로 기업정보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

2010년에는 한국은행,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사회적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부사업도 진행했다. 한국은행 임직원이 월급 일부를 기부해서 조성한 기금을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무담보·무보증 신용대부하는 것이 해당사업의 골자였다.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2010년 대부사업으로 5개 사업체가 총 1억 2,000만 원의 자금을 수혈해서 창업 또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0년의 대부금 지원액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15억 원, 노동부의 1억 원을 포함해 총 17억 원 규모에 달했다. 2011년에는 21억 7,600만 원, 2012년에는 23억 4,800만 원, 2013년에는 22억 3,000만 원으로 대

부금은 꾸준히 늘어났다. 재단의 지역개발금고 대부사업은 자금을 목마른 사회적기업에 창업과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및 다양한 발굴·지원전략

재단은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및 다양한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그 중 하나는 프로보노 시범사업을 펼친 것이다.

프로보노는 원래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 공익을 위하여)'의 줄임말로,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하지만 점차 의료·교육·경영·전문 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봉사활동을 통칭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사회적기업이 공공성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만큼 사회적기업과 프로보노 정신 사이에는 연관성이 깊다.

우리나라에서 프로보노 활동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이다. 처음에는 법조계 일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진행하다가 2007년경부터는 로펌 차원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일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보노 활동가들의 지원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단 역시 2008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에 프로보노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사회적기업의 역량과 프로보노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8년 대기업 컨설턴트 9인, 회계사 5인, 변호사 4인, 애널리스트 3인, 마케터 3인 등 24인의 전문가가 결성한 소셜컨설팅그룹(SCG: Social Consulting Group)은 프로보노 단체로 두각을 나타냈다. 재단은 이들과 협약을 맺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재단은 대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지원도 이끌어냈다. 2008년 SK그룹과 협약을 맺고 프로보노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연간사업을 진행한 후 프로보노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전문성이 실제 기업 업무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 재단은 SK그룹과 30여 명으로 확대·구성된 SKT 전문 자원봉사

① 2008. SCG 프로보노 협약식 진행
② 2009.3.10.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식





• 2009.9.10.
BAT코리아 협약식

단을 발족하여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후 재단은 프로보노 활동의 범위를 꾸준히 넓혀갔다. 재무·노무·세무·법무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해당 분야 사회적기업에 연결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터치포곳에 캐릭터 디자이너를 연결해준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프로보노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다.

2007년 제정 당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만을 명시했다. 하지만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부터 사회적기업 인증과 육성까지 전 단계를 통합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재단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재단의 사업 기획 의도에 공감한 BAT코리아, 강원랜드, 한전 KPS 등이 금금지원을 실시했다. BAT코리아는 공부의신, 착한여행,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에 신규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구입비를, 강원랜드는 강원도 지역 6개 예비 사회적기업을, 한전KPS는 1개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로 일변되던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의의도 지녔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012년 1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과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에 대한 2년 5개월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협약 종료 후에도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의 유효성은 여전했다. 2011년 12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청년실업의 구조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청년실업률은 7.7%,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2.1%에 이르렀다. 실업에 대한 공포는 졸업생이 아닌 신입생과 예비 대학생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었다. 취업 포털의 예비 대학생 걱정거리 1위가 취업문제(54%)일 정도였다.

이에 재단은 청년층의 자기실현 욕구와 창의, 도전정신을 북돋아 사회적기업가로 도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년층의 사회적기업 창업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업 사회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다. 정부도 재단의 의지에 동참했다.

2012년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에서 28개 청년창업팀의 육성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



• 2009.7.8.
마포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개소식

기에는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출범했고,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도 확대되고 있었지만 이는 양적인 성장만 도울 뿐이었다. 혁신형·기술기반형 아이템이 부족했고,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경영역량 부족에 따른 질적 성장 지체는 사회적기업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재단은 구조화하는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기업 혁신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팀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이슈별 진단을 제공했다. 중간성과 점검, 경영정보 공유회의, 경영컨설팅 적용 결과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창업기업 사이에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기업 간 장점을 공유하도록 했다. 재단은 경영컨설팅의 제공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경영 솔루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체계적인 소셜벤처인큐베이팅 방법론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2012년까지 센터를 통해 35개의 청년 사회적기업이 창업했다. 이 수치는 점차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3년에는 20개의 청년 사회적기업을, 2014년에는 24개의 청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청년 소셜벤처 생태계가 확대되도록 했다. 재단은 2018년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다시 마포사옥으로 이전했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위치에 관계없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셜벤처인큐베이팅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청년소셜벤처 생태계가 조성·확대되도록 기여했다.



• 2015.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활동

* 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

2009년 재단은 고용노동부, 현대홈쇼핑, G마켓의 후원을 유치하여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했다. 당시까지 사회적기업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이나 홈쇼핑 채널에 진출해서 가시적인 매출 성과를 올린 기업은 아름다운가게 등 일부뿐이었다. 다른 사회적기업은 홈쇼핑이나 홈쇼핑 카탈로그에 소개되어도 제품 브랜드가 약하거나 제품 생산량과 기획 및 전략의 약점 때문에 매출 증대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재단은 현대홈쇼핑과 협의하여 더 많은 사회적기업 제품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소개되고, 품질과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원했다. 현대홈쇼핑이 사회적기업의 유통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재단은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이들이 현대홈쇼핑의 Hmall에 입점하도록 지원했다. 현대홈쇼핑은 이들의 판매수수료를 전액 감면했다. 또한 유통마케팅 전문기업인 (주)이로운넷과 제휴하여 입점 서류제출과 품질검사를 비롯한 입점 절차 전반, 업체관리 시스템 사용법, 포장 개선, 광고마케팅 지원, 기사 및 블로그 콘텐츠 마케팅 지원 등 유통 역량 전체를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형성되기 이전이어서 재단은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홍보 카탈로그도 제작했다. 처음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상품도 카탈로그에 포함했으나 2010년부터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상품만으로 카탈로그를 구성했다. 카탈로그에는 카테고리별로 참여기업의 상품정보·생산자와 소비자 인터뷰·착한소비 캠페인 화보 등을 수록했다.

2009년부터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상품의 온라인판로도 확보했다. G마켓과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G마켓 안에 사회적기업 전용 기획전인 '착한소비 365'를 개설한 것이다. 2010년에는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공모사업과 홍보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재단은 2013년 한국수출입은행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구축,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유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희망씨앗 전파

- 2009.7.23.
(예비)사회적기업 G마켓 지원 협약식
- 2013.5.9.
한국수출입은행 SE 희망씨앗 전파사업 약정식



사업을 진행했다. 다문화·공정무역·저소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0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자금 및 프로보노 연결 등을 지원한 것이다.

2014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을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인증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지향 사업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문호를 넓게 개방했다(사회적기업 지향사업체는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함). 납입부금은 월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부금 만기는 3개월·4개월·6개월의 3종으로 설계했다. 공제기금 가입 기업은 무보증 신용대출의 경우 납부 부금총액의 최고 3배까지, 담보대출은 최고 5배까지 가능하게 했다. 순 부금잔액 이내 대출은 연 2%, 초과 대출은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2014년 91개 기업이 공제기금에 가입했고, 7,210만 원의 약정 월부금액이 적립되는 성과가 발생했다. 연내 대출도 5건 발생했다.

공제기금의 설립으로 사회적기업과 종사자의 안정적인 사업·생활이 보장되고, 공제부금 납부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종사자의 자조 문화가 형성되며, 영세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다. 재단은 100호 공제 기업 가입을 끝으로 사업을 타단체로 이관했다.

* 맞춤형 창업육성공간,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개소와 발전

고용노동부는 2011년에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성공모델로 재단의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선정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112억 원을 지원해서 정책사업인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운영을 지속하도록 했다.

재단은 2009년 9월 생명보험사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원을 받아 소셜벤처의 종합지원기관인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개소했다. 재단은 그동안 실업문제 해소와 공익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고, 그 고민의 결과 중 하나가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의 설립이었다.

재단은 소셜벤처의 설립부터 육성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기획했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4종의 모듈과 30개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개별 소셜벤처의 업종·분야·소셜미션·성장 단계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솔루션이다. 센터에 입주한 소셜벤처마다 2인의 전문 인큐베이터를 배치해서, 소셜벤처의 성장단계별 문제 해결을 돕도록 했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셜벤처에 자금이나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기존 방식을 넘어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과 성장, 발전 단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재단은 2009년 9월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설립추진 TF를 구성하고 10월부터 운영 및 지원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재단 사옥 3층을 다기능 오피스로 리모델링했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12월에 개소했고, 공부의신, 시지온, 사이러스, 오방놀이터, 예코팜프, 터치포굿, MEG의 7개 소셜벤처가 1차 입주기업으로 센터에 자리를 폈다. 이듬해에는 이분의일프로젝트와 트리플래닛이 2차로, 딜라이트가 3차로 센터에 입주했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의
모듈과 30개의 프로그램**

	아이템 구체화 단계	비즈니스 실행 단계	비즈니스 성장 단계
모듈1	경영 기초 코칭	실행 코칭	성장 코칭
사회적기업 가역량 강화	CEO 지원 전문가 코칭	혁신 워크숍	사회적기업 이해 및 로드맵 설계
모듈2	소셜미션 명확화 비전 수립 워크숍	비즈니스 모델 워크숍	소셜미션 공유 재무성과 지원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 확립,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 확립	수익모델 비즈니스 캔버스	사업설명회	투자설명회
	운영 모델	팀 구축	성과관리 시스템 경영계획 시스템
모듈3	내부교육 비전 수립 방법론	소셜미션 수립 방법론 성과관리 방법론	경영계획 방법론 독서경영
사업역량 강화	외부교육	소셜벤처 경영실무학교	재단 연계교육
	홍보	온라인 홍보 활성화	
모듈4	인프라 지원 네트워크	재단 연계 네트워크 구축 아이템 성장	회계 및 법무 프로보노 연계 업종 전문가 연계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에서는 재단의 모듈형 프로그램 이외에도 소셜벤처의 자발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 소셜벤처들은 네트워크파티나 입주기업 반상회 등을 통해 분야를 넘나들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시장 현황 정보를 넓혔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에서 지원한 소셜벤처들은 각 분야의 성공모델로 자라나 화제를 모았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와 입주기업에 대한 언론보도가 149건이나 이루어졌다. 수상실적도 화려하다. 2010 아시아소셜벤처경진대회 대상 수상(트리플래닛), 2010 대학생벤처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시지온), 2010 소셜벤처 전국경연대회 청년창업부문 대상(딜라이트)·청년창업부문 최우수상(시지온)·SK혁신상(딜라이트), Work Together 후원공모 노동부장관상(터치포굿) 등이 모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지

원으로 이룬 성과였다.

2010년 하반기까지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총 9개였는데,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 단계에 있던 3개 기업을 제외한 6개 기업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6억 6,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공부의신, 시지온, 커뮤니케이션우디, 트리플래닛은 창업 초창기임에도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공부의신, 터치포굿, 딜라이트는 2010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오방놀이터와 트리플래닛은 2011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2011년 양천구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양천구 해누리타운으로 이전했다. 4기 입주기업으로는 폴랑폴랑과 투표함닷컴의 2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재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 기준 11개 입주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개별 창업팀 매출액은 4,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정부 재정지원을 탈피해서 자생력을 갖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의 산실이 되었다. 2011년까지 입주기업의 고용은 3배 늘어났다.

**2011년 재단 주관 공모사업과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입수기업 연계사례**

사업 명칭	주최/후원	센터 입주기업
신규상품개발 및 상품패키지 개발사업	G마켓	오방놀이터
소셜챌린지 창업돕기 프로젝트	효성	폴랑폴랑
녹색성장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LG	트리플래닛

• 2011.06.29.
양천센터 개소식



04 혁신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협동조합형 인프라 마련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합한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더불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립적인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의 인적, 환경적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했다.

* 사회적경제의 기초 인프라, 회계 전문인력 양성

재단은 2009년 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을 추진했다. 사회적기업이 대한민국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또한, 회계 전문인력 양식으로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었다.

재단은 2009년 7월 신한은행,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신한은행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회계와 재무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했다.

8월과 11월의 1·2차 회계세무아카데미에서 108인이 회계교육을 받았다. 회계세무아카데미가 끝난 이후에도 e-러닝, 중소기업직무능력향상교육 수강 등을 무료로 연계해서 아카데미 수강생의 심화학습을 지원했다. 그리고 수강생을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연결하여 교육을 고용으로 연결했다. 이 사업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147개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회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했다.

• 2009. (예비)사회적기업 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 활동



2010년에는 한 차례의 사회적기업 회계세무아카데미와 회계실무 대체교육, 회계실무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50인이 회계세무아카데미에 참여했고, 각각 16인과 108인이 대체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았다. 2년에 걸쳐 300인 가까운 신규 세무회계 인력이 양성되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회계 전문인력을 내부에 보유하여 기업으로써 기반을 갖추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성과가 도출된 것이다.

* 사회적기업의 산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2006.12.8~9.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 진행

재단은 2006년 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사회적기업의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도모했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전환을 준비 중인 기관의 관리자나 실무자에게 전문교육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정보와 노하우가 많지 않은 초기 사회적기업가에게 가문의 단비 같았다.

2008년, 재단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통합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나누고 교육기관 선별 및 운영원칙을 만들었다. 사회적기업 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련 교육 보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과정 표준교육과정 개발도 진행했다. 교육생과 강사의 편의성, 지역 안의 자원 활용도도 참고했다.

다양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 것도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전략 가운데 하나였다. 재단은 사회적기업가 교육 욕구조사 내용과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기초로 표준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강사용 교재도 개발했다. 표준교육과정 커리큘럼은 크게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개론, 사회적기업의 이익 창출전략을 다룬 마케팅, 운영 노하우를 다룬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 사회적기업 재정관리, 회계 및 세무, 성과평가 및 관리,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전국 19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에서 253인의 강사가 664인의 수강생 앞에서 사회적기업의 내일을 위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 통합과정에는 366인(292인)이, 특화과

① 2008.12.5~6.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비전워크숍 진행

② 2010.11.2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비전워크숍 진행



정에는 225인(225인)이 등록(수료)했다. 전체 수강생 대비 수료율은 약 78%였다.

2008년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강생 분포를 소속별로 살펴보면 비영리기구가 52%로 가장 많고, 일반기업이 15%로 두 번째로 많았다. 사회적기업 10%와 대학 5%, 공공기관 4%가 뒤를 이었다. 많은 비영리기구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추세였으며, 대기업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자 워크숍도 진행했다. 총 39개 지자체가 워크숍에 참여하여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2008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19개 기관 내역

아카데미 명칭	대표기관	컨소시엄 수(개)	교육 수료생(명)	강의 수
2008 사이버아카데미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1	46	31
성공회대학교 아카데미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0	36	32
송실대학교 3기 아카데미	송실대학교 기업&사회연구센터	0	30	33
전남대학교 아카데미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1	40	37
전주대학교 아카데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	2	24	24
대구경북 아카데미	(재)대구기독교청년회 YMCA	2	26	41
부산 아카데미	(사)사회적기업연구원	1	22	33
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 아카데미	(사)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	1	21	37
강원도 광역자활센터 아카데미	강원도 광역자활센터협회	4	26	33
제주산업정보대학 아카데미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2	21	29
HERI 사회적기업가 MBA	한겨레경제연구소	0	28	11
사회적기업과 비영리조직을 위한 KAIST 경영전문가 과정	KASIT 경영대학	0	33	50
장애인분과 아카데미	대안일터큰날개	2	36	19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2	21	8
2008 문화예술분야 아카데미	(주)노리단	2	30	19
제1기 행복나눔 외식경영 아카데미	(재)행복나눔재단	0	20	16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3	29	14
지역살림 아카데미	(주)이장	0	17	18
창업보육 아카데미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엔시스콤	1	11	21
총합계	19개 기관	24	517	506

통합과정

특화과정

2009년 학점 인정 교육과정
개설 연구사업 수행 대학(원)

대학 명	개설 구분	책임연구자 소속
중앙대학교	학위과정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고려대학교	연계 전공	법과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전공과정	경영학부
인제대학교	전공과정	사회복지대학원
명지대학교	학사학위과정/연계과정	청소년지도학과
목표대학교	연계전공/비학위과정	경영대학

*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송실대학교는 2006년에 제1회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의 개설기관으로 참여할 정도로 사회적기업 창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2011년에도 송실대학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창업정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스킬과 청년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송실대학교 창업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송실대학교 창업아카데미의 개설 목적은 실제사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과

성공적인 창업이다. 창업아카데미를 주관하면서 재단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창업역량 향상 방안, 창업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 형성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창업아카데미는 이론만이 아닌 실천형 창업교육의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교육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조 구성과 조별과제를 안내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의 니즈를 파악하여 자

· 2013.5.24.
KT 대학생 봉사단 현장탐방



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카데미 이수 이후에도 교육생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유지되도록 기반을 지원했다. 교육 종료 후 수료생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6% 이상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 재단의 인적역량 강화 노하우를 다시 한번 검증받을 수 있었다.

재단은 2013년 KT 대학생 봉사단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사업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대학생의 봉사활동이 단순 자원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지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생봉사단 3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이 12회에 걸쳐 제공되었다. 최종적으로 25인이 교육을 수료했다. 재단은 이들 가운데 6인을 선발해서 2개월간 사회적기업의 인턴 경험을 쌓도록 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수학생 3인에게 일본의 사회적경제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했다.

* 사회적경제 종사자 복지지원과 교육

재단은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위한 복지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강북삼성병원과 협업하여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2012년 11월부터 지원을 받아 4개 단체 19인을 선정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홍보를, 강북삼성병원은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전문성을 기부 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모델이 되었다.

2012년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를 공유하고 한층 발전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기업 담당자 12인, 서울시 공무원 3인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아시아 사회적기업 탐방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방식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사회적기업 탐방은 공정무역·문화예술·환경(재활용과 재생에너지)·교육·푸드비즈니스·책임여행·디자인&인터넷커뮤니케이션·헬스케어 등 8개 분야의 페어와 전시회를 둘러보고 해당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SK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본부 사회적기업개발팀장, LH 마을형 사회적기업설립지원단 단장,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센터장의 사례 소개로 이루어졌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대한민국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을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특히 유럽에선 많은 협동조합이 영리기업과 경쟁하는 대안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그중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이탈리아 볼로냐의 레가협동조합네트워크는 재단이 주목하고 있는 모델이었다.

유럽을 대표하는 이 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2009년 기준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52만 명, 레가협동조합네트워크는 700만 명에 이르렀다. 2008년 글로벌 재정위기로 스페인 기업의 2.4%가 파산했지만 몬드라곤 소속 협동조합의 파산 비율은 0.8%에 불과했고, 이탈리아의 레가협동조합공동체에는 파산사례가 아예 없었다.

특히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파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을 다른 조합에 배치해서 고용안정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은 컸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유통 부문 핵심기업인 에로스키는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약 2,100개의 매장을 운영했다. 그리고 금융 부문 핵심기업인 노동인민금고는 스페인에 4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은행이며 몬드라곤 기술연구소는 스페인 최고 수준이다.

해외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이 같은 협동조합의 우수한 모델을 접하고 연구하면서, 재단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시급히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중앙회법 등 8개의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재단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는 통합적인 협동조합법 제정을 촉구했고,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2011년 12월 29일,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1차 산업과 몇 개의 업종에 한정되어 있던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주택·복지·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고, 일반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되었다. 서로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도 가능해서 협동과 연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2012.10.24.
협동조합 관련 재단의 역할방안 모색을 위한 역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진행



✧

몬드라곤대학과의 인력 양성 공동 개발

2013년 재단은 몬드라곤대학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과 기초 계획안을 수립했다.

몬드라곤대학은 앞서 재단이 주목했던 협동조합 모델로 소개되었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가 있는 몬드라곤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도시 이름인데, 이곳은 1930년대 후반 격렬한 스페인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경제적 기반이 파괴되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몬드라곤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운동을 1940년대 시작하였고, 1950년대에는 첫번째 협동조합으로 가스난로 제조사가 만들어졌다. 이 회사는 1960년대에 스페인 100대 기업으로 떠오를 정도로 크게 성공했다. 이후 몬드라곤 시에는 금융·제조·유통·지식 분야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은 물론 스페인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이들의 고용전략에 주목했다. 스페인은 2008년 글로벌 재정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인데, 바스크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복합체 덕분에 타격이 가장 적었다. 협동조합 복합체는 파산한 조합의 직원을 재교육한 후 다른 협동조합에 배치하여 실업문제를 최소화했다.

재단은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인력 양성과정을 도입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해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인력 양성기반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2013년 10월, 재단은 몬드라곤대학과 LOI를 체결하고 몬드라곤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몬드라곤대학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의 국내 방문을 추진하여 몬드라곤 교수 시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단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과정 개발 자문회의를 열었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다듬은 'Insight into Mondragon'이라는 표준 커리큘럼과 과정명세서를 개발했다.

✧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2013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한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원칙과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 심사에서 11개 조합을 선정 후, 아이디어 캠프에서 성공가능성을 분석하여 9개의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분야별로 전문가 풀을 발굴해서 연계했다. 7월에는 1차 사업비를 교부하고 컨설팅을 진행해서

조합별로 시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을 실행하도록 했다.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 판매 및 매출발생 상황, 일자리 창출효과를 확인하고 2차 사업비를 교부한 후 추가적인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했다.

이 지원사업은 이듬해인 2014년 3월 종료되었다. 이 사업으로 5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3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 이루어졌다. 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간에 네트워크도 형성되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정부 차원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에 직접지원을 제공했던 것과 달리 협동조합에는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 방식 위주가 되었다. 재단은 재정지원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만들고자 했다. 이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재정을 지원한 최초 사례였다.

2014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더불어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민·관·기업이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사업으로 발전했다. 그해 4월 재단은 사업을 공모하여 9개 협동조합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후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8개 협동조합과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1차 사업비를 교부하고 14회의 컨설팅과 3회의 CEO 특강도 제공했으며 4개 협동조합에는 교육비도 지원했다. 11월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2차 사업비 교부와 추가적인 컨설팅교육을 진행했다. 2015년 3월, 최종보고서 발표와 간담회 진행으로 2014년도 상반기 소규모 협동조합 자립기반 지원사업의 한 사이클을 소화해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12개 조합, 11개 협동조합에서 35개의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조합원 수 10%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민간 차원의 유일한 종합지원사업이었다. 재단은 재정기획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모듈도 개발·확립했다.

서울시 골목시장 협동조합 모델 개발사업도 진행했다.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려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된 전통시장의 해체를 막고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보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2013년 재단은 서울시 중랑구의 동원골목시장의 일반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상인회 대상 간담회와 협동조합 추진 리더모임을 열고, 골목시장 전체 상인과 밥상모임도 진행했다. 장 이용 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이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동원전통시장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했다.

- ① 2013.3.13.
한국전력 에너지 스쿨 개소식
- ② 2014.6.19.~20.
한국전력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사업



05 사회혁신의 핵심, 청년층 지원

청년실업의 구조화가 심화되자, 재단은 청년층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고취시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재단은 일자리를 통한 청년들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층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모색했다.

*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청년벤처 창업 공모전

2008년 재단은 G마켓의 지원을 받아 청년벤처 창업 공모전을 실시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는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었다.

재단은 2008년 5월 유명 대학생 공모전사이트와 다양한 공모전 인터넷 카페에 사업의 취지와 공모 내용을 띄웠다. 이에 51개 팀이 공모전에 참가, 사회적 있는 저마다의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1차 심사에서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활동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들

은 멘토링과 교육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전을 수립했다. 또한, 청년창업의 도전정신을 주제로 한 강연도 제공하여 창업의욕을 제고했다. 성과발표회를 연 후 우수 활동팀 3개 팀에는 노동부장관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재단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창업자금 대부와 연계하고, 교육이나 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2009년 재단은 서울 소재의 3개 팀에게 사옥의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도 개방했다. 재단은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자료집을 발간하여 청년창업

• 2008.8.8.
G마켓 창업 공모 진행



의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는 한편 우수 활동팀이 홍보되도록 했다. 2008년에서 2009년 초까지 이어진 이 사업은 2009년 노동부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G마켓이 사회적기업 온라인홍보관을 개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2010년에 재단은 G마켓과 공동사업으로 청춘문화센터사업도 진행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지도 높은 유명인사의 초청강연을 릴레이로 연 것이다. 패션잡지 디렉터 서은영,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아나운서 김주하, 시골의사 박경철, 교수 서경덕, 사진작가 김중만, 야구선수 양준혁, 방송인 김성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등이 연사로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고, 매 강자마다 300명 이상이 참여하며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성장

재단은 성공적으로 치러진 1,2회 사회적기업 경연대회에 이어 2008년 제3회 사회적기업 경연대회(SVCK: Social Venture Competition Korea)를 공동 개최했다. 3년차에 접어들면서 참여 대학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는 등 대회는 규모부터 달라졌다.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중이거나 창업 예정인 23개 팀이 참가하여 참신하고 사회적 있는 창업 아이템을 놓고 경쟁을 벌인 결과, 연세대학교 벤처창업동아리 연노리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연노리는 아동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영어권 교환학생과 대학생이 저소득층 영어공부방에서 아이들과 한국의 전통놀이를 함께 즐기는 시스템을 내놓았다. 2등은 원격멘토링을 통해서 학습법을 지도하여 지방 저소득층 학생들의 공부를 돕는 공신이 차지했다.

대회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준비팀에 실질적 창업의 기회가 만들어졌고, 특히 공신은 이후 재단의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사업을 통해 시장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사회적기업경연대회는 참가팀과 참가팀, 참가팀과 재단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또한 주최 대학이 늘어나면서 각 대학의 경영대학에서 사회적기

- ① 2009.11.5.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시상식
- ② 2010.12.6.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 2010.12.6.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최종
결선대회

업을 연구하거나 육성할 기반이 확대된 것도 대회의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대회를 주최하면서 소셜벤처 경연대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위탁사업으로 서울과 강원도의 사회적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셜벤처 권역별 경연대회를 추가과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09년 5월에 159개 팀이 참가한 서울·강원권역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청년·대학(원)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열고, 1개월의 심사를 거쳐 총 12개 입상팀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진출자격이 주어졌다. 재단은 7개 권역별 추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7월에 전국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창업과 아이디어의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참가팀은 11월까지 멘토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구체화했다. 11월 심사 결과 17개팀에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들 가운데 7개팀이 재단에서 선발한 서울·강원권 출전팀이었다. 재단은 소셜벤처 심사기준과 평가도구를 제시하여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약 75인의 전문가 멘토 풀을 구성하고 관리하여 아이디어 단계의 대회 참가팀이 실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0년부터는 창업 부문을 청년과 일반 참가자로 구분하여, 청년 일자리의 공익성 있는 대안모델 발굴을 강화했다. 2011년에는 2010년 대회 입상팀에 초기 사업지원금을 지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하도록 독려했다.

2012년 재단은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운영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정부 및 서울시 지자체와 연계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협력·운영했다.

* 청년 주도공간, 희망청의 약진

재단은 구조화하는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청년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희망청을 운영했다.

2008년 재단은 희망청 운영기관을 백수연대에서 노리단으로 변경하고, 희망청에 '20대 당사자 활동'이라는 타이틀의 컨셉을 부여했다. 20대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실업 상황을 문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실제 희망청의 청년들은 한겨레신문 기고, 마포FM 라디오 방송 송출, 블로그 운영, 각종 축제에서 퍼포먼스 진행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여론화했다.

3월에는 일본 청년실업단체를 방문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9월에는 재단과 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

'청년실업과 사회적기업'에 희망청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20대의 의견을 정부 실업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메이데이, 고시촌 익스프레스 등의 캠페인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청년문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강의도 진행했다. 7인의 국내 전문가들의 특강도 매달 개최하여 일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청년문제의 실태를 재조명했다. 희망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대안적 인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코디네이터도 모집해서 운영했다.

희망청의 다양한 협력사업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업무의욕과 파트너십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대 청년단체에게 재단의 사무공간을 개방하여 회의나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사이에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도 희망청의 사업이었다.

청년들이 소비자를 넘어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마포는대학' 사업도 2009년의 성과였다. 마포는대학은 지역 기업과 상인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청년층과 교류하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20여 개의 마포지역 단체 및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청년과 시니어그룹이 연계 활동을 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마포는대학사업은 이후 재단이 다른 지역사업을 확대·전개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밖에도 제3섹터 청년 활동의 경력 형성 연구사업도 희망청에서 진행했다. 취업이나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청년들이 제3섹터나 비영리 영역 활동을 실태조사하고, 직업능력 향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이 연구 활동은 2010년까지 이어졌다.

2010년, 희망청은 마포는대학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마포 지역민 27인이 강사로 참여하여 일의 재미를 알리는 강의를 진행했다. 동네 명물가게 사장님에게 배우는 창업 이야기를 주제로 한 마포창업아카데미도 마포는대학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었다. 희망청은 구로 지역의 유희자원을 재발견하는 구로예술대학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사업은 구로지역의 일상에 예술이 스며드는 효과를 냈다. 또한 일본의 사회적기업가와 여행가 등을 초청해서 다양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꿈지락기획단

재단은 2011년 꿈지락기획단을 모집·운영했다. 꿈지락기획단은 청년예술가를 비롯한 청년층으로 구성되었다. 전시회장을 잡지 못한 예비 작가들은 희망청에서 작업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게릴라전시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벌이며 청년층의 색다른 일에 대한 욕구를 자발적인 실행 방식으로 표출했다.



• 2011. Pomzi Rakgihoedan 활동 모습

참여자들은 프로젝트의 공동 수행과정에서 협업의 가치를 발견하며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Pomzi Rakgihoedan의 활동 결과는 워크북으로 제작되었다. 희망청에서는 청년 스스로 상호부조의 형식으로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실태와 욕구 조사도 진행했다.

등록금 충당과 경력 형성을 바라는 청년들에게 G마켓 대안적 인턴 프로그램도 4개월간 진행되었다. 2013년, Pomzi Rakgihoedan의 워크북 제작과 G마켓 대안적 인턴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재단은 그간의 성과를 혁신직업 탐색 안내서인

<일, 청년을 만나다>로 정리했다. 이를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인 희망청은 2006년부터 지속했던 여정을 마무리했다. 희망청의 사업 일부는 재단의 대국민 캠페인으로 연결되었다.



청년문제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2012년부터 재단은 저소득 가정의 학자금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희망프로젝트로 대국민 캠페인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을 열었다. 캠페인은 청년희망기금, 일꿈실현프로젝트, 청년친화일터 등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청년희망기금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 청년 20인에게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마켓이 후원했다.

일꿈실현프로젝트는 소셜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사업비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4개 팀이 참여해서 1개 팀이 매칭에 성공했다. 청년친화일터는 청년 고용업체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2012년에는 20인의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 경제 멘토링을 받으면서 지출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었다. 이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과 지출은 각각 91.17시간에서 86.82시간으로, 446,470원에서 362,350원으로 줄어들었다.

캠페인의 지원을 받은 대학생들은 삶의 부담감을 덜면서 계획적인 소비습관도 가지게 되어, 늘어난 자기계발 시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캠페인은 등록금 지원을 통해 과잉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개인 기부 모금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법을 제시하는 등 기존의 장학사업과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노력



• 2011.9.28. 상호부조 워크숍 진행

2012년부터 시작한 청년층 대안사회안전망 설립은 희망청의 청년실업 연구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희망청을 운영하면서 재단은 청년층의 사회안전망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청년 일자리는 단기·저임금의 불안정 노동 위주였고,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높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빛도 잘 들지 않는 고시원에서 생활했지만 그 월세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청년들은 한 달 평균 10만 원 이상의 빚을 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없었다.

2011년 재단은 불안정 노동 청년층의 대안적 사회안전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년 유니온과 함께 청년 생활욕구 조사를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취 중이거나 고시원에서 살면서 스스로 방세를 내는 청년, 구직중이거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 40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상호부조 시스템에 대해서 듣는 한편 200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양한 단체를 방문해서 대안적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도 진행했다. 재단은 2013년 1월까지 청년층 대안사회안전망 설립 추진위원을 모집해서 수차례의 모임을 가진 후 청년의 자조협동조합 형태의 청년연대은행을 설립하기로 방향을 확정하고, 청년연대은행 1기 청년재무 및 금융복지 상담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30인에게 제공했다.

2013년 3월부터 청년연대은행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재단은 조직안정화와 역량 강화 등의 인큐베이팅 사업을 연내 꾸준히 진행했다. 청년연대은행의 설립으로 약 500인의 불안정 노동청년들이 상호부조 안전망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 니트족 연구 및 포럼

실업이 구조화하여 고용시장 진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이 발생했다. 이들은 무직자라는 말 대신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취업의사가 있으나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직자와 달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발적으로 유리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2000년대 초반 일본에는 니

06 사람과 환경을 고려한 실업대책과 교육지원의 확장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일자리의 필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첨단 기술 발전 가속화, 환경문제의 대두 등 복잡해진 사회구조는 그만큼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다. 자연스럽게 실업문제에서도 계층별,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졌고, 재단은 다층적인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 고령화시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시작과 확대

2012년 11월, 재단은 유한킴벌리와 시니어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생명표'는 대한민국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당시 80.8세로 이미 OECD 평균보다 남성이 0.5년, 여성이 1.8년 높았다. 45세 기준으로 남성은 34.0년, 여성은 40.2년을 더 살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했다.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재단은 유한킴벌리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시니어비즈니스 성장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그 첫 걸음은 액티브 시니어 생활용품 공모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용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구상 중인 사회적기업과 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시니어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3년, 재단은 전년도 선정기업의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3월부터는 시니어 비즈니스스쿨을 열었다.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13년 참여기업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연간 9개의 지원기업을 선정했다. 재단은 시니어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의 운영위원회를

트족이 8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청년층이 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이탈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 이후 니트족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4년 재단은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발현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니트족의 급증으로 판단하여 한일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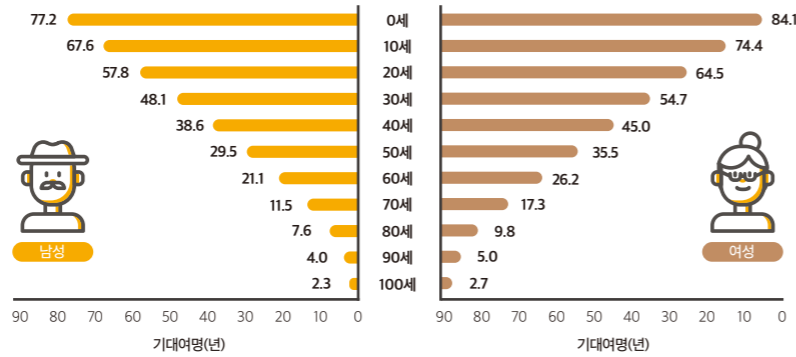
2014년 1월, 재단은 청년무직자 상황을 담은 <일본 청년 니트 백서 - 그 실태와 사회 경제구조 분석 2012~2013>을 발간하기 위해 저작권 및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판 e-Book으로 발간해서 배포했다. 그해 6월에는 백서의 저자를 초청해서 한국어판 발간 기념식을 진행하고, 한국 청년 니트족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다. 한일 공동행사인 '한일청년니트포럼 - 고립의 원인과 자립의 실마리'에서 양국의 청년실업 상황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9월에는 한일청년포럼 '청년무직 페스티벌'을 공동 기획·개최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사회적경제 혁신도시가 사회적경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의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재단은 서울시 GSEF의 '사회적경제에서 청년문제 해결' 워크숍과 한일지원단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청년 니트 사회이탈방지 지원사업은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실태 분석연구서를 발간하여 대한민국에 닥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일본의 소다테 아게넷, 제팬파운데이션, K2인터내셔널과 국내의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센터, 하자센터, 고용정보원, 유자살롱, 희망제작소, 한일청년포럼 등 한일 청년 니트 지원단체 사이에 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도 크다.

- 1 2013.11.7.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진행
- 2 2014.11.19.
한일 청년 니트 지원자 교류 세미나 개최





관련 전문가그룹으로 별도 구성해서 소비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선정 기업의 사업모델을 재설계하고, 컨설팅을 통해 시제품 개발과 테스트과정에 꾸준히 도움을 제공했다. 사업성과와 사업비 집행도 점검하여 경영역량도 강화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9개 지원기업을 포함한 14개 기업이 참여하는 소기업협의회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2013년에는 시니어에게 더 편리한 생활용품과 서비스 아이템 27개가 개발되었다. 시니어 치유동물팀 양성사업, 힐링텃밭사업, 교육콘텐츠 보급 및 비즈니스 멘토링사업 등이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4년까지 32개의 시니어 아이템이 개발되고, 170개의 시니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38인의 시니어가 패블로 사업에 참여했고, 선정기업의 매출은 약 118%가 성장하여 사업효과가 증명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니어에게 적합한 생활용품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성장을 유도해서, 시니어산업생태계의 생성을 시도했다는 그 의미가 컸다. 또한, 유통·마케팅·홍보·프로모션·시장조사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제공한 유한킴벌리와 소기업 사이에 가치사슬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했다.

기업이 당장의 재무적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사슬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 결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재단과 유한킴벌리의 시니어비즈니스 협력사업은 이후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의 창출 등의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확대되었다.

- ① 2012.11.14. 유한킴벌리 시니어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② 2013.1.29. 유한킴벌리 시니어기금사업 협약식



*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술 발전에 따라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으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에게 환경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주요한 사업 모델 중 하나였다.

2008년 3월 재단은 한국토지공사에 경기도 시흥시의 놀이터를 친환경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4월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 노리단과 공동으로 친환경놀이터 리모델링사업을 개시했다. 6월부터 9월까지 공원 리모델링의 디자인안을 만들고 11월까지 주민설명회, 주민리서치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실제 설계에 반영했다.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는 DVD와 도록으로 제작되었다.

사업성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높아 2009년에는 부산 영도구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리모델링했고, 2011년에도 낙후한 취약지역의 임대아파트와 놀이터를 생태아파트와 친환경놀이터로 바꾸면서 공공디자인 영역의 사회적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재단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자 했다. 2012년 3월, 재단은 한화그룹 및 고용노동부와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친환경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순환적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다.

재단은 친환경 사회적기업 20개를 선정하여 KAIST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1:1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벌였다. 상품전 수탁판매와 야외 마켓 참가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도 지원했다. 블로그 운영, 머니투데이 광고 기부 연계, 언론홍보, 온·오프 이벤트 등 친환경 사회적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2013년 2월에는 한화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토크콘서트와 투자설명회를 겸한 행사였다. 지원기업의 총 매출은 2012년 11.7%, 2013년 17.3% 증가했고, 고용 인원 증가율도 각각 10.5%와 15.9% 발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2014년 한화 B&B 골목카페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했다. 한화는 기존에 운영하던 커피프랜차이즈 빈스앤베리즈(B&B)를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 ① 2012.3.28.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비전선포 및 기금전달식
- ② 2014.2.20. 한화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공감토크 진행



기업으로 전환하고 바리스타 및 서비스교육 등의 노하우를 골목상권에 개방하고 사업자금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재단이 골목상권의 지역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맡았다. 재단은 한화 B&B 골목카페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14개 단체를 지원하여 100명이 넘는 인력 고용효과를 창출했다.

* 친환경 가치 창출모델 발굴 및 육성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물품을 단순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가치 창출 방식 가운데 하나다. 업사이클링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9월, 재단은 효성그룹의 후원으로 업사이클링 분야의 혁신모델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공모 결과 러닝투유, 자리, 고마운사람의 3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단은 이들 기업에 회계교육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4년 여름까지의 사업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제품 생산과 성과관리를 지원했다.

러닝투유는 제로웨이스트 공법(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한 옷감 재단 방식)을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셔츠 등의 패션아이템을 제작하고, 자리는 커피포대를 활용한 컵 슬리브와 앞치마를 제작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성과를 냈다. 고마운사람은 폐소방 호수를 가공한 '4% 신발'을 개발하고 페타이어로 판매대를 제작하여 프로모션을 수행했다.

- ① 2012.8.5.
효성과 함께하는 UP-CYCLING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활동
- ② 2012.11.12.
효성그룹 청년 소셜벤처 성장지원 프로그램 협약식



*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

2012년의 한국전력 행복충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에너지 분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신사업 개발이나 시설 투자 등 성장단계별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여 지속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2012년 하반기 지원기업 공모를 시작한 재단은 2013년 1월에 에너지효율 분야 1개 기업,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분야 2개 기업, 에너지스쿨 분야 1개 기업 등 총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에너지스쿨 분야의 예술과 마을네트워크는 한국전력공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에너지캠프·마을공방·농촌에너지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378인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우디는 에너지 절약 내용을 담은 모바일 게임 앱 1개와 캠페인송 뮤직비디오 1편을 제작하였고, 베네픽 컨소시엄은 에너지 절약 홍보용 애니메이션 2편을 제작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 분야 사회적기업의 실태 파악에 근거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시설 조성, 전문인력 보강,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역량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의의를 지녔다.

*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창출

재단은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고민하던 중에 문화재 관리 방식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연결하여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문화재를 수리·보수하기 위해서는 12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관리 방식이 복잡하여, 문화재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쉽지 않았다.

재단은 정부 주도의 단순 관리식 문화유산 정책을 지양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재 관련 일자리를 신설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익성 확대를 모두 고려한 것이었다.

2008년 재단은 9월에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워크숍을, 10월에는 문화재 분야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구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 지역 상황에 대한 연구조사도 병행했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도의 고택 일상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역현황조사와 성주 한개마을을 대상으로 한 민속마을 일상관리 현황조사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

10월, 재단은 '문화재 일상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사업명



• 2009.2.4.
문화재관리 사회적일자리
직무교육

으로 노동부에 사업신청을 했다. 고택 문화재를 관리·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을 신설해서 고택을 일상관리하여 화재나 도난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경미한 훼손은 즉시 수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사업신청은 11월에 승인되었다. 재단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383인과 고택 소유주 100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택소유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사회적기업 운영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했다. 곧이어 문화재일자리사

업단을 구성, 인력을 채용하고 고궁박물관의 중앙사무국 사무실에 입주했다.

2009년 1월에는 사업 수행단체를 모집하고 참여자를 모집했다. 재단·문화재청·고택소유자협의회의 3자가 참여하는 문화재운영협의회도 1월부터 3월까지 월 1회 열었다. 문화재가속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문화재 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328인의 고용이 이루어졌다. 91개 가옥문화재에 대한 경미 보수도 진행되었고, 80개 가옥문화재와 6개 민속마을에 상시 관리 인력을 투입하는 문화재 일상관리 기초체계가 수립되었다. 사업 이후 2012년부터 60개 이상의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다.

*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

2010년 재단은 신한은행과 마포구청의 후원으로 마포구 내 성원초등학교와 한서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1월 공모를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인 청소년아이프랜드와 여성중앙회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방과 후 학교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청소년아이프랜드는 아이핀 창의영상교실을, 여성중앙회는 재미와 놀이로 배우는 리더십과 창의스킬을 개설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리더십 향상을 도모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아 사업은 2011년까지 이어졌다. 2011년에는 학기 사업 이외에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했다. 이 사업으로 마포구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2011년에는 미래에셋의 지정기부금으로 빈곤지역에 공부방 시설을 개·보수하고 도서를 확충하는 지원 활동도 벌였다. 이 사업 역시 방과 후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



• 2012.7.30.
체인지메이커 문화예술로
지역사회 바꾸기 성과공유회

2012년, 재단은 보잉코리아와 함께 빈곤계층 아동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체인지메이커: 문화예술로 지역사회 바꾸기' 사업을 진행했다. 공모를 통해 8개의 소셜벤처가 구축한 4개의 컨소시엄 그룹을 선정하고, 지역별 이슈에 적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했다.

플로스마이너스1도씨와 기억발전소의 컨소시

엄은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등 목2동에 소재한 어린이 17인과 모기동 격세지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동복지에 기여했고, 시네마 포 소사이어티와 감지덕지의 컨소시엄은 양천구 청소년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20인을 대상으로 싹틔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퍼플코인과 시웃 컨소시엄은 재한 몽골학교 4~7학년 어린이 20인에게 공공디자인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과 디자인의 결합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세상을 품는 아이와 기억발전소의 컨소시엄은 은평구 연서중학교 학생 20인과 '불런투어로 지역을 이해하고 사진으로 기억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사업으로 2012년 총 77인의 저소득 아동에게 39회 100시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예비)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문화예술 콘텐츠개발 및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전년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내가 바로 우리 마을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진행했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한 것이다.

소셜벤처 세일링드림과 댄스팩토리, 더 밸류 컨소시엄은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프로젝트를, 웰메이드와 참새의상실 컨소시엄은 청소년 및 주민과 함께 벽화를 그리고 의상을 만드는 마을에 옷을 입히다 프로젝트를, 책농장과 빅워크 그리고 비카인드 컨소시엄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을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City Make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취약계층 분야 지원을 통한 복지의 저변 강화

2010년 재단은 복지예산이 축소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천안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사업을 진행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를



❶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❷ 2014. Light a Lamp 부산
활동 모습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2010년 말부터 2년에 걸쳐 취약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형태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사업 수행기관의 경영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재단은 2013년 사업 방향을 수정했다. 사업 범위를 천안, 평택, 전주, 서울 등으로 넓히고 사업 수행기관도 5개 사업체로 늘리는 한편 사업 방법도 바꿨다.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가운데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직접지원하고, 사업 수행업체에서 추진하는 근로자 고용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소속감이 높아지면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효과도 발생했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혼합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재단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분야가 확대 및 다각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취약계층 복지문제에 대한 재단의 관심을 희석하는 것은 아니었다.

2010년 재단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직업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꿈터사업을 청소년자활지원기관협의회와 함께 진행했다. 꿈터사업은 천안의 리조트에서 이틀간 빈곤가정 청소년들에게 진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미래 명함 만들기, 희망진로 버튼 제작,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진로캠프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싶은 청소년 20인을 선정하여 간호사, 미용사, 바리스타, 요리사, 제과제빵사, 보육교사, 전기기능사 등 7개 분야의 직업훈련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급했다.

2009년부터 재단은 SBS희망TV 모금 캠페인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Light a Lamp'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의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긴급하게 교복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2011년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직업훈련비의 지원으로 사업 내용을 확대했다. 재단은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성장지원의 두 가지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2012년의 에코센터 조성사업은 재활용을 매개로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창의적인 에너지 생성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중부발전이 후원한 이 사업은 마포구의 사회적기업인 문화로놀이장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문화로놀이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페곤테이너를 환경, 문화, 경제를 통합하는 명랑 에너지 발전소로 만들어갔다. 협업 가능한 소룸 1동, 명랑작업장 2동, 재료도서관(재료창고) 2동으로 구축했으며, 재료도서관 안에는 매뉴얼도서관·재료도서관·도구도서관·전시공간·소설디자이너 스튜디오 등이 설치되었다. 대여용 목공도구와 도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리사이클 공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지역 소멸로 위기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한때 광산개발로 특수를 누렸으나 에너지원과 환경정책의 변화로 일순간에 지역경제가 무너졌다. 이에 재단은 2008년 강원도 폐광지역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산림이 90%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이 지역에 우드펠릿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우드펠릿 보일러를 보급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했다. 목재 폐기물이나 찌꺼기를 압축한 우드펠릿은 등유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한 데다 탄소배출량도 경유의 1/12에 불과해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었다. 또한, 이 사업은 당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2008년 1월 폐광지역 지역재생사업을 하이원리조트에 제안하여 11월에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보일러 시범설치를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설치업체 선정을 끝낸 후, 2009년부터 3년간 사업을 추진했다.

재단은 정선·태백·영월·삼척의 지역 자활센터와 강원도 지자체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다자간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정부·지자체·기업·학계·시민사회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힘을 합한 것이었다. 보일러 시공 자격증과 건설장비 면허를 취득한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 참여자 고용도 이루어졌다. 폐광지역 생계비 수급자 12인과 관리인력 2인 등 총 14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2010년에는 4개 지역에 우드펠릿 보일러 124대가 설치되어 지역주민 복지향상 효과도 발생했다.

• 2012.10.9.
한국중부발전 명랑 에너지
발전소 개소식



0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재단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을 모색했다.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염두에 둔 재단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원방안은 자생적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으로 확대되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재단은 2008년 첫 사업으로 지역 안에서 혁신적인 사업 추진전략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대안적 고용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지역활성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재단 안팎의 관계자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 역량이 높으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려 했다.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여 긴급자금으로 사업비가 쓰이면서 연내 사업추진은 잠시 유보되었다. 2009년 지역활성화사업이 재개되었는데, 지역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진 지역 발굴이 여의치 않아 조사연구 위주로 사업은 진행되었다.

2009년 3월, 지역사회 경제개발 연구용역 2건을 진행하고 8월에는 문화예술을 통한 서울시 문래동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연구용역 실시과정에서 토론회 4회, 간담회 6회, 지역사례조사 9건, 정책 제언 1회가 이루어졌다. 조사연구 결과는 이후 재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사업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재단은 지역 단위 다자간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안경제 시스템을 형성하고 사회적기업 종사자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 재단의 기획의도에 부합했다. 재단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를 지원 대상으

로 정하고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했다. 네 차례 진행된 사회적기업 포럼에 27개 단체가 참석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익산지역 사회적기업 협의체가 발족했고, 업종별로 4개의 포럼도 운영되었다. 수행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적기업활동가 양성과정이 만들어져 운영되었으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조례의 제정 준비도 진행되었다. 제도 개선과 정책개발, 사회적기업 인증지원사업 등 다양한 성과가 발생했다.

* 지역 맞춤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재단은 2011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 사업을 위탁·수행했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재단은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236개 예비 사회적기업의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파악함에 따라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재단은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회적기업 인증 매뉴얼도 제작했다.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콘텐츠는 물론이고 그동안 재단이 인증 상담을 통해 축적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인증요건을 제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 매뉴얼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을 제고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용산구의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은 재단이 자치구와 연계하여 진행한 첫 사업이다. 재단은 용산구 8개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지원했다. 컨설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재단은 컨설팅 신청기업의 문제를 파악한 후, 사회적기업 정관표준 샘플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천구의 사회적경제지역 특화사업도 재단에서 진행한 지자체 지역기반 지원사업이다. 2011년 재단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서울의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자활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민간기관과 자치구,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시너지를 일으키자는 게 재단의 입장이었다. 지역단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역량의 총체적 향상을 도모하려 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역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성북구·금천구·은평구·관악구·도봉구의 5개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단은 금천구청,



· 2009.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기관 가이드북 제작

금천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천 사회적경제 민관합동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천구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노후한 주택문제와 영세한 봉제산업 활성화였다. 재단은 금천구 봉제-디자인 협동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를 벌인 후 협동조합 교육, 재무회계교육, 워크숍, 사회적기업가 학교 개최 등을 진행하여 2013년 금천패션지원센터가 개소하도록 했다. 또한 금천구의 봉제공장을 발굴하여 일감 연계를 통해 약 1,5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노후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조사연구사업과 주거환경분야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 재원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사회적경제의 이해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주거환경개선 작업과 컨설팅도 지원했다. 그 결과 금천 마을건축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성과가 만들어졌다.

2012년 재단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개소하여 운영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인큐베이팅센터에서는 매주 2시간씩 입주자 회의를 진행하여 창업팀 사이에 네트워킹이 이루어졌고, 팀별 개별 코칭도 격주로 진행하고 외부교육에 연계하거나 지역활동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도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업팀의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도운 결과 팀 빌딩, 법인화, 수익발생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형 사회적기업의 탄생

2010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밀착화된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했다.

재단은 LH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지원단을 결성하고, 공모를 통해 경기도 시흥시 능곡지구, 충북 청주시의 성화·개신·가경지구, 대구시 동구 율하지구 등 3개 지역 임대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시흥 능곡 자연마을 사람들, 청주 함께 사는 우리, 대구 동구 행복네트워크라는 이름의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개소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역 임대단지의 특성에 맞춰 문화교육, 로컬푸드 유통,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을주민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 마을주민을 고용하면서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 지역공동체가 강화되는 효과도 발생했다. 2010년의 사업으로 4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4,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대구 동구 행복네트워크는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성과도 올렸다.

사업효과가 입증되면서 2011년에는 전국 5개 지역 임대단지를 추가하고 지역별 사회

적기업도 설립했다. 전북 익산 배산지구의 행복나루터, 충주 연수지구의 행복을 꿈꾸는 마을, 경기 화성지구의 꼬마(Commar), 울산 호계지구의 로하스(LoHas), 원주 호계지구의 꿈터가 그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마을공동체에 재투자했고, 아파트 단지 특유의 소외와 단절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효과가 만들어졌다.

2012년에는 다시 전남 여수 문수지구와 경남 양산 드림지구, 파주 교하지구, 노원 중계지구 등 4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해 LH 임대단지 공부방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임대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유휴공간을 공부방으로 바꿔 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복지·문화 향상을 목표로 두었다. 재단은 임대단지 공부방의 운영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각종 워크숍과 교사 모임을 준비했다.

· 2010.11.2.
한국토지주택공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협약 진행



08 국내 사회적경제의 벤치마킹 모델 확산을 위한 해외 진출 본격화

재단의 국제 교류와 협력사업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 발견과 미래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을 위해 한 단계 진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재단은 단순 탐방 형식의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해외사례를 국내에 소개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의 구체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궁극적으로 국제 네트워크의 공고화를 통해 국내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개최, 해외 교류의 확장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인적역량을 제고하고,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과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개소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재단은 해외 우수사례를 국내에 보급하는 동시에 국내 우수사례를 해외에 소개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의 해외연수와 포럼을 지원했다. 2008년에는 43개 기관 55인이 10개국의 53개 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우수사례를 경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장기 기술연수 참여 팀은 습득한 기술과 정보를 사업에 반

• 2010.11.29.~30.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ASES)



2008년 열린포럼 진행 내역

열린포럼 회차	주제	참가자(명)
3차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발전전략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회적자원 네트워크 형성전략	145
4차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 대구 친환경적 신천 가꾸기 사례	79
5차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전략	121
6차	사회적기업 조직갈등 관리 특강	34
7차	해외연수 보고대회	61
8차	한일 사회적기업 교류회	31
9차	청년을 위한 사회적기업 글로벌 특강	66
10차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44

*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①, 글로벌 네트워크의 본격화

그동안 아시아의 사회적기업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는 역사 발전 단계에 맞춰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성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과 자본주의 시장의 사적 영역 사이에 사회적경제 영역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해 뒤늦은 근대화과 압축성장을 진행한 동북아

- ① 2008.10.26.~30.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ASES)
- ② 2012.10.28.~30.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ASES)



시아에선 제3의 영역이 스며들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재단은 아시아의 사회적기업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구축하고, 성공모델을 서로에게 전파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할 제3의 영역, 즉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SES는 이러한 의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중심으로 2008년 만들어진 국제협력체계다. 국제 교류사업을 시작한 후 재단이 적극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는 ASES의 설립 토대가 되었다.

재단은 2008년 4월 아시아의 여러 사회적기업 지원기관들과 접촉하여 ASES 해외 주관기관을 발탁했다. 그리고 주관기관별로 역할을 분장하고 대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각국 사회적기업 관계자의 참여를 조율했다. 한·중·일 이외 지역의 사회적기업 발굴과 참가 요청도 진행했다.

재단은 최종 점검을 마치고 2007년 10월 대회를 개최했다. 10월 28일부터 사흘간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1회 ASES가 열렸다. 아시아 8개국 사회적기업가 1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곧 아시아 최대의 사회적기업 교류의 장이 되며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2008년의 성공에 고무된 재단은 ASES를 격년마다 열기로 결정했다.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②, 내실 있는 운영과 확장된 프로그램

2010년 제2회 ASES는 홍콩·필리핀·인도·네팔·캄보디아·인도네시아·태국·스리랑카·방글라데시·대만·미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15개국에서 참가하며 달라진 재단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했다. 2회 대회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재단과 서울문화재단,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고려대학교 부설 지속발전연구소, SEN(Social Enterprise Network), 희망제작소가 공동 주관했고,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SK그룹이 후원했다.

해외 사업가 60여 명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대회에 참석했다. 60여 명의 해외 사회적기업가를 비롯한 한국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ASES 2010은 강연, 토론, 전시,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정무역, 소셜벤처 육성, 착한여행,

• 2008.10.26.~30.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ASES)



농촌경제 및 지역개발, 녹색기술의 6개 주요 의제별로 분과회의도 진행되었다.

1회 대회가 아시아기업가들의 각국 현황 소개와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회 대회부터는 구체화된 논의와 실질적인 업무 협조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2012년의 3회 대회는 'SELF Asia 2012 with ASES(사회적기업리더스포럼과 함께하는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라는 공식 행사명을 달고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대회 주회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고용노동부, 전북도청이 맡았고, 재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3회 대회의 주제는 아시아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과의 연대, 부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었다. 재단은 상호학습, 심화, 공유와 확산, 연대와 관계망, 청년참여를 행사 목표로 삼고 사업을 기획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청년세대와 함께 나누고 확산하려는 시도였다. 목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페어, 메인포럼, 워크숍, 아시아청년 사전캠프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시아청년 사전캠프에는 아시아 사회적기업 관련 청년 38인이 참가하여 교류와 학습,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졌으며, 페어는 아시아 연대가 필요한 8개 분야를 선정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과 제품의 소개 및 서비스 체험이 가능한 부스를 만들어 진행했다.

워크숍은 사회적기업 워크숍과 소규모그룹 워크숍으로 구성했다. 사회적기업 워크숍에서는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공모설명회와 Asian SE Star, 투어 등을 통해 아시아 사회적기업가들의 사업 확장을 돕고 사회공헌 기업 담당자에게는 새로운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회 ASES는 SEWF 2014에 포함하여 개최되었다.



네트워크 확장의 알찬 성과들

2009년에는 46개 기관의 72명이 7개 팀을 이루어 7개국 53개 기관을 방문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외연수 대상으로는 공정무역, 착한여행, 보조공학, 지역사회예

술가 등 사업 연계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의 관계자를 선정했다. 그중 프랑스 연수팀은 서울 문래동을 문화예술 특화지구로 육성해서 고용창출과 사회적기업을 양성하는 성과를 냈다. 2009년의 해외연수는 KBS 특별생방송에 소개되어 사회적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인지도를 제고했다.

2009년에도 열린포럼은 8회 진행되었다. 사회적기업가와 관련 연구자 등 554인이 참가해서

• 2009.5.20.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진행



열띤 토론을 벌였고, 현장 전문가·학계 연구자·정책 관련자 사이에 네트워크 구축효과가 발생했다. 2009년의 열린포럼에는 해외 사회적기업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다. 그중 하나인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지역경제고용개발) 전문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노·사·정·학의 자원이 연계해서 지역개발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여 큰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아시아 사회적기업가들의 다양한 사례는 국내의 실업 및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에 많은 도움을 줬다.

2010년을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지원과 열린포럼은 종료되었다. 2010년의 대표적인 해외연수 성과로는 노숙인 자립지원 잡지의 라이선스 버전인 <빅이슈 코리아> 창간을 들 수 있다. 그해 열린포럼도 5회 진행되었는데, '사회적기업평가도구 SROI를 통한 사회보고서 사례'를 소개한 19차 열린포럼은 이후 우리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



해외 사회적경제 창구 발굴과 교류 증대

재단은 실업극복국민운동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의 선진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 등을 탐방·조사했고, 재단 설립 이후에는 사회적기업 관련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해서 인적역량 강화를 시도했다.

2008년부터는 해외연수나 기관방문 방식의 탐방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해외 사회적기업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채널을 구축했다. 2008년 3월, 재단은 일본국제 교류기금과 공동으로 일본의 민간 비영리 청년단체의 우리나라 방문을 추진했다. 7인의 청년단체 대표가 재단을 방문하여, 심포지엄과 간담회 및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쓰비시연구소와 소셜비즈니스연구회 연구원도 한국을 방문했는데, 재단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주선했다. 4월에는 캐나다의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강연회를 개최했고, 7월에는 노동부·한국노동연구소와 공동으로 영국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의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 및 진행했다. 8월에는 일본 사회적기업 연구자 22인의 한국 방문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한일 교류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11월에는 일본의 사진가 겸 작가인 와타나베 나나를 재단으로 초청하여 인터뷰와 열린포럼 특강을 진행했다. 와타나베는 1980년부터 미국에서 활동하여 1987년 사진전문지 <아메리칸포토그래퍼>의 포토그래퍼상을 수상한 사진작가로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글과 사진을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싣고 그 내용을 묶어 <체인지메이커>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다.

재단의 적극적인 국제 교류 활동으로 인해 많은 해외 미디어가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보였고, 재단은 국내 사회적기업을 세계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2009년도 다양한 해외 사회적기업 관계자가 재단을 찾아 방문했다. 일본에서는 동경시정조사회

(Tokyo Institute for Municipal Research) 고이시 노리미치 교수, 청년직업훈련기관 가쇼!(-Gasshol)의 히로이시 타쿠지, 아시아연대경제포럼의 우치다 세이코, 문화학습동네네트워크의 아사노 유카, 장애인차별과 싸우는 전국 공동체연합의 사이토 겐조 등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미국에서는 VOA(Volunteers of America: 1896년에 설립된 미국의 자원봉사 비영리조직)의 벤 스트롱이 사회적기업가 프로그램의 한국 파트너십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내한했고, 세계 6위 투자은행인 스위스연방은행(UBS: Union Bank Switzerland)의 아시아태평양 사회공헌 담당자인 구미코 호리는 재단을 찾아 ASES 2010의 후원을 제안했다.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FYSE(Foundation for Young Social Entrepreneurs)의 안드레아 크로우스 대표는 아시아 청년 사회적기업가 100인을 선정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재단에 요청했다. OECD 지역경제고용개발(LEED) 소속 사회적기업 전문가는 재단의 기획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내한했다. 영국 요크대학의 조나단 브래드쇼 교수와는 한국과 영국의 고용안정성을 비교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홍콩입법회의의 위원 10여 명과 유네스코의 BroSis(자매우호도시의 청소년들이 지속가능성을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팀원이 재단을 방문했다.



재단 특화 국제 교류사업의 기반조성

사회적기업 활동 전반에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해외사례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또한 국내 우수사례를 해외에 소개하여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국경 밖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했다.

이에 재단은 2009년 7월부터 번역자원활동가 그룹 브리지를 조직하여 운영했다. 2009년에는 한국인 8인과 외국인 2인이 브리지에 가입하여 사회적기업 전문용어 140개를 정리하고, 해외기관 자료를 색인화 하여 111개의 아카이브로 구성했다.

2010년에는 브리지 자원활동가가 14인으로 확대되었다. 영어 번역 자원활동가 10인과 일본어 번역 자원활동가 4인이 재단과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정기 번역모임을 10회 가지고, 사회적기업 자본 조달 관련 도서 2권을 번역했다.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용어의 확보 데이터와 해외기관 자료 아카이브도 각각 185개와 122개로 늘어났다.

이들은 2010년 제2회 ASES에서도 대회 자료 번역과 통역 활동을 수행하며 재단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들의 번역 도서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금조달 매뉴얼>과 <모험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2011년 브리지 총서로 출간되었다.

재단은 국제 컨퍼런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스킨월드포럼(이베이 창업자 제프 스킨이 설립한 스킨재단에서 2004년부터 개최한 사회적기업월드포럼)과 호주·뉴질랜드의

국제노동법학회, 일본의 창조도시국제회의 등이 2009년에 재단이 참가한 대표적인 국제 컨퍼런스였다.

2010년에도 10개의 해외기관이 재단을 찾아 내한했고, 재단 역시 해외를 8회 방문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재단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국내 정책과 우수사례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경을 넘어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이루어냈다.

특히 2010년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해외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인 uGET을 통해 캄보디아 반티에이 뿌리엵 기관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성과를 냈다. uGET 파일럿 사업은 현장기관의 사업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11년에도 해외기관과의 교류는 지속되었고, 해외 민간기금을 유치하는 성과도 창출했다.

한국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본 도요타재단의 지원사업을 이끌어내고, 지원 공모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재단은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ANIS(Asian NGO Innovation Summit, 아시아비영리기구혁신포럼), ASEF(Asian Solidarity Economy Forum, 아시아연대경제포럼) 등을 비롯한 국제대회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학회에도 참석해서 한국 사회적기업의 대표 지원기관으로 위상을 확인했다.

2012년의 주요 국제 교류사업 성과로는 아시아 소셜인베스트먼트 워크숍, ANIS, 제3회 아시아미래포럼 참가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가입 그리고 SEWF 2014의 한국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 2011.6.25.
uGET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09 국내 사회적경제 모델의 해외 전파,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

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눈을 돌려,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 재단은 해외 지원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면서 우리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알맞게 적용하고 결합하려고 했다. 재단이 주도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인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모델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였다.

*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사업의 착수와 진행과정

• 2011.7.15.
필리핀 캄프봉제센터 현판식 진행



재단은 2011년부터 해외 실직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 사업을 시작했다. 사회적기업과 국제사업에 전문성을 지닌 재단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제3세계로 확장한 것이다. 재원은 SBS희망TV에서 모금된 해외빈곤아동구호기금을 활용했다.

사업 첫 해인 2011년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3개국에 4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성과를 냈다. 캄보디아에는 로터스희망미용센터와 크래프트피스 카페를, 라오스에는 카페쥬쥬, 필리핀에는 캄프봉제센터를 설립했다. 이 사례는 다시 국내 공중파 전파를 타고 전 세계적 사회적경제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금지원을만 아니라 경영과 회계 전문 프로보노와 연계하여 기술과 운영교육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통해 2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55명의 아동이 지속적인 보육과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20명의 청소년에게 기술교육도 제공하여, 이

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빈곤지역을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토대를 제공했다. 268명의 아동에게 급식, 주거, 교육도 지원했다. 재단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를 1기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 실행 첫 해 설립한 4개 사회적기업의 안정화에 집중했다.

2013년에는 2기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4개의 사회적기업을 추가로 설립했다. 캄보디아에는 빈곤가정 대상의 가내수공업 지원기업인 프렌즈인터네셔널을, 필리핀에는 지역주민 참여에 기반한 협동조합형 생명의오아시스센터를, 인도네시아에는 주민참여형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호시조라투어엔트레블을, 베트남에는 트레킹 전문 사회적기업인 시파오차우협동조합을 설립했다.

2016년에는 동티모르·과테말라·카자흐스탄·우간다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3기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동티모르에서는 쿠키를 제작·판매하는 마을기업을 후원했다. 동티모르의 로스팔로스 마을은 전체 인구의 82%가 농축산업에 종사하지만 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절대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재단은 동티모르의 토템 동물인 악어를 모티브로 한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진행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빈곤아동 1,000명에게 영양교육과 식량을 지원했다. 과테말라에서는 문명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고립지역 어머니들의 액세서리 제작을 지원했고 카자흐스탄의 엘다니 파운데이션은 18년간 장애인 복지를 지원해왔다. 우간다의 해결 과제는 식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인성 질병이 만연한 문제였다. 재단은 우간다 스파우츠오브워터를 통해 28,800명의 지역주민에게 정수필터를 제공해서 안전한 업무·교육·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우간다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국내 사회적기업인 제리백이 참여했다. 깨끗한 식수 수급이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수를 나르는 역할은 아동이나 여성의 몫으로 그들은 물을 나르기 위해 산악지대의 비포장도로를 오가며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제리백은 아프리카 지역주민에게 봉제교육을 제공하고, 현지 여성과의 협력 또는 OEM 방식으로 가방을 제작했다. 가방의 디자인에도 아프리카의 현지 정서를 반영했다. 제리백은 가방이 판매되는 개수만큼 현지 아동에게 보급하는 원플러스전략을 구사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2016년, 재단은 3기 사업을 지속하면서 필리핀과 네팔의 3개 기관에 대한 4기 지원을 시작했다. 필리핀에서는 유기농 양계장을 운영하는 캠프아시아를 지원하여 빈민촌의 자생



• 2011.5.6.
로터스희망미용센터 개소식

력 강화를 도모했다. 네팔의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트립티네팔과 지구촌공생회를 지원했다. 트립티네팔은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관련 사회적기업으로,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네팔 저소득 청소년이 해외 취업 대신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커피 원두 로스팅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구촌공생회를 통해서 네팔의 봉제 분야 사회적기업인 굿핸즈 소셜엔터프라이스를 지원했다.

* STP 임팩트 리포트 발간, STP 가치의 재확인과 사업 지속

2017년 재단은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의 사업비 지원 기간이 끝난 지 2년 이상 된 7개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uGET 학생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정리한 <2017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임팩트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리포트는 정성적 성과와 정량적 성과, 실제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수록하면서 재단의 사회적경제 확대에 관한 사업과 지원을 정리해 담고 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사업은 전 세계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글로벌사업인 동시에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세계로 진출하는 창구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는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진 디지털 전환기에 적합한 사업 방향 설정으로도 볼 수 있었다.

재단은 계속 글로벌사업과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2017년 5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사업을 함께 진행한 10개 파트너 기업을 초청했고, 7월에는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포럼도 진행했다.

2017년에는 5기 지원기업을 선정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라는 도서지역 저소득 농부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자바라아카데미 플로렌스식품장인학교를 만들어 잉여농산물 가공 교육을 실시한 결과 실제 가공식품이 유통되는 성과를 냈다.

인도의 불가촉천민으로 알려진 달릿 계층에게 기술 훈련과 생계 활동을 제공하는 HRDF(Human Resource Development Foundation; 인적자원개발재단)도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재봉 기술과 목공·석공 수제 조각품 제작 기술을 교육하고 수공예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미얀마의 아류아용사회개발은 지역 재료로 독자리 등 수공예품을 제작하여 우기에 활동이 어려운 강가 주민들의 소득 형성에 기여했다.

베트남의 떠헤는 빈곤 아동에게 무상으로 미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아동의 그림을 모티브로 생활패션잡화를 디자인하여 생산·판매하고 수익으로 다시 아동의 무상교육과 빈곤 아동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 2009.9.1~4.
SBS희망TV 네팔편 활동



10 세계적인 서울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캄보디아의 고열공동체는 천연염료로 염색한 섬유를 지역주민에게 빌려준 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조제품을 만들어오면 원재료비를 제한 공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창출 기회를 만드는 지역공동체다. 재단 지원을 받은 고열공동체는 완제품 또는 원단 수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 2017년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의 일원이 되는 성과를 올렸다.

2018년에는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6기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여성들의 수공예품 제작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인도네시아의 두안얌, 봉제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가정폭력으로 오갈 데 없는 여성을 위한 임시거처 보호소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의 PSPK(공박지역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개발연맹), 필리핀 다바오 섬과 사마르 섬의 전통 직조제품을 생산하는 코코허스크와 우븐, 탄자니아 모로고로 지역의 양계와 양돈 조직인 CTLC 등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일감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진 필리핀 마리카나 지역의 구두제작 사회적경제조직 리스퀴 디자인, 베트남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정부지원이 전무한 라오스에서 장애인의 수공예품 판매 카페를 운영하는 반푸엔, 케냐 도시빈민 청년에게 커피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커넥트커피, 1994년 인종대학살을 경험하고 회복 중인 르완다 지역의 취약계층 및 미혼모에게 제빵교육과 빈곤 아동 급식을 제공하는 부익, 역시 르완다 현지식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키자미테 이블이 7기 사업 지원을 받았다.

재단은 2019년 12월에 필리핀, 태국, 미얀마의 4개 기관을 8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다.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사업의 신규 지원기관 선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원 대상 온라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과제인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해결을 위해, 세계 사회적기업 간 연대와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재단은 2014년 ‘사회적기업월드포럼(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이하 SEWF) 2014 서울’을 개최,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면서 국내외 사회적기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 교류와 공유의 장

SEWF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효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행사이다. SEWF는 2008년 세계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단체로 이루어진 국제 운영 위원회에 의해 설립됐다. 2008년 첫 SEWF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렸으며, 그 후로 호주 멜버른(2009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2010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2011년)가 바통을 이어가며 매해 개최되었다.

SEWF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기업가, 정부 담당자, 투자자 등이 모여 사회적기업 생태계

• 2014.10.14.~16.
SEWF 2014 본행사



- ① 2012.9.23.~25.
STP 지원기업 On Eagles' Wings Foundation(필리핀) 현장 실사
- ② 2017.11.27.~28.
STP 지원기업 PSPK(말레이시아) 현장 실사



와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소통의 장(場)으로서, 특히 미래 사회적기업가들의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배양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젊은 사회적기업가의 리더십 제안 등 사회적기업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자유롭게 거론되는 곳이다. SEWF 참가자들은 그중 관심을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관심 분야가 비슷한 다른 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당시 재단은 ASES를 통해 구축된 아시아 단위 사회적기업 국제협력력을 세계적 단위로 연결하여 글로벌 연대와 협력 활동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국내 및 아시아 사회적기업가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통한 글로벌사업 기회 및 자원 발굴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는데, 이 같은 과업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SEWF 개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단은 SEWF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기 시작했다.

✧
SEWF 2014 서울 개최 배경과 준비

2014년 SEWF를 서울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재단은 서울 세계포럼의 한국조직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재단은 송월주 이사장을 포럼 개최의 대회장, 이세중 상임이사를 대회 상임고문, 최종태 이사를 대회의 조직과 총체적 운영을 담당하는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고, 10명의 실무 조직위원, 6명의 운영고문, 그리고 10명의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정태길 사무국장을 책임자로 실무지원 TF를 꾸려, 대회 조직위원장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였다.

재단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모델을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래서 SEWF 같은 전 세계적인 사회적기업 행사를 국내에 유치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는게 필요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 정책 반영효과도 늘어날 테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었다.

이제 재단은 국제대회를 진행할 역량도 갖추고 있었다. ASES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한 기획력과 실행 전문성, 기술 및 경험을 갖춘 상황이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자원연계 능력과 비즈니스 플랜 구축능력도 충분했다. 국제사업의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갖춘 재무·마케팅·회계·경영컨설팅 전문 프로보노를 확보했으며,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사업을 통해 해외 현장에서 독자적이고 경쟁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구축하여 글로벌한 시야도 지니고 있었다. 해외 네트워크도 확장한 상태였다. 이미 재단에는 1,000명에 이르는 해외 네트워크는 물론 외국어 통번역과 자원활동가 풀도 갖춘 상황이었다.

재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SEWF 2011에서 서울대회의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2012 브라질 리우 포럼 개최 이전에 주요 조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한국의 2014년 개최 의제를 발의했다. 며칠 후에는 세계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

기업월드포럼 조직위원회 위원단체로 가입했다.

2013년 2월 21일, 캐나다에서 열린 SEWF 2013 캘거리 포럼에서 2014년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이 확정되었다. 또한 함께일하는재단을 SEWF 2014 한국의 주관단체로 채택한다는 결정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사회적기업 분야 세계 최대의 대회인 만큼 재단은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
SEWF 2014의 성공적 개최

사회적기업 세계포럼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렸다. 사회적기업 비전 공유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수반하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은 2014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9개국 1,097명이 참가하여 사회적기업 분야 행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사회적기업가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모여 이론과 실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

사회적기업 관련자들의 교류와 협력의 세계적인 장인 월드포럼의 이번 대회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Social Change through Social Enterprise)'를 주제로 삼아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에 대한 논의를 전체 및 분과별 회의에서 심도 있게 전개했다. 이를 통하여, 세계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갈등 해소, 지속가능한 공동번영 등의 사회적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고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장이 되도록 하였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프리드만(G. Friedeman) 교수와 월드포럼 의장인 홀브룩(P. Holbrook)의 발제에 이어, 세션별 포럼을 가졌다. 제1주제 포럼은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을, 제2주제 포럼은 '사회통합과 사회적기업'을, 그리고 제3주제 포럼은 '사회투자와 사회적기업'을 다루었다. 모든 세션에 세계 각지의 훌륭한 사회적기업가와 전문가분들이 연사로 참

• 2014.10.16.
SEWF 2014 행사




여하고 함께 토론하여 정보 공유와 시사점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주 프로그램 이외에 청년캠프, 사회적기업 페어와 투어, 소셜피치, 써밋컨퍼런스 등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당면 과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메인 프로그램과 별도로, 서브 프로그램으로 '청년사회적기업가 내일의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청년캠프를 1박 2일간 진행했다.

동시에 한국의 사회적기업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임팩트투어, 그리고 사회투자자 생생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셜피치 오픈워크숍도 함께 개최했다. 이 밖에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법과 정책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특별 세션과 사회적기업 박람회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주체 자립도와 발전을 위한 연대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국제적 교류의 강화, 그리고 한국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촉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참여와 토의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향후 발전 방향과 활동계획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책무,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교류와 협력 증진의 다짐 등이 담긴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건,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서울선언 2014
-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 -

사회적기업은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자유와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실현과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빈곤과 질병퇴치 등 기초적인 분야에서부터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기업은 창의 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조직이자 주체로 등장했다. 최근에 와서는 실업 및 사회양극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망적인 대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도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적인 생산경제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의 국제회의인 제7회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이 10월 14일부터 3일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울대회의 주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social change through social Enterprise)로서 사회혁신, 사회통합, 사회투자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세계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일자

리 창출, 사회적 갈등 해소, 지속가능한 공동번영 등의 사회적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사회적기업이 대안적경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의 본질에 충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포럼의 목적인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에 관한 몇 가지 제안과 우리의 다짐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7회 서울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은 대회의 주제인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혁신, 사회통합, 사회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세계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갈등 해소, 지속가능한 공동번영 등의 사회적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대단히 유익한 장이 되었으며, 이에 사회적기업이 긍정적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조, 자생력을 통한 스스로 서기의 자립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방안과 인식 제고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연대의 원리’(The Principle of Solidarity)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의 건전한 발전적 연대조직 구축과 더불어 정부, 공공단체, 그리고 전통적 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비롯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자율성을 통해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투자와 노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발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역할증진에 주목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월드포럼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014. 10. 16.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참가자 일동

*본 선언문과 다짐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됨

3장

2015 - 2023

전환기

2015 2023



일자리 미래의 열쇠를 찾아서

2010년대 중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일의 개념이 빠르게 바뀌어갔다. 온라인 사업군의 부상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되는 반면 전통적인 형태의 일자리는 점점 줄었다. 첨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일자리가 감소하는 흐름은 피할 수 없었다. 재단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민해야 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계층의 실업문제는 급변하는 산업에 따른 일자리 변화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이들을 맞이할 고용시장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고 불확실해 보였다.

이에 재단은, 청년층의 취업기반조성사업과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조기 적응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재단사업의 일반적인 성격에도 변화가 생겼다. 하나의 사업 안에서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취업역량 제고·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의 중층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기획이 늘어났다. 특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단편적인 성과에서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시기 사업의 특성 가운데 하나였다. 재단은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이 연결되어 자생적인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성과가 또 다른 사업을 낳는 식의 연속성이 발생했다. 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과 또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사업과 또 다른 사업이 모듈처럼 연결되어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앞장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디지털 전환기의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였다. 2021년부터 재단은 디지털 전환시대의 가장 신뢰받는 일자리문제 해결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세중 제3대 이사장은 2021년 취임사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성장'을 추진,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환경'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다. 창의기반 사회에 걸맞은 재단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미래를 향한 출사표였다.

01 기술혁명의 시대, 일자리 패러다임의 대변혁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역의 경계를 허물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 변환이 가능해지면서, 산업·기업·기술이 빠른 속도로 연결·융합되었다. 세상이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변화했고, 일자리의 형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 새로운 일자리 해법, 가치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디지털 혁신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더 적은 인력을 투입해서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전통적인 일자리의 고용시장은 가파른 하락곡선을 그렸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으로 출퇴근하던 기존 일자리와 달리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공간의 제약에 매이지 않는 업무 방식이 가능해지면서, 직업과 일에 대한 근본 개념조차 흔들리게 되었다. 첨단 기술산업으로의 접근은 인류에게 커다란 진화이자 혜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을 위축시키고 사회 안전성을 저해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디지털시대의 이면엔,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대해 재단에서 찾은 해법은 '가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산업구조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확산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집중했다.

디지털 전환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바꿔놓았다. 최첨단 기술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미 만들어져서 보급된 기술을 어떤 가치와 접목하여 어떤 분야에 확산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 과거에 정보통신 기술을 다루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 첨단 분야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는 사업의 방식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던 과거에는 사

업가의 자체 역량이 중요했다. 사업가가 지닌 내적 기술능력을 외부로 끌어내는 소위 '인사이드 아웃' 방식의 경영전략이 IT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해결해야 할 외부문제를 찾아낸 후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며 가치의 영역을 증시하는 소위 '아웃사이드 인' 방식의 경영전략이 중요해졌다.

재단 역시, 처음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일자리 혁신의 주체로 설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달리 했다. 재단이 축적한 지원 방식의 노하우를 집약하여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반조성부터 성장지원에 이르기까지의 체계화된 생애주기형 지원을 추진하면서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추동한 것이다. 또한, 국경이나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폭넓게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한 것도 이 시기 재단 활동의 특징이었다.



디지털 시스템의 구축과 확장, 재단 역량의 지속 강화

재단 내부사업에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2014년에는 재단 전자도서관을 개관했고, 2017년에는 재단 이해관계자의 데이터베이스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과거에는 재단 이해관계자 관련 자료가 부서별로 별도 관리되었기 때문에 연관사업의 네트워크나 평가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3개월간 진행된 통합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업 네트워크와 평가의 속도도 빨라졌다. 특히 뉴스레터나 소식지, 연하장,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이 편리해지면서 이해관계자와 더욱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재단은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기존 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16년에는 개인 후원자의 발굴을 위해 '내일에서On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내일에서On편지'의 내일은 미래의 내일(Tomorrow)과 직업으로서의 내일(My Job)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당시 유행한 버킷챌린지 방식을 응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릴레이 후원 프로그램이었다. 2016년에는 재단 CI를 리뉴얼해서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독성을 높였다. 2017년에는 재단의 이해관계자와 후원자를 초청한 기부자 송년의 밤 투게더위드유(Together with U)를 진행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재단의 디지털 관련사업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한전KDN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 해외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업은 이듬해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 2022년 수출상담회는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에는 재단이 구글의 공익재단인 구글닷오알

지(Google.org)와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50개 회원국의 비영리 네트워크인 YBI(Youth Business International)의 한국 파트너로 선정되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가치 확산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창업 아이템에서도 디지털 일자리에 관련된 것들이 늘어나면서 재단은 디지털 일자리 생태계의 구축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며, 사업의 기획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온라인의 활용도는 크게 증가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기업교육 및 심사가 코로나19 시기에는 전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2017.12.15.
기부자 송년의 밤
투게더위드유(Together with U)



02 디지털 전환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활동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문명의 흐름에 발맞춰, 개인과 기업 역시 신속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

재단은 디지털 노마드시대에 걸맞은 다채로운 지원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을 효과적으로 돕고, 전환기 극복에 필요한 개개인의 경쟁력과 지속 가치를 스스로 확보하게 했다.

* IT 기술과의 상생과 조화

201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 관련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재단은 2013년부터 삼성SDS와 함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IT 디바이스와 교육 제공을 시작으로 특성화 고교생 IT 희망키움 지원사업(2016년 시작)과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2018년 시작)을 통해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에게까지 넓혔다. 2021년에는 청년 취·창업준비생 디지털교육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디지털 기술에 의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 2019.7.18.
Hello New() World 해커톤대회



2017년 재단은 카카오의 사회공헌 홈페이지 '같이가치'와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며 개인 모금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개시하며, 사회적경제 영역의 크라우드펀딩 시대를 열기도 했다.

* ICT 인프라 구축 및 교육지원

대중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개선에 ICT 활용의 중요성도 늘어났다. 사회적기업 안에서도 ICT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또한 제품 개발이나 공정개선 등 경영효율화에 ICT를 접목하는 사회적경제조직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ICT 기술은 사회적기업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갔다. 그러나 상당수의 초기 단계 사회적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IT기기와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사양이 떨어지는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면서 업무 효율 저하에 따른 경영문제를 겪고 있었다. 또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시장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재단은 2013년부터 삼성SDS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에 디지털 디바이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IT기기와 디지털 마케팅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에 나섰다.

2015년 재단은 IT기기와 교육이 필요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이들에게 IT기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를 위한 IT활용 방법 등의 공통 교육,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춘 컨설팅을 제공했다. 좀 더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계해서 IT기기와 교육·컨설팅을 복합적으로 지원한 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2016년에는 지원 영역을 사무용 IT기기, 디지털마케팅교육, 전문 IT인프라로 구분해서 지원 효율을 높였다. 삼성SDS와 함께 한 사회적기업 IT 인프라 구축 및 교육지원사업은 즉각적으로 기업의 업무역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소셜벤처 성장지원 프로젝트

2000년대 중후반의 재단은 인증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했다. 이후로도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소셜벤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

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과 달리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유사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에 의한 설립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 더욱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과 같은 창업육성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잠재력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성장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5년, 재단은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현재 상황 점검,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운영 강화, 경영전략 구축의 단계별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셜벤처의 역량을 강화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초기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초기 설립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은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특화된 전문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재단의 후속 성장지원 노력은 참여 기업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기대감도 높아졌다.

2016년부터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한 소셜벤처와 CSR수행기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후원을 원하는 소셜벤처와 후원기업의 신청서를 재단에서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적절하게 후원금이 배분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셜벤처의 미션에 부합하는 후원기관을 매칭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사업은 소셜벤처에 대한 후속지원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금의 투명성도 확보하는 장점이 있었다. 소셜벤처 성장나눔사업을 통해 소셜벤처는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확보하여 소셜미션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CSR 담당자와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대기업 CSR 담당자도 소셜벤처의 미션과 사업내용을 확인하면서 해당 영역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도를 증진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개 기업 및 기관의 후원을 유치했다. 다양한 후원기관 매칭을 통해 2016년에는 10개 소셜벤처가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2017년에는 사업명을 소셜벤처 성장나눔사업, 프로젝트 명을 'Go Together'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14개 후원기업이 사업에 참여했고, 13개 소셜벤처가 21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해서 총 3억 원 가량의 후원금을 배분받았다. 이 수치는 2022년 재단이 약 54억 6,700만 원의 기부금을 유치해서 54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중 54억 400만원은 소셜벤처의 사업비로, 남은 6,300만원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
소셜테크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재단은 서울특별시 민간창업지원기관 협력 연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소셜테크 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

창업자와 창업기업 10개 팀을 선정하여 기업별로 교육과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등록 CI·BI 브랜딩, 마케팅, 사무공간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내용이었다. 사업 후반부에는 네트워킹데이와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외부자원과 연계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상금도 지원했다. 일반 창업의 지원사업은 하나의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반해 소셜테크 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IT 기반의 창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창업기업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동시 지원이 가능했다.

2016년 참여를 지원한 40개 스타트업 가운데 10개 팀을 선정해서 8월부터 재단 사옥 4층 사무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5개 팀이 재단 사옥에 사무실을 꾸렸다. 9월부터 51회의 교육과 49회의 멘토링이 이루어졌다. 팀당 750만 원 상당의 실물지원을 통해 사업 아이템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
마을기업의 성장을 돕는 스마트 경영지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언택트'가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로 자리 잡아갔다. 재단은 언택트시대에 맞춘 사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인 마을기업에 지원을 결정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 의제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업기반이 취약해서, 자금력과 기술력의 총체적 부족으로 언택트 전환에 가장 크게 어려워하고 있었다. 2020년 7월, 재단은 한전KDN과 협력하여 마을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수요 파악을 기반으로 ICT기기·설비 지원, ICT 담당자 양성, 소프트 인프라 구축,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마케팅의 실행 등 총체적인 맞춤형 지원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마을기업의 안정이 지역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재단은 공장 사업 공고를 내고, IT기기·설비와 IT솔루션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기업을 각각 4개씩 선정했다. 12월까지 4개사에 노트북과 재고관리·키오스크 등 서비스 연동형 IT 기기를 지원하고, 4개사에는 홈페이지를 보수하고 보안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소프트웨

어 구매를 제공했다. 홍보마케팅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기업의 사업이 SNS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홍보지원도 벌였다. 업무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5인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고, 1인당 작업효율 역시 작업량을 기준으로 평균 2.6배 향상되었다. 2021년에는 9개사, 2022년에는 11개사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불필요한 인건비와 물품 폐기물도 20%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 2020. 한전KDN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모습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활용,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의미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2017년부터 재단은 스타트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 조달과 신규사업 아이템의 시장 개척 경로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했다. 카카오,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진행한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은 초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통합모델 가운데 하나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에게 미리 사업의 기획과 목적,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사업성을 평가받는 일종의 선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에 담긴 스토리에 자금지원 방식으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이는 가치소비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의 가치 창출사업이 개인 차원의 가치투자자와 만나는 지점이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재단은 2017년 6월,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함께 카카오 사회공헌 홈페이지 '같이가치'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했다. 공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기업이 카카오 같이가치 홈페이지에 모금함 개설을 지원하면, 재단은 모금함의 개설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했다. 같이가치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은 분기별 사회적경제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2018년 7개의 사회적경제 단체가 재단의 심사를 통과해 크라우드펀딩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었다. 1기 펀딩을 통해서도 소아병동과 호스피스병동의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공연, 지적장애인 작가의 작품전시회, 미혼모 대상 부모교육, 청소노동자와 퇴직 소방공무원의 자서전 제작이 가능해졌고, 11월에 진행된 2기 펀딩에서는 보호소 고양이를 위한 기구 제작, 노숙인 양말지원, 폐지 줍는 노인과 함께하는 소풍 등 3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겨울 노숙자지원을 목표로 한 '추운 겨울, 거리의 노숙인에게 따뜻한 양말을 선물합니다' 캠페인은 모금 목표액의 100%를 달성해서 방한양말 2,000켤레와 장갑 1,000켤레를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전달하는 성과를 냈다.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프로젝트의 모금 기준을 마련하여 모금함의 생성 판단에 공정성을 강화했다.

2019년부터는 같이가치 크라우드펀딩 영역을 세분화하고 모금함 개설도 확대했다. 재단을 포함한 4개 비영리 공익기관에서 각자의 전문 분야별로 모금함 개설 여부를 검토·결정했는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바보의 나눔이 재단과 함께 같이가치 크라우드펀딩에 파트너로 참여했다. 재단은 전문성을 살려 사회적경제 분야의 모금함 심사와 사업 진행관리, 결과보고 검토를 맡았다. 개인 기부의 기부금 공제도 재단에서 담당했다. 2019년 26개 사회적경제 단체가 같이가치 모금함을 개설하여 11만 명이상이 참여한 크라우드펀딩을 유치했다. 2020년에는 사회적경제 단체들과 함께 환경의 날 '환경을 위한 착한 소비, 같이박스'와 소방의 날 '나와 소방관을 지키는 착한소비' 등의 캠페



• 2019.7.25.
한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크라우드펀딩
우수기업 시상식

인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서 진행했다. 2020년에는 63건의 프로젝트 모금 연계가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41건의 모금함을, 2022년에는 37건의 모금함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유치된 프로젝트 모금액은 각각 1억 4,912만 2,500원과 3억 4,602만 4,400원이었다. 카카오 크라우드펀

딩을 통해 사회적경제 단체는 소셜미션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고, 시민 모금을 유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재단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또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을 기획했고, 이듬해 2018년 한국전력공사와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협약식으로 이를 구체화시켰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초기 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 20개 기관에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한 후 이들의 상품 및 서비스를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TV홈쇼핑에 공개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은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2020년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활로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예는 소기업 '우시산'에서 찾을 수 있다. 우시산은 고래를 죽이는 플라스틱으로 고래를 살리자는 취지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울산기반의 사회적기업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펀딩을 신청했는데, 펀딩을 목표 대비 1,044% 초과 달성하며 전화위복의 사업 전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의 피해가 특히 극심했는데, 우시산은 고래가방, 고래인형, 고래노트, 고래연필을 보내며 이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로했다. 이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펀딩에 참여하면서 기업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여러 대기업과 협업하여 히트 업사이클링 제품까지 출시하게 되면서 우시산의 성장은 물론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이끌어냈다. 우시산 사례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 2021.4.
울산UP! Avengers
크라우드펀딩 활동



IT기업이 아니어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020년에는 울산항만공사와 '울산UP! Avengers'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성장했지만 문화나 여행 등의 지역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대표산업인 조선업이 부진해지면서 울산, 특히 방어진의 경제 침체가 심각해졌다. 재단은 울산 지역콘텐츠를 개발하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

방어진항마을관리사업협동조합은 2020년의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이다. 방어진항마을관리사업협동조합은 방어진의 우리나라 최초 조선소부터, 아직까지 운영 중인 울산 최초 목욕탕,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은 적산가옥 등의 역사콘텐츠와 방어진·슬도·대왕암의 자연콘텐츠를 연결하여 방어진항 자전거투어라는 여행 상품을 크라우드펀딩에 올렸다. 재단은 참여기업에 크라우드펀딩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중의 펀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방어진항의 조합원이 25명 늘어나는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났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도전, 해외판로 개척

2010년대 후반, 대내외적 경제 불안요소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절대적인 중소기업의 매출 부진을 만회할 새로운 시장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은 해외시장 진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해외로 판로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은 해외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과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했다. 이에 사회적경제 분야의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재단은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자 했다.

2019년의 가치가세 해외판로 개척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었다. 재단과 가치여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효과를 확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후원기업으로 참여했다. 후원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는 연속성 측면에서도 가치가세 해외판로 개척사업은 의미가 컸다. 또한 이 사업은 재단 최초로 실행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사업이기도 했다.

2019년 재단은 12개 지원기업을 모집·선정한 후 2020년에 사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해외 진출 준비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미국과 베트남 등 주력 목표국가의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만들고, 해외 진출 지원금도 지급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면서 재단은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을 통해 해외 진출 준비 기업을 국내에 소개하며 국내 판로 확보도 지원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진출 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원기업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외판로 개척을 추진했다.

재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사회적경제조



- 1 2020.11.12. 한전KDN 해외 온라인물 입점지원사업 집합교육
- 2 2020.11.12. 한전KDN 해외판로 지원사업 교육 진행
- 3 2021.11.29. 한전KDN 온라인 수출상담회

직의 온라인 판로지원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새로운 활로를 열도록 추진한 사업이었다. 5개 기업에게 미국 아마존 소핑몰 입점교육을 제공했다. 5개 기업 모두 성공적으로 아마존에 입점했고, 2개 기업은 4월에 매출도 일으켰다. 7개 기업에는 베트남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제공했다. 기업별로 평균 4.7회의 수출상담회가 열렸고, 상담 후 샘플을 추가로 발송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유효상담도 16건 발생했다. 진행된 수출상담회의 48%에서 유효상담 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입점교육과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재단은 홍보·마케팅 콘텐츠 제작과 물류비도 지원하고, 진행 현황에 대한 국내 홍보도 동시에 벌였다. 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사업역량과 품질 확보, 매출증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전KDN과 손잡고 해외판로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온라인물 입점을 지원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해외펀딩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해외판로 확보를 도왔다.



미래 IT 인재육성을 위한 포석

재단은 장학사업과 같이 복지 측면의 일회성 개인 지원이 아닌 공동의 팀단위를 수개월간 지원하여 사회적 및 디지털 기술 역량을 향상 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도출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주도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팀멘토링과 해커톤대회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리테일 전문기업인 신세계 I&C가 사업을 후원하고, 해당 분야 내 외부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멘토로 활약했다. 두 차례의 회사 견학도 추진하여 IT 진로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도 높였다. 멘토와 멘티 연결을 통해 학생들은 의욕 있게 앱이나 웹 등의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문제에 접근하도록 독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멘토들은 학생의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왔다.

재단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커톤대회를 열었다.



• 2022.9.19.
Hello New() World 해커톤대회

2017년의 해커톤대회에서 학생들은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낙상예방키트와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자동브레이크 제어 시스템, 길거리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이어폰 등을 개발하며 IT 기술로 사회문제에 기여할 각자의 방식을 찾았다. 재단은 2018년부터 해커톤대회에 'Hello () New World'라는 주제를 부여했고 수상 아이디어는 사후 지원을 통하여 아이템으로 구체화한 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되도록 했다.

2018년의 대회 주제는 'IT로 만드는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 학생들은 Blackglass(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구인·구직 플랫폼), Flaw(시각장애인의 상황을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코딩(코딩교육의 불평등 해소), 초이스틱(시각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을 개발했다. 2019년에는 아이템의 시제품을 시연하여 시장성도 테스트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단은 학생들의 사회적 문제인식 상황을 조사했다. 사회문제에 무심했던 학생들이 점차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이나 취업만을 고민하던 학생들에게 창업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옵션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디지털 전환기의 사회문제와 실업문제에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을 혁신가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
화이트해커 양성과 일자리 연계지원

2000년대 이후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교육과 취업의 기회 불평등도 악화되는 추세였다. 2018년 재단은 저소득층 IT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게 네트워크 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수를 지원하여 취업기반을 조성하려 했다. 네트워크 자격증은 IT보안과 인프라에 대한 기술능력을 인정받는 기초 자격증이나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싼 교육비 때문에 저소득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다.

재단은 현대오토에버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학생 35인에게 자격증 취득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2019년부터는 자격증 취득보다 IT 특성화고의 특성을 살려 정보보안 분야 학

생을 화이트해커로 양성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서울·경기 지역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취약계층을 우대하여 선발의 공정성과 사업추진의 합목적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7월부터 10월까지 24회 144시간의 정보보안 교육을 진행했고, 10월에는 현대오토에버의 임직원이 직접 학생들을 멘토링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다. 11월에는 교육 수요자 대상의 화이트해커 경진대회를 열어 그간 학습한 실력을 뽐내도록 하고 우수팀에는 포상도 제공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교육 명칭을 아예 화이트해커 양성교육으로 바꾸어 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하여 교육과 멘토링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던 해였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내며, 기업의 인재 선발에서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재단의 화이트해커 양성교육은 공익성과 시의성을 모두 충족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업에 동참했고, 이후 교육부 차원의 정보보안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재단이 추구한 사회적 가치와 취약계층 실업 기반조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다.

한편 재단은 에너지 분야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도 벌였다. 2011년 재단은 2011 녹색성장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 평화를 지원했는데, 이들이 공익태양광발전소인 나눔발전소를 설치·운영하여 수익을 내게 되었다. 에너지나눔과평화는 순익의 일부를 공익사업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재단은 이를 기금으로 활용하여 2017년에 에너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을 다수 진행했지만 일반 구직자에 대한 재단사업 역시 변함없이 추진되었다. 2018년의 일자리교육 및 연계지원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제 현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업무를 경험해보도록 하고, 일자리교육을 통해 실제 고용과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재단은 12인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100시간의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사업 수행 결과 12인의 지원 대상 가운데 11인이 일자리를 찾는 성과가 만들어졌다.

2018년부터 패션리테일기업과 함께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한 교육 기회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 후 후원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 2019.11.9.
특성화고교 화이트해커
경진대회 진행



03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도약 프로그램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된 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대상에게로 이어졌다.

장기화된 팬데믹에 시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해 창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여성, 취약계층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극복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모색되었고 그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지원의 출발

2022년부터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은 앞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성을 잘 보여 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자 Google.org는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50개 회원국의 비영리 네트워크인 YBI(Youth Business International)를 통해 글로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재단은 YBI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및 소상공인, 특히 창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여성, 취약계층 창업가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포럼·교육·네트워킹의 3개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포럼·교육·네트워킹 등은 재단이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은 기존 운영 방식과 몇 가지 차별점이 있다. 교육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투자유치를 추가하거나 강화해서 지원 대상이 변화하는 시대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도모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사회적기업 등의 유형이나 규모, 사업 분야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조직 전체에 개방했다. 그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시대는 융·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이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유형·규모·사업 분야를 넘나들며 뒤

섞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의 개방성은 참여자들을 모듈화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필요에 따라 빠르게 블록화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거나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포럼을 통해 창업 희망자들이 사회적 가치 추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며, 네트워킹을 통해 이들 기업이 모듈처럼 연결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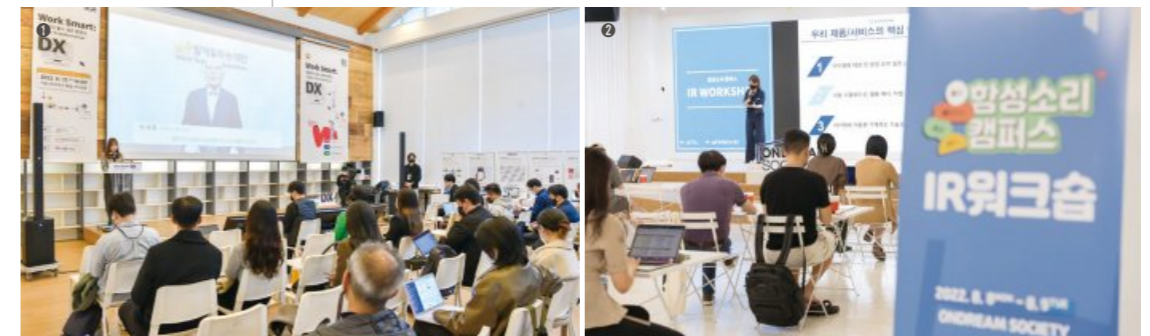
3개 분야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사업은 2022년 6월의 제1차 포럼이다. 재단은 3차례로 예정된 포럼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의 가치란 어떤 것인지 탐색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세상을 총체적으로 바꾸어놓고 있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일의 가치와 개념도 흔들리고 있었다. 가성비(가격 대비 만족도)라는 정량적인 판단 대신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중요해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미닝아웃'이란 용어가 통용되는 세태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재단은 이 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줄 연사를 초청하여 '영감을 주는 포럼'을 진행해 새로운 답안을 함께 찾도록 돕고자 했다. 포럼을 INSPIRED FORUM(영감을 주는 포럼)으로, 포럼 강연자를 Inspirer(영감의 제공자)로 명명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Work Different: 변화하는 일의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1차 포럼은 '나를 찾는 일'의 1부와 '우리를 지키는 일'의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일의 방정식 변화를 병렬식으로 풀어낸 후 패널 토론과 사전 질의응답으로 제1차 포럼은 마무리되었다.

* 일자리의 존엄함과 공동체 가치의 재확인

포럼에서는 기술변화로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일을 통해 스스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Work Smart: 창업가의 필수 생존방정식 DX(디지털 전환)'를 주제로 한 제2차 포럼은 2022년 11월에 5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열렸다.

- 1 2022.11.17. 제2차 포럼 'Work Smart' 진행
- 2 2022.8.8.-9. 함성소리 캠퍼스 IR 워크숍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디지털 전환에 관심 있는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포럼의 1부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2부에서는 선배 창업가들이 디지털 생존 전략과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참여자들의 시야를 넓혀줬다. 재단의 설립 20주년 기념일에 제3차 포럼이 진행되어 1년간 이어온 3개 사업을 마무리했다. 제3차 포럼의 주제는 'Work Together : 혁신과 포용의 방정식'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연대의 의미와 가치를 다뤘다.

제1차 포럼에 이어 재단은, 국내·외 청년들 간 창업 아이디어 교류와 팀 빌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Impact Reboot Campus 함성소리(함께 성장하는 소셜 리더)' 1기 캠퍼스를 개강하여 운영했다. 이 캠퍼스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영향 받은 취약계층 기업 회복을 위한 사회문제 정의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해, 이론적 창업교육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린스타트업 제작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창업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미래

함성소리는 예비 창업가 또는 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 과정, 여성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과정의 3가지로 나누어 진행했다.

인큐베이팅 교육은 1기 44인, 2기 57인을 선발하여 총 1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개월간 기업이 정신과 창업이론의 공통교육을 실시한 후 3개월간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기수별로 10개의 우수 팀을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비와 밀착 멘토링·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했다. 그리고 IR 데모데이를 운영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제공했다.

엑셀러레이팅 과정은 오픈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일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만큼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형태를 따로 규정하진 않았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교육 참가자도 다양해졌다.

사업 아이템, 창업 경험 여부, 기업 경영 기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 사업 진행속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 공통교육을 제외하면 디지털 전환, 조직운영, 판로 개척, 생산성 강화, 금융 등 5개 분야의 교육콘텐츠를 원하는 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창업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여, 스스로 원하는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도록 한 것이다.

여성특화 교육과정은 창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 긴급지원에 96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여성기업의 약 46.8%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재단은 여성 기업가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상호 지지 및 소통을 통한 여성 기업가의 창업 효능감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단은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물론 국내 취약계층의 회복과 극복,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체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토론의 장을 통해 가치와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는 사회 혁신 플랫폼 플래그업(flagup.kr)을 구축했다.

플랫폼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콘텐츠 제공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였다.

진행 경과는 데이터화해서 플랫폼에 쌓였다. 플랫폼 자체가 사업과 사업, 사업 참가자와 참가자, 사업 참가자와 재단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도 진행했다. 소셜벤처 공간 탐방이나 선배 창업가 특강 등의 주제를 플랫폼에 공지하고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모으는 열 차례의 네트워킹 데이가 그것이었다. 재단이 추진한 네트워킹이 창업가들끼리 별도의 모임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① 2023.6.13.~14. 함성소리 IR데모데이
② 2023.3.16.~17. 임팩트리부트 캠퍼스 여성특화사업<We.Flag> 워크숍 및 수료식



04 선순환 일자리 분야 생태계 구축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 은퇴 시기의 가속화에 따른 신중년의 출현 등 재단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발맞춘 새로운 일자리 모델 개발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에 재단은 사회참여를 원하는 구직자와 역량 있는 인재의 채용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 시니어 서비스 지원을 통한 고용모델 창출

2017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UN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에서 고령사회(UN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험이나 요양원 등의 개별상품에 '실버'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늘어나는 시니어 인구가 사용할 만한 제품·서비스는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시니어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재단은 2012년부터 유한킴벌리와 시니어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시니어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니어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은 2단계로 기획되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액티브 시니어 대국민 캠페인이 성장지원사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15년 재단은 시니어 비즈니스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스타트업에 멘토링을 제공하여 제품과 서비스개발을 지원하는 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시니어의 니즈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시니어 아이템 발



• 2016.8.16~26. 유한킴벌리 시니어케어 매니저 교육

굴단을 운영했다. 2015년에는 14인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

2016년에는 소기업 육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2단계 사업에도 착수했다. 2단계인 시니어케어 매니저 육성사업은 노인을 돕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었다. 기획 초기 단계에는 노인의 자존감 회복방안을 고민했다. 치매 초기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노인이라면 직접 위생 관리를 하도록 도와서 나이가 들면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처음에는 간호

사를 육성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논의 끝에 심리적·육체적 자존감 회복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심리상담이나 웃음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시니어케어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7월, 재단은 55세 이상의 전문직 경험을 가진 시니어를 모집했다.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영역의 90인이 사업에 지원했다. 재단은 50인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여 32인의 1기 시니어케어 매니저를 양성했다. 9월부터 76개 시설에 이들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재단은 매월 보수교육과 팀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니어케어 매니저 지원자 가운데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예측할 수 없어서 자격증을 10개 이상 취득한 이도 있었고, 평생의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하는 이도 많았다. 2018년까지 시니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기업 지원사업과 시니어케어 매니저 양성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2016년에는 9개 소기업이, 2017년에는 6개 소기업이, 2018년 5개 소기업이 자금과 컨설팅, 멘토링 지원을 받았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38개 소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육성되어 총 71개의 생활 용품을 개발했다. 재단의 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시니어에게 코딩교육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나 시니어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회사 등이 태어났다.

시니어 코딩강사는 초등학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서 삶의 경험과 연륜을 녹여낼 수 있었고, 시니어 도그워커는 시니어의 반려견 건강관리에 도움을 줬다. 시니어 관련 소기업 지원사업은 시니어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 기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17년	24년	40년	73년	115년

✧ 초고령화시대, 시니어케어 매니저의 양성

생애주기 일자리 구축 및 초고령시대 대비를 위한 시니어케어 매니저 양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7년 50명 정원의 2기 시니어케어 매니저 모집에는 178인이 지원했다. 전년도의 90인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어난 숫자로, 시니어케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2019년까지 총 238인의 시니어케어 매니저가 양성됐다.

이들은 기존의 단조로운 노인 보호 프로그램을 보완하면서, 자신의 노년을 준비할 새로운 일자리에 큰 만족을 느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공 영역으로 진출했고, 일부는 노인 관련 시설에 새로운 터를 잡았다. 시니어케어 매니저 양성사업의 성과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사업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시장을 개척했으며, 직무능력 개발·교육·시장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회의 주변부에 있던 노년층이 스스로 일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2019년부터 재단은 후속사업도 진행했다. 공공성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넘어서, 시니어가 주체가 되는 소셜 시니어벤처 앰프토피플스를 설립한 것이다. 또한, 2022년에는 액티브 시니어 온라인마케터 양성사업도 시작했다. IT 디지털 분야에서 실무역량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17인이 재단 교육을 수료했고, 15인이 지속적인 수익 활동을 벌이는 성과가 만들어졌다.

- ① 2016. 8.16.
유한킴벌리 시니어케어 매니저 발대식
- ② 2022.12.28.
액티브 시니어 온라인마케터 양성사업 성장공유회



✧ 신중년을 위한 커리어 전환 기회 제공



• 2020.11.10.
5060그린체인메이커 함께 일하기 교육

초고령사회 진입로에 선 대한민국에서 50대와 60대는 은퇴하기 이른 연령이 되어가고 있다. '신중년'이란 표현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잘 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에서 신중년 응답자의 48.3%가 주 2~3회 근무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50대와 60대 신중년의 활발한 사회참여 욕구를 엿볼 수 있는 응답이다. 2020년 재단은 직장 경험을 보유한 50대와 60대 은퇴자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60 그린체인메이커 함께 일하기 교육' 사업을 기획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원으로 진행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은퇴한 신중년을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에 연결하여, 이들의 경험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고용창출도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재단의 기획이었다. 이는 신중년의 45.6%가 사회공헌과 수입 창출이 가능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기대한다는 서울시 복지본부의 서울시 50+세대 인생 이모작실태 및 욕구조사(2017년) 결과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2020년 재단은 8인의 신중년을 발굴해서 기초 업무역량 및 매칭기업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한 후 신중년 특성에 맞는 파트타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 인턴을 원하는 6개 사회적경제조직 및 소셜벤처와 연결했다. 시니어 인턴의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이었다. 2021년에는 11인의 신중년에게 시니어인턴십을 연결했다. 시니어인턴십의 반응은 매우 좋아서, 2020년 프로그램 참여자 8인 가운데 6인의 고용 연장도 이루어졌고, 2021년의 11인 중 9인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재단은 2022년에도 10인의 신중년을 8개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결했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경험이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 상생의 열매,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고용

2010년부터 재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관련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벌여왔다.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돌봄을 제공



- ① 2016.4.29.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협약식
- ② 2018.12.21.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성과공유회

하기도 하지만,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 들어오도록 하는 사회복지 성향도 강하다. 이에 따라 재단은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종사자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부터는 사업의 지원 대상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55세 이상 고령자'로 변경했다. 노인뿐만 아니라 육아나 산모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직군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는 고령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2017년에는 13개 기관의 430인을 선발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한 후 우수사례를 지원기관들이 공유하도록 했다.

2018년부터는 단순 인건비성 경비를 보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속수당·성과 인센티브·휴가비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재단은 직접지원 이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홍보와 캠페인 등의 간접지원을 함께 제공했다.

* 일자리 창출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2018년부터 진행한 '포티케어 서비스' 사업은 공항 안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사업이었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 말에는 전체인구의 약 28.9%인 1,496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25만 명이 늘어난 수치였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인구가 연평균 0.3%씩 증가하는 데 반해 교통약자는 2%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단은 사회가 고령화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증진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2017년 12월 한국공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포티케어 매니저 육성사업에 착수했다. 포티케어 서비스사업을 수행할 기업으로는 리베라빛을 선정했다. 리베라빛은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5월에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이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과 이동약자 전용 전동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



· 2020. 한국공항공사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있기 때문에 포티케어 서비스 수행기업으로 안성맞춤이었다.

2017년 12월 27일부터 1개월 간 포티케어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공항 지하구간에 서비스 지원실을 구축하고 전동 카트 운행 구간의 표시줄을 설치하는 등 서비스 수행 시설도 마련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근로인원과 근무테이블을 세팅할 수 있었다.

재단은 이와 동시에 포티케어 매니저의 모집도 진행했다. 청년 6인과 고령자 104인의 지원자 가운데 청년 6인과 고령자 16인을 선정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도록 했다. 2018년 5월과 11월에는 보수교육도 실시했다. 2018년 1/4분기에 15,421건의 서비스 제공 실적이 발생하며 사업은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2/4분기에는 29,632건, 3/4분기에는 34,523건, 4/4분기에는 35,855건으로 서비스 이용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만족도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99%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서비스 추가 이용 의사는 99.4%, 주위에 서비스를 권유할 생각이 있다는 답변은 99.6%에 이르렀다. 새로운 가치 영역을 발굴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2019년에는 보수교육을 4회로 늘려 서비스를 강화했다. 2019년에는 전년의 14만 명보다 7% 늘어난 약 24만 명이 포티케어 서비스를 이용했다. 포티케어 서비스의 예약 어플리케이션인 렛츠무브를 개발하여 서비스 예약 접근성도 높였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SNS에 포티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포티케어 매니저를 선정한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 이들은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적응이 빨랐고, 은퇴를 경험하여 일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마인드가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자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도 4시간씩 4파트제로 운영하여 고용창출 효과도 높일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이용자도 약 15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출장이나 사업을 위해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수요가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5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고령의 포티케어 매니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했던 건 코로나19 시대의 고충이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면서 포티케어 서비스 이용도 20만 건을 회복했다.

✧ 청년의 취업 경쟁력 확보



• 2017.4.24.
취업잡(Job)이 취업캠프
활동 모습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후원으로 2017년부터 진행한 '취업잡(Job)이 프로젝트'는 금융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길 꿈꾸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취업시장에도 사교육 바람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취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취업시장에도 경제적 양극화의 영향이 심화되었다. 재단은 학생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낮추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역 대학생 100인

을 선발하여 천안에서 2박3일 간 취업캠프에 참여하도록 했다.

취업캠프에서는 취업 코칭과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모의면접, 조별 스터디 등이 이루어졌는데, 취업캠프 이후에도 6차까지 취업 코칭을 추가로 지원했다. 온라인 컨설팅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제공하고 온라인교육 강의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문 컨설턴트의 코칭이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재단은 연중 지속적으로 취업률도 조사하여 사업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했다. 우수학생에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견학하도록 하여 실제 금융기업을 확인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잡(Job)이 프로젝트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부산자산관리공사와 BNK부산은행이 주최한 부산지역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사업도 재단이 주관·운영했다. 부산 소재 10개 대학의 대학생 120인은 BUFF 사업을 통해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교육, 전문가와 금융기업 임직원의 컨설팅을 받았다. 또한 팀 단위로 금융·경제 분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워크를 점검하고, PT 경진대회에서 향상된 직무능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 청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2012년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가구의 96.3%가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데, 이들의 69.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하는 상황이였다.

주거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5~34세 청년층의 전세 거주와 주거 면적은 감소하



① 2021.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셰어하우스 HUGGround
②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셰어하우스 HUGGround 공사 후 모습

고 월세 상승으로 실제 주거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 대학생들은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해서 취업 준비도 어려워지고 있었다. 취업시장에도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재단은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재생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동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 허그(HUG)셰어하우스사업을 2016년에 시작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재단은 낮은 주택을 임대하여 취업학생이 거주하기 편한 공간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사회적기업이 리모델링을 맡아 주거공간과 공용공간을 마련했다. 공용공간에서는 취업컨설팅과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스터디라운지와 생활에 필요한 공용기기도 설치했다. 2016년 허그(HUG)셰어하우스 1호점을 서울시 성동구 답십리에 개소했다. 약 40일의 공사 끝에 가정집 1개 층과 원룸 2개 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이 3층의 공유주택으로 완성되어 22인의 입주가 이루어졌다.

재단은 입주학생들에게 취업 활동 역량 강화비는 물론 6개월 간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했다. 2017년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2호점이 완공되었고, 2018년 10월에는 서울 신촌 창천동의 3호점 입주가 시작되었다. 2020년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4호점이, 2021년에는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안에 5호점이 개소했다. 재단은 학원 및 인터넷강의 수강료·자격증 취득비·교재비 등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여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공유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 학생들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 2018.10.15.
허그(HUG)셰어하우스 3호점
개소식



05 생애주기별 지원, 창업

재단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혁신가의 생각과 의지를 지지해 왔다.

재단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러한 사회혁신가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도움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더 탄탄히 조성하고자 했다.

* 혁신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재단은 창업지원을 통해 구조화하는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을 마련하려 했다. 재단은 2011년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양천센터에서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청년층의 신규 법인 설립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창업자의 창업역량과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고용창출까지 이끌어내진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재단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가가 겪는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며 실질적인 창업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원했다.

2015년의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과 사무실 등 공간 확보로 나타났다. 재단의 소셜벤처인큐베이팅사업은 참가팀에게 창업공간과 교육, 사업비 지원, 멘토링, 자원연계는 물론 육성사업 종료 이후의 사후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창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

2015년 재단은 30개 창업팀에게 소셜미션의 정의

• 2022.10.12~1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2기 창업팀 워크숍



청년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항목, %			
자금조달	사무실 및 작업공간 확보	사업타당성 분석	시장정보 획득
53.9	10.2	9.3	5.6

출처: 2015년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배양, 소셜벤처 경연대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된 후 재단이 주최하던 사회적기업 경연대회는 정부 차원의 소셜벤처 경연대회로 변화했다. 당시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면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출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를 충족하는 수준은 아니어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시적인 소셜벤처 발굴·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재단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풀을 확보하고 창업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벤처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경연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정체된 노동시장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소셜벤처에 대해 창업지원자와 각종기관의 관심을 동시에 제고하는 효과도 일켰다.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진행 방식도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대회를 먼저 진행한 후 입선 팀들이 전국대회에서 모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8년부터 재단은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서울권역 진행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다수 발굴하고, 우수한 팀에게는 후속지원도 제공하여 성공적인 소셜벤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① 2018.9.19. 소셜벤처 경연대회 결선
② 2018.9.11. 에너지공단 에너지 분야 시민 창업경연대회 결선

2018년에는 소셜벤처 경연대회와 별개로 에너지 분야 시민 창업경연대회와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2017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2018년 일자리위원회는 기업의 신산업 투자계획을 조사·분석하여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 투자계획이 96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따르는 산업 분야가 12.8조 원의 에너지신산업이었다. 재단은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에너지 분야 시민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를 통해 재단은 에너지 분야의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는 소셜미션을 지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했다.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은 중소기업 상생·일자리·교육과 문화예술·기타 분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IBK기업은행의 사회공헌사업에 반영할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었다.

* 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 복지 실현 및 사회적기업 지원

재단은 2012년부터 문화예술로 지역사회를 바꾸는 '우리마을 체인지메이커'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5년에는 4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컨소시엄을 맺고 지역 공동체에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했다.

마포구에서는 3개 사회적경제조직의 컨소시엄이 '공감영화제'를 개최했고, 금천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채집해서 연극 '금천독백, 당신의 이야기가 대본입니다'를 만들었다. 양천구에서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일하고 싶지만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공연예술교육을 진행했다.

2016년과 2017에는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은 소셜벤처 가운데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문화 회복에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4개 팀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체인지메이커 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에는 효성그룹의 지정기탁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이주민,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3개 사회적기업에 문화복지 콘텐츠 기획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지원을 통해 영화의 배리어프리 버전과 시니어를 위한 기억의 지도가 만들어지고, 성인발달장애인 역량에 맞춘 공예 활동이 진행되었다.

* 예술치료의 직업 안정성과 지속성 추구

마음톡톡 치료사 경제적 자생조직 구축사업은 2018년부터 GS칼텍스에서 추진해온 사회공헌활동으로, 예술치료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디지털시대에는 아날로그시대에서보다 감정표현과 소통에 서툰 이들이 늘어나면서 예술치료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문 직업으로 삼기에 예술치료사의 위상이 자리 잡히지 않았다. 예술치료는 주로 민간 합동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멈추면 서 예술치료사의 일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예술치료사는 대부분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했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취약했다.

이에 재단은 GS칼텍스와 2018년 협약을 체결하고, 마음톡톡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생력 있는 경제조직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나섰다.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예술치료사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술치료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재단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예술치료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아이টে을 개발했다. 무용동작을 통해 자신의 몸과 감정 상태를 발견하는 프로그램, 연극을 통해 20~30대 청년들의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미술작품을 놓고 잘 싸우며 공감을 형성해 가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실행 아이টে이었다.

재단은 비즈니스 모델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서비스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고도화한 후 2020년에 예술치료사 기업인 화이트어비스를 설립했다. 화이트어비스는 지속가능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치료 방향을 이별상담의 한 가지 분야로 좁혔다. 이별상

담으로 방향을 집중한 결과 예술치료사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상담을 구조적으로 체크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상담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도 계속 높였으며, 2021년에는 인천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화이트어비스는 청년의 미래나 일에 대한 고민 상담 콘텐츠를 추가했으며, 예술치료사들과 함께 상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 2018. 마음톡톡 치료사 경제적 자생조직 구축사업 진행



✧

지역문제의 자생적 해결 및 생태계 구축 노력

1964년부터 정부는 10년간 구로수출산업공단을 구축하여 구로동 일대를 산업화의 기지로 삼았다. 이때 구로구와 인접한 양천구에도 가방 봉제 분야의 임가공업체와 협력업체 등이 들어서면서 가방 제조단지가 조성되었다. 이후 양천구 신월동 일대는 국내외 패션 브랜드의 가방을 OEM 생산하며 1990년대까지 호황을 구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생산 공장이 이전하면서 많은 가방업체가 폐업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 이르자 양천구에는 393개의 가방업체에 3,000여 명이 종사했는데, 이는 1990년대 전체 사업장 수의 20%에 지나지 않는 수치였다. 이에 재단은 동종 업종이 밀집해 있고 수준 높은 기술을 축적한 양천구의 소공인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문제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양천구 지역 소공인의 협업화사업을 기획했다.

2015년 7월, 재단은 양천구의 개인사업체 대표자와 고용인이 참여하는 양천가방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므로 양천구 소공인에게 최적화된 형태였다. 재단은 조합원들이 양천가방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동조합으로 운영하여 자체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공하여, 지역기반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2015년 11월, 재단은 한국공항공사 양천구청과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2016년 1월부터 시장조사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 3월부터는 양천가방협동조합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지원했다.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회계교육과 마케팅 역량 강화 전략 코칭도 각각 4회와 7회 제공한 끝에 양천가방협동조합의 자체 브랜드(란트, LANTT)가 태어났다. 란트는 2016년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목표를 초과한 크라우드펀딩을 유치했다. 자립을 향한 양천가방협동조합의 이야기는 KBS의 <다큐멘터리 3일>에서 '가방, 꿈을 담다-양천가방협동조합 72시간' 편으로 제작되어 국민들에게 소개되기도 했다.

사업 2년차인 2017년부터는 여행가방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25개의 유통 및 거래처가 확보되었고, 54종의 가방 디자인 샘플도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13종은 자체 브랜드의 신상품 샘플이었다. 6월부터는 주민참여 마을공방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8년 5월에는 양천구청과 나눔가게협약도 체결했다. 나눔가게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병원, 학교 등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양천구의 공동체 강화 활동으로, 구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양천구청의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2018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에 소상공인 판로지원 홍보관을 개설했고, 양천구청은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

센터에서 '가방 꿈을 담다'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였다. 크라우드펀딩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지자체와 기업, 지역기반 협동조합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낸 것이다.

양천가방협동조합은 2019년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8년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자 표창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단체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2020년 1월에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유공표창 시상식에서 사회적경제 일자리 분야에 우수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아 상을 받았다. 2019년 양천가방협동조합은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한국경제신문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으로 선정되었다.

청년사회적기업가 콜라보 한정판 브릿지 쇼퍼백의 크라우드펀딩은 목표액의 128%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에는 온라인 펀딩을 강화하여,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 로카와 콜라보한 한정판 브릿지 쇼퍼백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다.

양천구 지역 소공인들은 뛰어난 기술을 보유했지만 자체 디자인능력의 부족으로 트렌드를 맞춰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을 진행하면서,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홍보·마케팅·판로 확보의 복합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가능했다. 양천구 소공인 협업화 사업은 지역 소기업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뛰어넘어 지역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복합적인 성과를 올린 프로젝트였다. 2015년 22인으로 출범한 양천가방협동조합의 조합원은 2021년 183인으로, 조합에 가입한 공장도 같은 기간 41개에서 61개로 늘어났다.

• 2017.12.21.
가방디자인공모전 성과공유회



06 생애주기별 지원, 성장

재단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뛰어들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회혁신가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재단은 그동안 축적한 사업역량과 노하우,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와 맞춤형 성장을 도왔다.

*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지원

2018년부터 시작한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은 재단이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추진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이다. 다년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예산은 연 단위로 집행되던 기존 지원 방식에서 사업 시작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사업이다.

재단은 개별적인 소셜벤처 또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경제를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제조업의 약 3배, 전체 산업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사회적기업에

• 2021.7.2~4.
사회적경제박람회 MG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홍보 이벤트



대해 아는 인구는 4.4%에 지나지 않았고, 사회적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 매출의 40%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었다. 재단은 5년간 100개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을 육성하면서 홍보와 판로 확보 등의 종합지원을 기울인다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후원기관이 보유한 자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춤형으로 종합적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019년에는 425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였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40개 기업 대상 현장실사와 대면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0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단은 사업 내용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원기업의 애로사항과 질의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함을 감안하여 재단은 임팩트 투자 분야의 사회적경제 트렌드 특강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금융사업을 소개하여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MG 내부 쇼핑몰에 입점하는 등의 판로 확보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공의 일환으로 기업 및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업별 언론보도, 신규개발 제품에 대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전용 채널을 운영,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립을 위한 성과 측정 및 입체적 지원 체계 확립

효과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성과관리 효율을 개선하고자 사업별 성과 목표 단순화, 성과측정 및 평가 균질/통일성 확보, 지원조직별 투입역량 집중화를 유도했다.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사업 및 예산 사용 현황을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 현황 및 최종 KPI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재단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별 담당자를 배정하여 진행과정을 집중 모니터링 했으며, 지원기업 제품의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하여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언론홍보 활동 등 다양한 지원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 2020년 9월 최종적인 사업평가 결과 지원기업들은 목표 대비 평균 97%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성공적인 2기 사업 종료 후 2020년 9월 시작된 3기 지원사업에는 국내트랙 24개사와 해외트랙 1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단은 3기 지원사업은 자금지원·홍보지원·판로지원·네트워킹·성과관리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참여 기업간 컨소시엄의 구성과 사업개발을 지원하였다. 서로 다른 영역의 참여 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3개 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플라스틱 제



• 2021.5.12.
MG청년창업캠프

로 생활 키트를 개발하여 매출을 발생시켰고, 공간 업사이클링 기업 등 2개 사업체의 컨소시엄은 발달장애 가정을 위한 로컬여행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에 3기 참여 기업별 KPI 목표달성률은 94.5%이었으며, 평균 4억 3,000만 원의 매출과 96인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고용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총 96인의 신규 고용창출 인원 중 23인이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이다.

2021년 6월 1일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 4기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스타터 트랙과 러너 트랙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진입하고자하는 청년 창업팀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스타터 트랙에 대한 지원사업은 MG청년창업캠프라는 별도의 사업명을 가지고,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의 연계 또는 부분사업으로 진행했다. 스타터 트랙은 기수별 다른 주제로 진행되어 2021년에는 '그린'을 주제로 친환경 기업의 창업을, 2022년에는 '휴먼'을 주제로 정보·의료·교육·문화 등의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했다. 2023 스타터 트랙의 주제는 '로컬'이다.

러너 트랙은 이미 창업·운영 중인 20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을 따랐다. 2018년 4기 지원기업의 KPI 목표달성률은 러너 트랙 96.1%와 스타터 트랙 81.2%로 차이를 보였다. 내부역량과 위기대처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한 차이였다. 4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57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기업의 매출도 평균 95% 가량 성장하는 성과가 발생했다.

2018년 시작된 1기부터 4기까지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지원기업의 수는 75개에 달했다. 재단은 참여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 협업을 지원하고자 2022년 5기 사업에서는 '투게더 트랙'을 신설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5기 사업은 스타터 트랙의 4개 창업팀, 러너 트랙의 17개 유망성장팀, 투게더 트랙의 4개 협업 프로젝트 참여팀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5개의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을 포함하면 총 32개 기업을 지원한 것이다.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은 사업비를 제공하는 방식의 단순지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MG 온라인몰 입점은 물론, 오프라인 팝

- ① 2022.10.12.
MG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 네트워킹 DAY
- ② 2022.11.11.
MG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홈커밍데이 행사



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매출 촉진, SNS용 숏폼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홍보 영역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 간 사업협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오프라인 간담회 및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 에너지·친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2021.2.3.
The Minimize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2016년 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 하나투어와 함께 친환경 사회적기업들과 함께걷기 캠페인 '에너지어스'와 에코희망여행을 진행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을 14개 친환경 사회적기업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역량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캠페인을 홍보하는 영상도 소셜벤처에서 제작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22인의 사회적기업가에게는 해

외연수 기회도 제공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재단은 미래 인적 자산인 청년층의 에너지·친환경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극화해소와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에너지·친환경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The Minimize'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절차를 최소화하고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실질적이고 빠른 지원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원 대상을 에너지 분야와 친환경 분야로 구분했다. 에너지 분야의 지원 대상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에너지 유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고, 친환경 분야의 지원 대상은 친환경 또는 자원순환 제품·서비스 제공기업이었다. 재단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10개와 15개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했다.

* 푸드트럭 창업 청년 유류비지원

2018년 재단은 청년창업의 니치마켓으로 부상하는 푸드트럭 창업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비지원사업을 에스-오일과 함께 진행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



은 푸드트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도 지녔다. 2018년에는 수도권 25팀과 지방 15팀을 대상으로 팀 당 20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했는데, 취약계층과 저소득 푸드트럭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업의 공익성을 높였다.

2019년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20팀씩 선정하여 지원했고, 2020년부터는 총 52개 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팀에 대한 교육과 기업관리도 진행하여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외출이 감소하면서 푸드트럭의 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유류비지원이 푸드트럭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우수 푸드트럭 4개 팀과 5개 팀에 대한 추가지원도 실시했다. 푸드트럭은 지속적인 제도개혁으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로 기대되고 있다.

* 같이 가는, 가치(Value) 여행

대다수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도를 위해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의 전문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재단이 2018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진행한 '가치여행 프로젝트'는 성격이 달랐다. 사회적기업의 창업가 또는 예비 창업가, 사회적 취약계층, 교통약자 등이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하는 기획도 예외적이었고, 여행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높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실제 사업화를 추진한 결과도 특별했다.

2018년 재단은 24개 기업 관련자와 개인 13인을 포함하여 총 37인이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총 5박 7일 동안 네팔로 공정여행을 다녀오는 사업을 진행했다. 네팔 카트만두의 사회적기업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재단은 공정여행에 공정무역을 결합하는 기획을 내놓았다. 여행 기간 동안 공정여행 참가자에게 팀별 미션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효과



① 2019.9.22.
인천국제공항 가치여행 중국
상해 발대식
② 2019.10.11.
가치가세 사업설명회



적인 미션 진행을 위해서 팀은 여행 전부터 미션을 준비해야 했다.

가치여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물품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조달한 것 역시 이 사업의 성과다. 단체복, 여행 패키지물품, 케이터링 서비스 모두 사회적기업에서 준비했다. 또한 후원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 자원봉사를 넘어 사회적경제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했다.

2019년에는 3기와 4기로 나누어 두 차례 가치여행을 추진했다. 3기 가치여행 참가자는 4월에 26인을 모집·선발하여 7월에 가치여행을 다녀오도록 했고, 4기 가치여행 참가자는 6월에 22인을 모집하여 10월에 가치여행을 떠나도록 했다. 3기 여행팀은 7박8일간 베트남의 사회적기업을 방문한 후 사업화한 미션 수행 결과를 카카오 같이가치 플랫폼에 올렸다. 팀별로 수행한 사회공헌활동성과에 국민 후원을 결합한 것이다.

4기 여행팀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함께 중국 상해로 4박5일의 가치여행을 다녀왔다. 공정여행 관련 사회적기업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배리어프리 여행상품 '상해를 상상해'를 설계하게 하고, 이 상품을 통해 상해 여행을 진행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배리어프리 여행상품을 개발한 4개 여행사 등 5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유지·발전시켜 2021년 무장애 여행협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사실이다. 가치여행이 새로운 가치 창출조직을 만들어낸 것이다.

가치여행 프로젝트는 만족스러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부터 해외로의 가치여행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장애인의 여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배리어프리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치여행 지원 사업의 방향을 전환했다.

* 농어촌 상생 협력 지원 박람회 주관

1990년대 후반 산업자원부는 설비투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을 11개 기업으로 분리·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전력 그룹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본사를



• 2018.11.5.
농수산물 박람회 개최

전국 각지로 이전했고, 이들은 해당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8년 11월, 재단은 사흘간 광화문에서 11개 한국전력 그룹사의 이전 지역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판매하는 대규모 행사로 농수축산물 박람회를 주관했다. 재단은 박람회 참여 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도모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우면서 지역 상생 협력을 실현하는 통합 행사로 평가 받았다.

*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초기 단계의 기업은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지만 적재적시에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대부분 느끼는 공통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단은 2008년부터 자체 지역개발금과 기금과 고용노동부,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은행 등의 기금을 사회적기업에 2%대의 낮은 이자로 대부하여, 이들이 창업과 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5년까지 재단의 대부금 총액은 118억 원이었으며 상환계획 대비 95.5%의 높은 상환율을 유지했다. 2015년에도 재단은 10개의 신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지원을 진행했다. 2015년 12월 31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재원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사후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2016년부터 재단은 기업당 대출금의 규모와 지원 자격을 일부 조정했다.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3년간의 매출 추이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부 리스크를 줄인 것이다. 또한 재단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셜벤처에 대부지원을 하는 방식도 추가했다.

2017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여 청년창업 대출지원사업도 개시했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 소셜벤처와 청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는데 1월 신청공고를 내자 283개 사업체가 참여를 희망했다.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후보사업체를 15개로 정리한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5개사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고 비즈니스 모델 정교화 자금을 집행했

다. 지원금의 사용 제약이 있는 일반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저리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져 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용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차별적 요소였다. 2018년부터는 기업의 상환관리를 모니터링하고 리워드 방식을 도입해서 성실상환을 유도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금을 저리로 대부하는 사업도 실시했다. 단기운영자금은 2년간 6개월 거치, 18개월 상환하는 조건에 연 3%의 고정금리로 대출했다. 장기운영자금은 4년간 12개월 거치, 36개월 상환하도록 했다. 이 사업을 통해 17개 기업이 11억 1,00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팬데믹 특수 상황에 따른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

같은 해 성동구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지원사업도 벌였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성동구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으로는 9개 기업이 4억 3,00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재생

재단은 지역 재생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경연대회, 연구조사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2019년에는 충청북도 증평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증평군사회적경제활성화 아이디어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우수 경연팀에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법인화를 이끌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아카데미를 열어 백화점의 영업전략과 매출 증대전략을 시장 상인에게 소개한 것도 2019년의 재단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2020년에는 고령화문제가 특히 심각한 논산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사업에 지역주민들을 시민연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강서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도 운영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재단의 고민과 노력은 HUG세어하우스 사업을 확장한 2021년의 부산 HUG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 개소로 이어졌다. HUG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입주하여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장소이자 도시재생형 세어오피스공간이다. 지역에 유동인구와 청년 유입효과를 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의 재단사업들 사이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해소해야 할 문제가 복잡·다양해지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HUG세어하우스사업의 연장사업이 HUG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07 가치 창출 -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는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어 발전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 지대는 존재했다. 재단은 디지털 전환기 속 소외계층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고심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새 기술문명에도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애썼다.

* 디지털 전환기, 소외층을 위한 지원과 응원

2010년대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상에 파고드는 시기였다. 하지만 소외계층의 상황은 달랐다. 그들은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화하는 양극화를 힘겨워했다. 재단은 고용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취업 취약계층이 되어가는 청년층, 양적으로는 늘어나지만 삶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취업과 육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재단은 2014년 5월에 일본의 니트족 상황을 담은 <일본 청년 니트 백서 - 그 실태와 사회경제구조 분석 2012~2013>의 번역본을 e-Book으로 출간한 바 있는데, 2015년 12월에는

• 2016.2.19. 무업사회 발간 기념회



<무업사회>의 저작권과 판권을 구매해서 번역·출판했다. 사회에서 이탈하는 청년 니트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과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을 기대한 사업이었다. 2016년에는 청년 니트에게 문화와 일을 체험하도록 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내 일 내일'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5인의 청년니트를 청년멘토와 연결하여 주 3회 총 36회에 걸쳐 음악·요리·CA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청년 비영리단체인 드림메이커와 함께 홍대·신촌에서의 거리 캠페인을 통해 청년에게 응원메시지와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한편 SNS 댓글을 보내는 청년 응원 캠페인 'Up Together'도 진행했다. 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청년에 관심 있는 기업의 펀딩을 유도하고 언론홍보를 진행하여 청년실업을 이슈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재단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을 네트워킹하고 재단사업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함께일하는재단 플러스 서포터즈도 구성했다. 대학생에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재단에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었다.

*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

2015년 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기억발전소, 명랑 캠페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혼모의 자립 지원 캠페인도 벌였다. 5월에 미혼모 분야 사업개발을 위한 전문가간담회를 3회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9월부터 월 1회 컨소시엄 회의를 진행하고, 11월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엄마입니다' 캠페인을 연 것이다. 캠페인은 애니메이션과 아트북 제작, 연극 공연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2017년 9월까지 이루어졌다. 재단은 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서비스, 교육, 일터, 의료, 언론 등을 개선이 필요한 5대 주요 분야로 선정하고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관련기관들과 미혼 한부모가족 차별방지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재단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한 SE 희망씨앗 전파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관련

- ① 2016.5.27. 나는 엄마입니다 캠페인 진행
- ② 2018.3.16.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여성가정 자립지원사업 기금전달식



사회적기업을 지원한 바 있고 2015년에는 효성그룹의 후원으로 사회적경제 안에서 다문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3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다. 또한 2017년부터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나눔꽃 캠페인도 진행했는데, 사회적 약자의 사연을 일간지에 게재하고 기부금을 모금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었다. 학자금 대출 이자로 신용유 의자가 되는 청년세대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2회에 걸쳐 기획기사로 소개되었으며 총 22,210,226원이 모금되었다. 나눔꽃 캠페인은 2018년 소년원 출소 청년의 자립지원 기사로 이어졌다.

＊
재단이 주도하는 일자리 대안 연구

정책연구원도 변화하는 시대 일자리 대안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다. 2015년에는 협동조합의 설립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였지만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법과 정책 및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다. 이에 재단은 2013년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사업 책임자였던 강희원 교수를 통해 당시 연구와 보완연구를 종합한 기획연구도서 <협동조합과 법>을 발간했다.

정책연구원은 2015년 협동조합 주간 기념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여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협동조합모델 개발을 위해 장애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동 주최하여 3개월간 10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 서울시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운영모델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서와 매뉴얼을 발간한 것도 2015년 정책연구원의 성과였다.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 등의 사회적 연대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2015년의 사회적 연대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6인의 전문가가 노동세계의 변화와 과제, 연대적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의 발전방안, 국제 연대의 사례 등을 연구한 보고서는 2016년 정책연구원 총서 5호 <사회적 연대와 일자리 창출>로 출판되었다.

- ① 2016.10.6. 정책연구원 총서 발간
- ② 2016.11.4. SDGs 공익재단 네트워크 포럼 진행



사회적연대와 일자리 창출
연구의 연구자와 주제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재조명하고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의 역사 연구 활동도 벌였다. 연구 결과는 내부참고용 연구보고서로 취합되었다.

2016년에는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가운데 8번째 항목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국내에 확산하기 위한 네트워크 포럼을 재단과 한국인권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포럼의 주제 발표자 선정 등에서 정책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정책연구원은 옥외관련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옥외광고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연구자	연구자 소속 및 직위	연구 주제
최종태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장	유기적 연대와 일자리 창출
강희원	경희법학대학원 교수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적적립금
문희원	네팔공네 대표	공예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 네팔 공정무역단체를 중심으로
박영삼	(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획위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장종익	한신대 교수	소규모사업자협동조합의 연대전략으로서 체인형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적 대화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연구의 연구자와 주제

연구자	연구자 소속 및 직위	연구 주제
김기섭	<깨어나라 협동조합> 저자	자발적 결사체로서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의미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소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 자활기업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 사회적기업편
김신양	(전) 성공회대 교수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어떻게 쓸 것인가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
박승욱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장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과 지역공동체 재생
신명호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재생 아이디어 공모

2019년 주거생활 트렌드 리포트의 설문조사에서 20대에서 50대 응답자의 69.9%가 향후 3년 이내에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 연령층의 뚜렷한 아파트 선호도를 엿볼 수 있는 결과였다.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했기 때문인데, 청년층이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주거 형태를 결정할 경우 부채로 인한 고용상태의 악화와 임금 수준이 악화될



• 2020.9.16.
서울시 골목길 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위험성이 존재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2020년 서울시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청년 주거난 해소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세웠고, 재단은 구체적인 골목길 재생방안에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서울시 골목길 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9월에 '서울st. 골목길 청년 랜선포럼'라는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행사 제목의 st는 서울의 골목길(street), 서울의 스타일(style), 서울 청년의 이야기(story)를 통해 골목길 재생을 시작(start)해보자는 의도를 담은 것이었다. 3부로 진행된 랜선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 디지털시대의 국제 교류와 사회적 가치 전파

디지털시대가 무르익은 무렵,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는 더 활발해졌다. 2015년에는 대만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인사가 재단을 방문해서 협력방안을 협의했고, 2016년에는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AVPN; Asia Venture Charity Network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회적 투자자 네트워크)와 중국 징코 파운데이션, 영국문화원, 인도네시아의 사회적기업이 재단을 방문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16년,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국제사회의 불평등 해결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2012년 발족한 한국의 민간협의체)의 사회적경제분과 모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시티넷(CityNET 198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의 정회원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세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재단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에는 아시아 사회적기업 투자 관련 최대 네트워크인 AVPN(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의 싱가포르 연례행사에 참석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온



• 2016.6.17.
지구촌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토론회

성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진행했다.

이 육성사업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등 4개국의 6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다. 캄보디아에서는 MG 적정기술센터(MG Appropriate Technology)와 로터스월드를 지원했다. MG 적정기술센터는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품질 농업가공품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지구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도움을 받아 정규직 8인을 고용하고 150인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현지 빈곤 청소년에게 미용교육과 관련 교육을 연계하는 로터스월드는 2015년 재단의 지원을 통해 정규직 9인의 고용과 15인의 취업연계 효과를 발생시켰고 빈곤 청소년 20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베트남에서는 개발과통합센터(Center for Development and Integration)를 지원하여 키우닷 커피협동조합을 조직하고 FLO공정무역 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개발과통합센터는 정규직 3인과 비정규직 5인의 고용을 창출했고, 청년 사회적기업가도 3인 배출했다.

인도네시아의 PT Bintang Langit Mandiri는 유기농 농장과 인도네시아 전통음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관광객에게 유기농 농업교육과 체험 투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이 기업은 전년 대비 52%의 매출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네팔에서 재단이 지원한 기업은 SEA센터와 주네리였다. SEA센터는 네팔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창업 인큐베이팅을 제공했다. 핸드메이드 의상과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체인 주네리는 네팔에서 생산한 고품질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에 수출하여 지역 여성의 자립을 도왔다.

① 2015.7.15.
지구촌사회적기업육성사업
워크숍
② 2019.9.27.
AVPN 포럼 진행



08 숨가쁜 변화의 시대, 재단의 지속 발전 방향

디지털시대가 본격화되었지만, 다양한 사회문제와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일시에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둔화되었고 사회는 여전히 불안정했기에 저소득층 및 청년층이 누리는 삶의 질은 점차 하락하고 있었다.

불확실한 미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단은 20주년을 맞았고, 다양한 중장기전략을 통해 재단의 특화사업, 특유의 사명을 이어받으면서도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지속 가치를 미래에도 이어가려 했다.

* 재단 미래상의 재정립

재단은 설립 이후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설립 초기에는 외환위기로 발생한 실업과 빈곤의 두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에는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를 결합하여, 사회적경제가 확산되도록 노력했다.

2015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효과로 기존에 없던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여 일자리로 연결하는 광범위한 사업을 벌였다. 점차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일자리는 물론 일의 성격 자체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설립 초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주로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띠었다면, 201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이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국내 사회적기업이 해외사업에 진입하거나 판로 확보를 위해 해외

중장기전략 실행 10대 과제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질적 성장

- ① 생애주기별 창업지원 특화사업
- ② 공간 플랫폼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및 수익모델 창출
- ③ 임팩트 투자를 통한 사회적경제 선순환 유도
- ④ 사회적경제 인식 및 가치 제고



수요자 체감 양질의 일자리 모델 개발

- ⑤ 세대별 취업역량 강화 특화사업 및 취업연계
- ⑥ 신규(기업형)일자리 모델 개발



4차산업혁명 대응 플랫폼 구축 및 신사업 추진

- ⑦ 사회적경제 통합플랫폼 구축
- ⑧ 사회적경제 유관정보의 DB화
- ⑨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비 신사업 추진



조직운영 신뢰도 확립

- ⑩ 조직 체질개선 및 혁신에 기반한 선진 조직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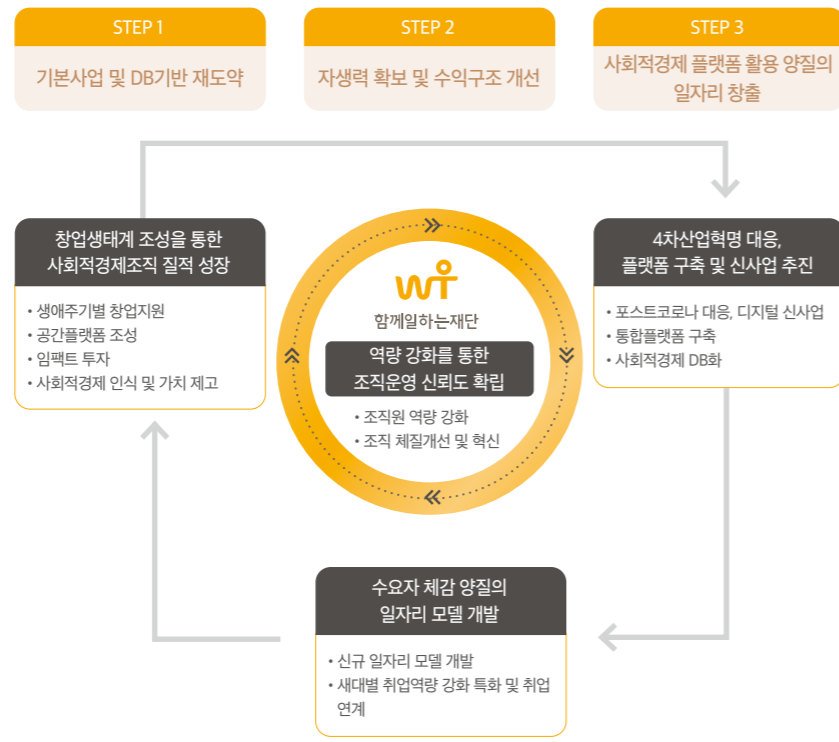
＊
재단의 지속적 발전전략

고용되지 않은 형태의 대표적인 일자리는 플랫폼 노동을 들 수 있다. 배달대행, 대리 운전 등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플랫폼 노동이 급속도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듯, 아날로그 세계의 실제 엔진과 디지털 물리 엔진은 데이터로 통합되어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 신경망기반의 AI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를 과학 기술이 대체해가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오늘날엔 일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일을 사회에 확산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야 했다.

2021년 2월, 재단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최종태 이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박인구 이사, 박재완 이사, 김재구 이사, 강희원 감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4월의 1차 소위원회에서는 외부 진단보고서를 검토하며 중장기전략의 수립 방향에 대하여, 이후 6월의 2차 소위원회에서는 중장기 형성전략과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재단의 새로운 중장기전략은 11월의 3차 소위원회에서 수립된 후 2022년 2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완성되었다.

【 일자리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



재단은 일자리문제의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션과 비전 정립과정에서 창의성과 전문성, 현장 중심의 사업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핵심가치로 선정했다. 기존의 산업사회가 자본과 노동의 결합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은 대대적인 자본과 노동 투입 없이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창의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과 사업의 접점이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것도 변화하는 시대상의 하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재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과 운영, 임팩트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중심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현장의 개념이 변화하는데 착안한 핵심가치였다. 디지털 전환시대에는 다양한 가치와 가치추진 주체들이 빠르게 결합하고 흩어지길 반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재단은 3대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성장에 고심했다. 또한, 수요자가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플랫폼 구축과 신사업 추진, 조직운영의 신뢰도 확보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

3단계의 전략실행 로드맵도 설계했다. 2022년과 2023년의 2년은 기존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화를 준비하는 재도약기로, 최근 지원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기반 사업전환을 꾀하는 시기다. 투자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이 시기의 목표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재단 수익구조의 변환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DNA 데이터를 취합하여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임팩트측정 리포트와 가치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데이터에 객관성을 부여한다. 이후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체질개선을 완료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 로드맵의 최종 목표다. 재단은 이 시기에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을 가장 가치있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기에는 사업이 복잡·다변화하여 성과를 자산으로 축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은 복잡하게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과 사업주체인 사회적경제조직을 데이터화하여, 다양한 정보가 다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또한 여러 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 스폰서십, 사업에 지원하는 개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은 신규공간을 마련해서 앵커공간 플랫폼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앵커

공간에는 재단의 지원을 받는 소셜벤처와 이해관계자가 입주하도록 하여 창업·육성효과를 강화하고,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멤버십 콘텐츠를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형태 변화로 공유사무실 수요가 증대하는 환경에 맞춰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소셜플레이스로 발전하도록 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플랫폼 사업을 통해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재단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이다.



재단 20년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

함께일하는재단은 2023년,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IMF시대 이후 다사다난했던 굴곡과 변혁의 역사 속에서도, 재단은 20년 동안 한 시도 쉬지 않고 일자리문제 해결과 사회적 경제 구축사업에 매진해 왔다. 양질의 일자리 모색에서부터 시작된 고민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한 만민의 행복과 복지 추구의 사명에 이르렀고, 이제는 민간기관이 지닌 여러 한계를 딛고 일자리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 중 하나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기술 사회의 속도와 변화에 발맞추며 유연한 사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모두가 나누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의 미션을 시종일관 유지해 온 역사는, 현 재단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우수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재단이 풀어야 할 책무 같은 숙제는 예전과 다름없이 끝없는 변화와 노력을 수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노력, 사회

적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중간지원 조직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재단은 또다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변화에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를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부 조직 체계와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과감한 도전과 개척에 나서고 끝내 성공적으로 사업을 정착시키면서 각지에 사회적 가치를 환기하고 확산시키는 미션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첨단디지털 기술의 전개에 뒤이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는 또다시 깊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일자리문제 또한 예전과 판이하게 다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IMF 시절의 막막함을 헤치고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자라온 재단의 고유한 역사는, 불안한 미증유(未曾有)의 시대를 열거할 동력이자 열쇠이다. 재단이 도모한 연대와 협력, 공유와 나눔의 정신과 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시도와 성과들은 재단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척도이기도 하다. 함께일하는재단의 성실하고 치열했던 20년 역사는, 다가올 또 다른 20년, 언젠가 맞이할 100년 역사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드는 뚜렷한 증거이자 뜻깊은 유산(Legacy)이라 할 수 있다.





김정숙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사회양극화 심화라는 난제, 함께일하는재단이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20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한 함께일하는재단과 더불어 우리 사회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 팬데믹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여성 인권과 빈곤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여성들의 가사 및 돌봄 노동 부담이 늘어나면서 교육과 기술 습득 기회는 줄어들고 비정규 저숙련 노동으로 내몰리는 양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깊어지는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함께일하는재단은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민간 공익재단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이 보다 강한 역량과 결속력으로 우리 사회의 난제인 양극화 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급변하는 일자리 패러다임, 젊은이들의 굳센 마음가짐을 바라며

근래 청년실업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 경제 및 직업 환경이 달라진 탓도 있지만, 핵가족 환경에서 자라나 힘든 일을 좀처럼 하지 않으려는 일부 젊은 세대(世態) 문제도 청년실업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도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젊은이들에게 일과 근로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한정된 경제 여건에선 '사람'이라는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유지와 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해결은 시급합니다.

또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일자리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여러 일자리 해법이 등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재차 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을 해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을 하는 선진화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젊은이들이 더는 무위도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데 함께일하는재단이 지금처럼 계속 한 역할을 보태길 기대합니다.



박인구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동원그룹 부회장



박재완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재단의 새로운 미션

모두가 바라는 넉넉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려면, 국민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결국, 잘 사는 나라의 필요조건은 국민들의 역량 확충에 있고, 이를 위한 충분조건은 기여와 보상이 부합하는 공정한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보유자원이 변변치 않은데도 잘살고 있는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그러한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국민들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작지만 큰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적역량은 1) 문해, 수리와 컴퓨팅 역량 2) 창의와 혁신 역량 3) 소통과 공감 역량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1단계 역량이 뛰어나지만 2단계는 보통 수준이고, 3단계는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적역량 강화에 여러모로 힘써온 함께일하는재단의 향후 목표는 2단계와 3단계 향상에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일하는재단은 국민들의 창의와 혁신, 소통과 공감 역량 육성이란 새 미션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단의 할 일

실업극복국민운동으로 출발한 함께일하는재단의 책임은 여전히 막중해 보입니다.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의 대한민국 사회경제 지표는 재단에게 일자리문제를 극복하고 전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으로 신산업을 개척하여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합심하여 혁신을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산업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혁신 생태계, 지식 기술 생태계 그리고 사회혁신 생태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에 기반하여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지역별, 업종별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에 재단이 앞장서야겠습니다.

대표적인 국제포럼 사회적기업월드포럼 국내 개최, 연구개발을 통한 정책 제안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함께일하는재단이 지난 20년간 축적된 경험과 역량으로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이끌 것을 기대합니다.



김재구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현대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전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재단의 변치 않는 핵심가치, '좋은 일자리' 추구를 지속해가길

20여 년 전, 현 재단의 모태인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첫해 사업으로 실직 가정과 노숙자 지원에 나섰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실업극복운동이 지금의 함께일하는재단으로 발전하고, 소셜벤처 창업과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 같은 큰 취지의 사업을 거뜬히 수행하는 걸 보면, 당시로는 상상하지 못한 실로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많은 게 성장하고 변했지만, 핵심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며 오히려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기에,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가치를 추구하는 재단의 사회적 책무는 더욱더 무겁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보다 유능하고 실천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의 혁신 역량을 복돋우는 데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글로벌 연대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오영
함께일하는재단 감사
법무법인 동북아 고문 겸
공인회계사

앞으로도 계속 모두를 놀라게 하는 함께일하는재단이 되길

함께일하는재단과 인연을 맺은 직후, 몇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구성원들의 대단한 이력에 놀랐고, 그분들이 지닌 재단에 대한 열정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러한 놀라움 속에서, 재단 직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열정과 책임감을 품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함께일하는재단의 놀라운 모습을 상상하며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뉠 수 있게 됐습니다.

첫째, 목적사업을 단순화하되 그 깊이를 심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재단 역량을 모았으면 합니다.

둘째, 홍보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보의 양과 질에 신경 써, 청년과 청소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함께일하는재단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셋째, 재단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 고양된 연구 역량은 함께일하는재단의 지속 가치를 확보하면서 일자리 선도자의 역할을 더 오래 가져가게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세 가지 방향을 통해 재단 직원들의 자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조만간 그들에게서도 재단의 놀라운 미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돌보고 지지하는 민간단체로 꾸준히 거듭나길



김동명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불안정한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함께일하는재단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이 노력했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여러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재단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인구·기후 위기에 물가 폭등까지 더해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은 예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노·사·정 가교로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일자리문제 해결에 관해선 국내 민간단체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역사와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20주년 이후에도 양질의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함께일하는재단의 꾸준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강희원
함께일하는재단 감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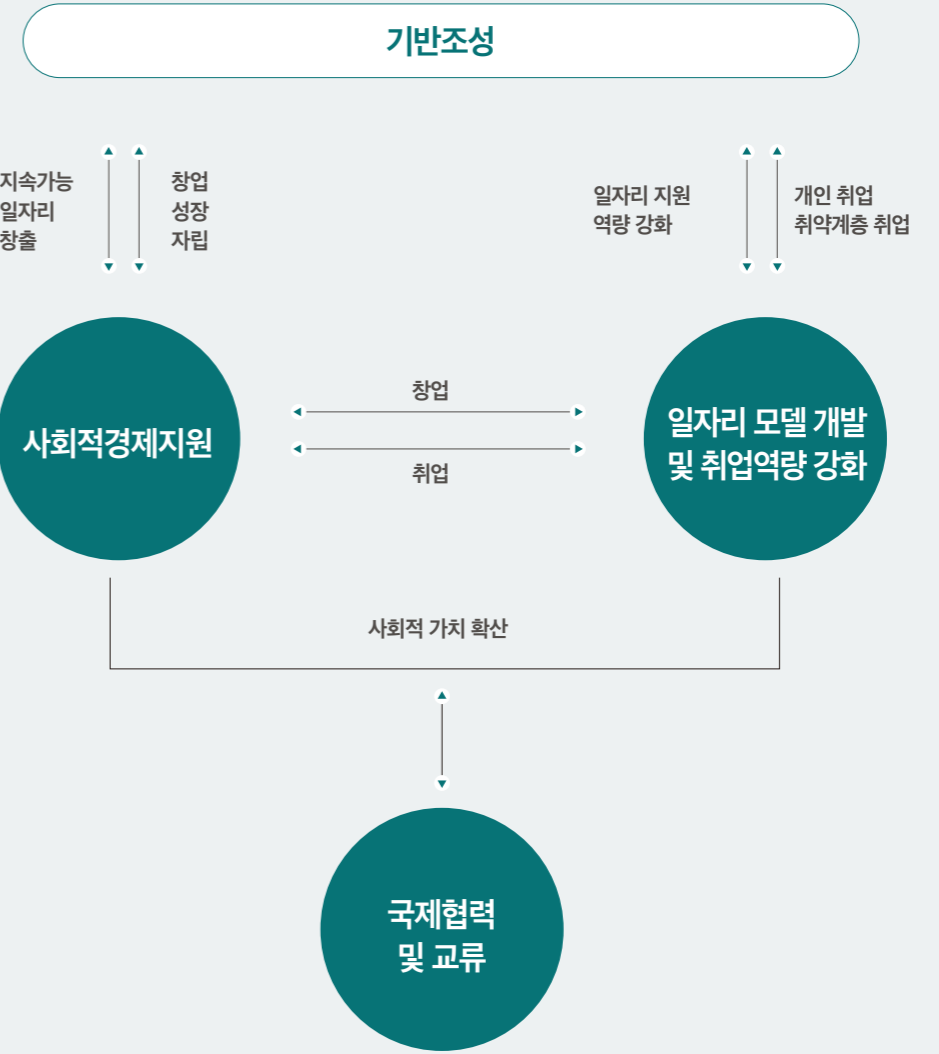
AI시대에 인간 노동 가치를 복돋는 역할을 기대하며

빛의 속도로 급변하는 지금의 인공지능(AI)의 시대에서 인간 노동의 개념은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이라는 개념이 지적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없고 혹은 인공지능도 가능하지만 인간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혹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업무가 가능한 일만이 인간 노동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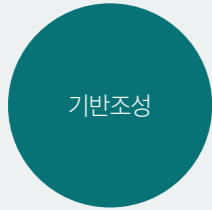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청년 개개인이 자신의 지적 창조성을 자유롭게 발굴하고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기존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새로운 AI 인재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자영적 취로자(自營的 就勞者)로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재단이 앞장 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PART 2

테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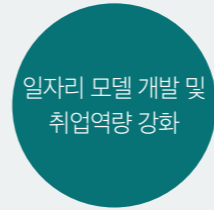


사업 목적별 리스트



대한민국은 제조업 등 2차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재단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도입을 추진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기별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 (재)다솜이재단 무료간병서비스 사업
-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2014)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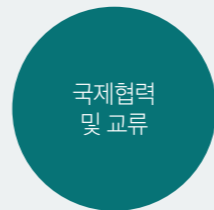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재단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 개발 및 고령층 특성에 맞춘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고, 청년층을 교육하여 기존에 없던 시장을 형성하도록 지원했다.

- 시니어비즈니스 기금 사업
- 공항 포티케어 서비스
- 특성화 고교생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
- Hello New() World



사회적경제기업은 자본금, 시설비, 기술, 경영 인력의 부족과 수익확보의 어려움, 독자적인 법적 구조 등으로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로 이어진다. 이에 재단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창업육성-성장지원-금융 지원-국내외 판로 개척지원사업을 벌였다.

- 창업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 성장지원: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 금융지원: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 국내외 판로 개척: 가치가세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가치가세 가치그린 세(SE)상, 사회적경제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가고 있다. 재단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로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경험과 기업을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

사업 시기별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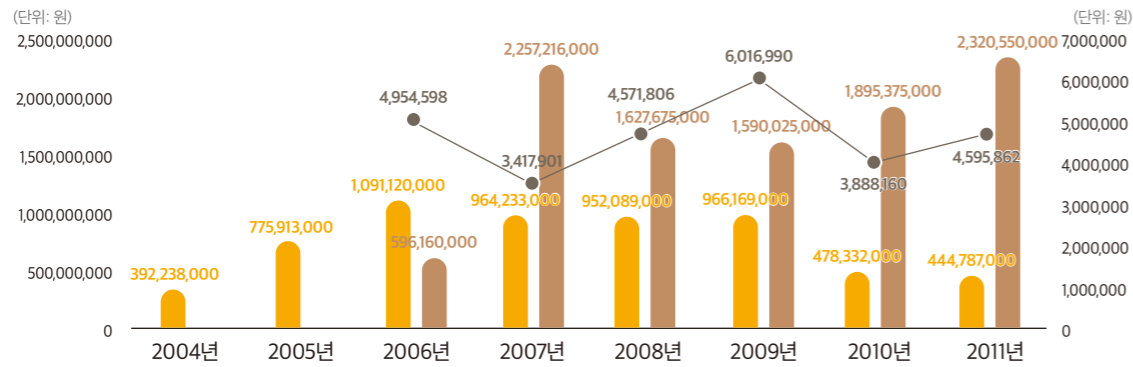


(재)다솜이재단 무료간병서비스 사업

다솜이재단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모델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빈곤계층 대상의 무료간병사업과 일반인 대상의 질 높은 유료간병사업을 병행해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기업의 영리 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했다. 다솜이재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에 영향을 주는 등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도입의 기반을 닦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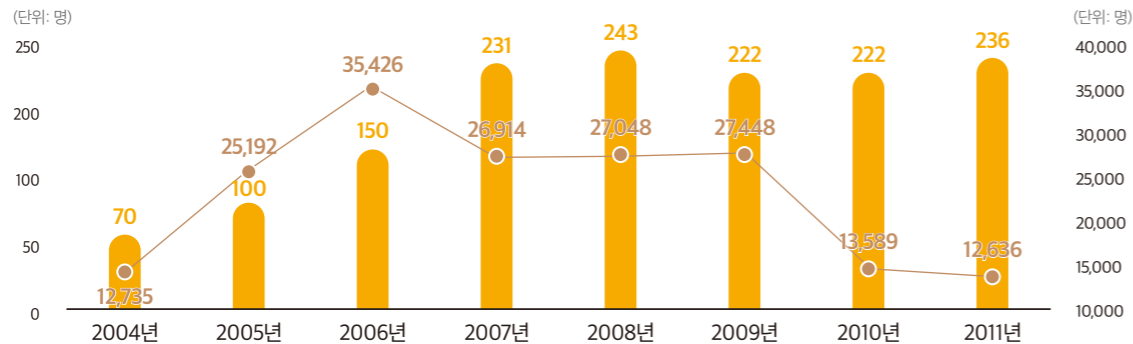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가치



* 2006년부터 환자 가구에 제공한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시작

● 양성 간병인 수 및 수혜인원



* 2010년부터 유료 간병 서비스 전환으로 인한 무료 간병 서비스 수혜인원 감소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사업 전환 일환)

사회적기업 1호 인증 2007년 12월
(고용노동부)

사업 수상내역 1회
(피터드러커 혁신상 '사회적기업 부문 최우수상')

● 인터뷰

안재웅_함께일하는재단 前 상임이사

Q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이 발족하게 된 당시 상황은 어떠했나?

간병봉사단은 재단과 교보생명, 정부에서 모두 크게 관심을 기울인 사업이었다. 교보빌딩 23층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직접 축사를 할 정도였다. 정부에서는 노동부 차관이, 재단에서는 강원웅 이사장과 내가 참석했다. 2007년 1월에 사회적기업육성

법이 제정되고 7월에 시행령이 발동되면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인증위원회가 꾸려졌다. 다솜이재단이 1호, 아름다운가게가 2호, 안심이 3호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2007년에 36개 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 매우 까다로운 인증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곳이 36개라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더불어 다솜이재단이 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는 점도 매우 자랑스럽다.

Q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던 차별성은 무엇이었나?

간병인들 중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 이들이 많다. 이런 이들이 보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간중심적인 마음에서 출발했다.

그들을 먼저 잘 케어하고, 잘 케어 받은 간병인이 다시 환자를 잘 케어 하도록 하여 인간애가 확산되도록 한 것이 사업의 전부였다. 인간에 대한 예우가 퍼져나가기 바랐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이걸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일자리 창출은 그 다음이었다. 인간사랑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의 기본 취지였고, 그 마음은 현재의 다솜이재단사업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다솜이재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간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증장애인에게 훈련을 제공해서 간병사가 보조원으로 일하도록 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도 만들었다. 이 역시 인간애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SEW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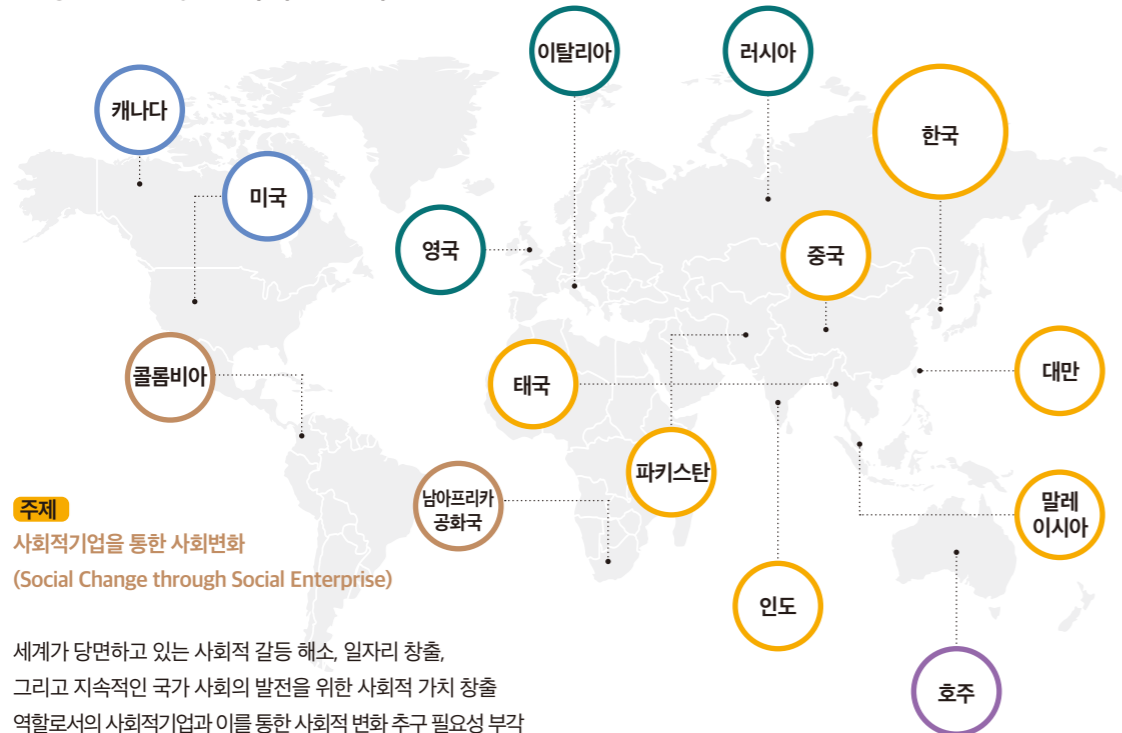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Asian Social Entrepreneurs Summit(ASES)

재단이 주최한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는 매력적인 기회의 장이다. 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 지원사업 경험 등을 나누고 나아가 국제적인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재단은 2008년부터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며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고 아시아지역 사회적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 SEWF 2014 국가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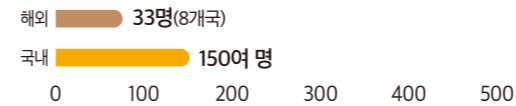
주제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
(Social Change through Social Enterprise)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로서의 사회적기업과 이를 통한 사회적 변화 추구 필요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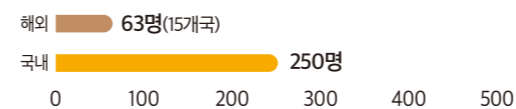
부제
사회혁신, 사회통합, 사회투자

● 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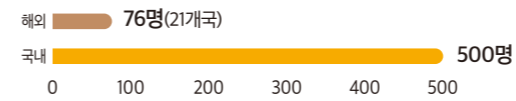
[2008 1회] We are Social Entrepreneurs in ASIA



[2010 2회] 아시아 빈곤과 사회적기업가의 역할: 아시아 변화의 물결



[2012 3회] 아시아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 인터뷰

변철한 SEWF 2014 조직위원회 기획실장

Q SEWF 2014 유치를 통해 어떤 효과가 발생했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초기의 사회적기업 유형을 IT나 지역사회 개발 등의 다양한 모델로 확대하려는 목표가 있었고, 실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재단 입장에서도 설립 초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미션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SEWF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유형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사회적경제의 저변도 확대되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SEWF 2014 규모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회에는 학생, 정부 정책 관계자, 기업 사회공헌활동 관계자도 많이 참석했는데, 특히 학생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컸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일자리는 줄어들 테고, 일의 형태도 바뀔 것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는 소득을 소비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돈을 써가면서까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사회적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더욱 커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를 통해서도 영리를 추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는 비영리 목적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사회적 필요에 맞는 사업 활동을 하려고 한다. 개인도 이런 방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주류 경제는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밖에도 경제 활동 범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업이나 취업을 고려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SEWF 2014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유효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2020년대 가속화하는 디지털 대전환은 일의 기본 개념을 바꿔놓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고, 늘어나는 플랫폼 일자리는 질적 열악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춘 새로운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에 최초 적용했다. 디지털 전환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일-사업의 형태가 천차만별로 다각화한다는 점이다. 재단은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디지털 전환기에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빠른 네트워킹과 모듈화한 사업 전개 등을 대표적인 전략으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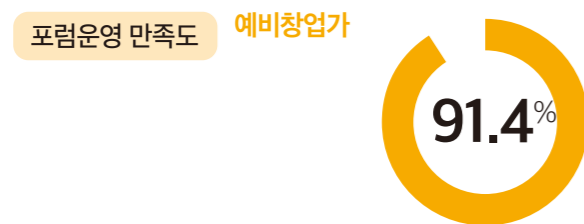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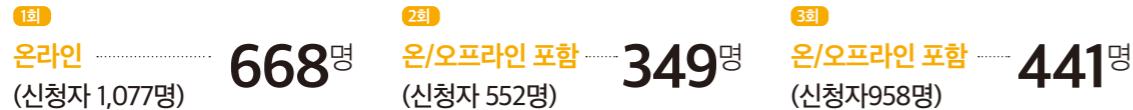
● 함성소리

(예비)창업자에 실제 적용 가능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클리닉, 사업 솔루션 제공사업



● 인스파이어드 포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상 조명 및 창업가들의 극복사례 인사이트·지식 공유 포럼



● 플래그업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물론 국내 취약계층의 회복과 극복,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토론의 장을 통해 가치와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는 사회 혁신 플랫폼 사업



● 인터뷰

남보라(예비) 사회적기업 보라도리 대표

Q 재단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나?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지원으로는, KPI를 설정하고 달

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멘토링 연결을 지원받았다. 사회적기업 관련 행사도 많았다.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연결해준 일도 있다.

Q 재단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내 꿈이 창업이었기 때문에 도전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각자 하고 싶었던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응원해드리고 싶다. 창업도 힘들지만 창업 이후로도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팀 빌딩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궁금한 건 많은데, 물어볼 곳이 없었다. 그런데 함께일하는재단 함성소리(구글닷오알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창업기업의 후속지원 프로그램)에서 창업 이후의 과정을 하나하나를 다 알려줘서, 굉장히 만족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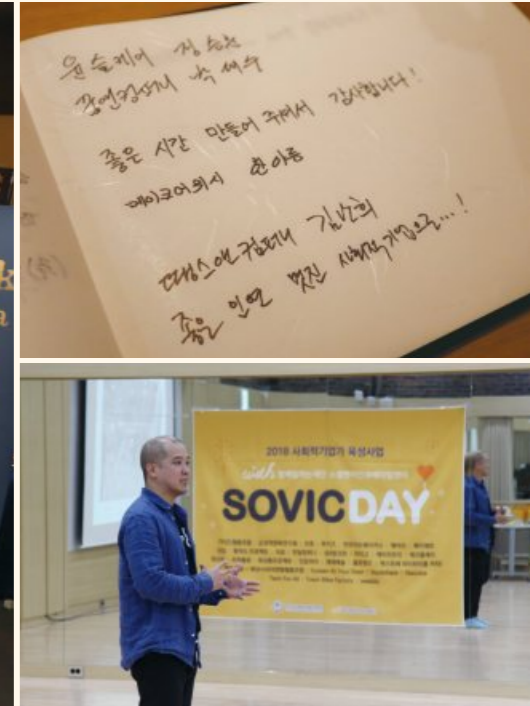
1차 포럼 온라인 참가자

Q 이번 포럼이 유익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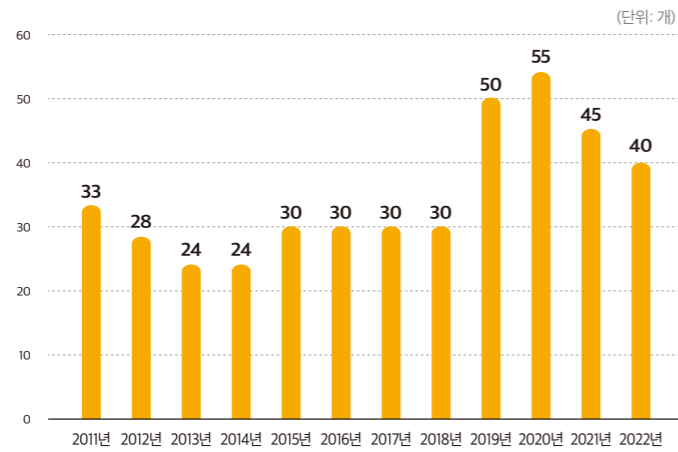
예비 창업가로 살다보니 정부지원을 받고 제안서를 쓰면서 정작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열정과 저의 미션을 깜빡할 때가 있다. 내가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해준 포럼이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나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영감을 받았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 시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재단은 창업부터 성장, 발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경제가 정착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단은 우수한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자금과 공간은 물론이고 재무·노무·세무·법무 컨설팅과 사업 아이템의 개발과 상품화에 대한 멘토링 등 총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설립했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기업 수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148개

사회적기업 인증 18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총 참여기업 수 475개

●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비전	중기 목표	핵심가치
최고의 코칭 역량을 보유한 소셜벤처 전문 인큐베이팅센터	누구에게나 설득 가능한 소셜미션과 지속가능한 영입이익 창출이 가능한 성공적인 소셜벤처 모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Passion 2 Innovation 3 Communication

● 인터뷰

이원재 _ 경기도지사 정책비서관

Q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지만 청년실업 등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의 실업문제는 일자리의 개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 것 같다. 첫째, 충분히 질 높은 일자리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안정성이나 처우 측면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둘째,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이 많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특히 그렇다.

Q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인증과 관리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도 많은데, 사회적 가치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앞으로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의 구현이다. 환경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 활동,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혼자 활동하는 1인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도록 지

원하고, 1인 기업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고, 1인 기업과 큰 기업 또는 좋은 벤처기업의 연결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

김태현 _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장

Q 진흥원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회적경제에서 라포 형성(상호신뢰에 기초한 공감대 또는 협력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한다.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풀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에는 검증과정에서 좌충우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멘토가 밀착해서 코칭을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된다.

Q 사회적기업의 정착화과정에서 함께일하는재단의 역할 또는 기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흥원은 공공과 민간 사이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비어있는 부분도 많다. 함께일하는재단은 그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공공은 어느 정도 정해진 테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지원 범위도 한정적이다. 함께일하는재단에는 유연성이 있다.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듯 앞으로도 공공에서 100% 채울 수 없는 취약점을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잘 공략하여 해결하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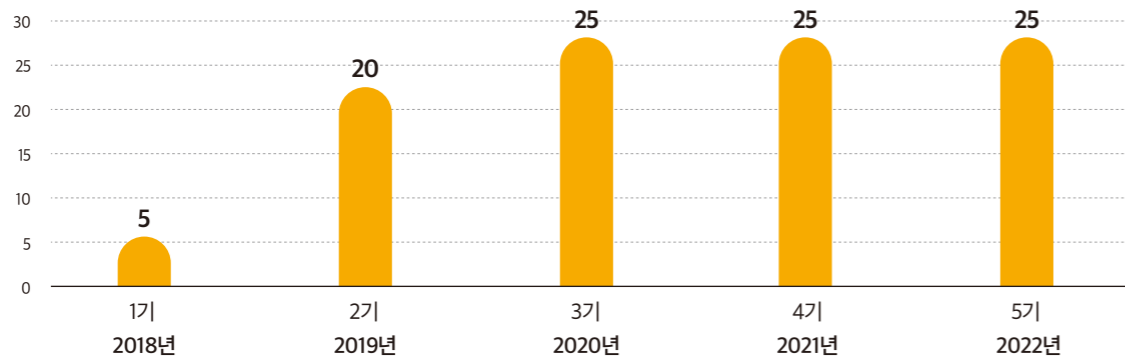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과거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이나 컨설팅을 단발성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재단은 개별적인 소셜벤처 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지원사업을 추진했다. 5년간 100개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을 육성하면서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체적인 생존력을 갖추도록 도모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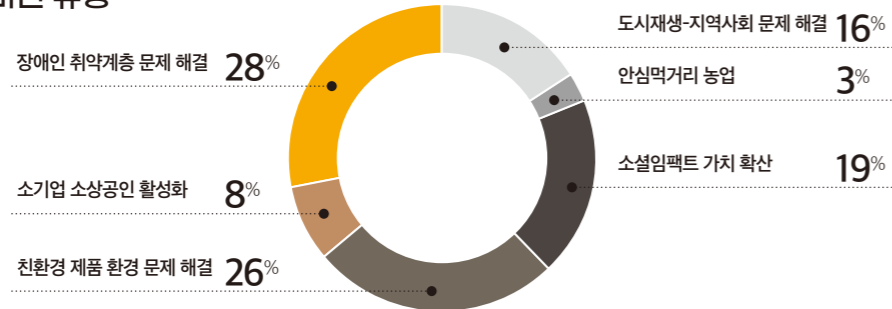


●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 수

(단위: 개)



● 소셜미션 유형



판로연계	83건
홍보지원	1,413회 지원
일자리 창출 수	292명
지원기업 수	100개
총 사업비	4,300,000,000원

● 인터뷰

임주영 MG새마을금고중앙회 ESG금고경영지원부문직할 사회공헌부 차장

Q 재단과 함께한 사업 만족도는 어떤가?
 별점으로 치면 다섯 개 만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처음 재단과 협약을 맺으면서 가장 기대한 부분은 사회적경제조직·일자리 지원 등 MG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생소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했는데, 해당사업팀장을 비롯한 담당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활약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2018년 당시까지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진행하던 사회공헌사업은 1회성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재단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소셜 성장지원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재단과의 파트너십 덕에 생겨난 변화다.

Q 함께일하는재단과의 협력사업을 모색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무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원으로서 MG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TF 활동 및 연구와 다른 기관 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특화된 함께일하는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어 2018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5년째 파트너로 함께 호흡하고 있다.

Q 소셜 성장지원사업의 결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길 바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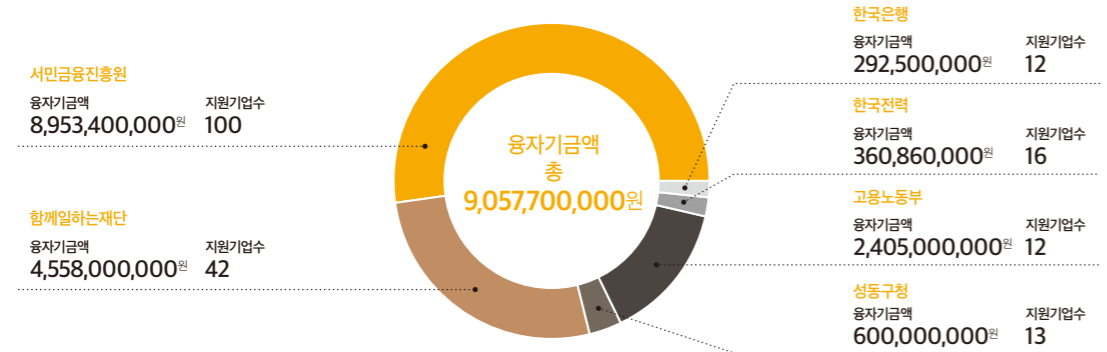
100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하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재단이 좋은 조력자로 지원기업들을 도와주기 바라고,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도 더 단단한 파트너십을 맺어가길 꿈꾼다.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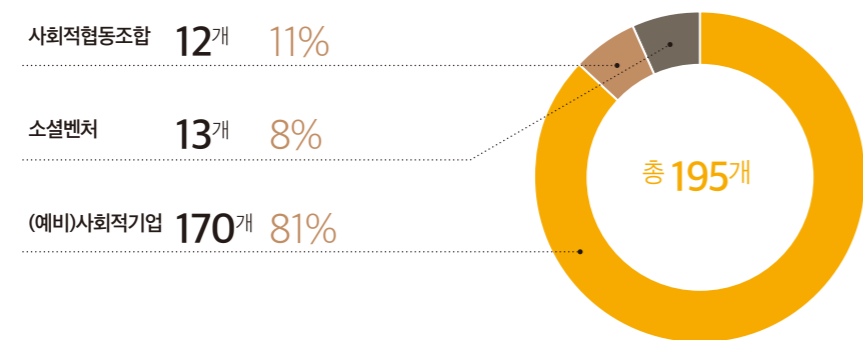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투자 유치나 수익확보가 어렵다. 기업의 담보 및 신용능력이 취약해서 일반 금융시장이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재단은 사회적경제 영역 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융자하는 사회적금융 지원사업을 벌였다.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 역량의 총체적 강화를 꾀했다는 점이 재단 사회적금융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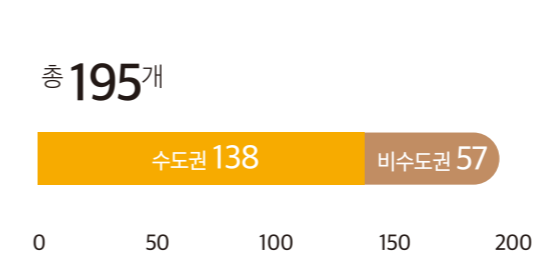
● 자원별 용자기금액



● 유형별분포



● 지원기업 지역별 분포



● 인터뷰

신철호_상상우리 대표

Q 2015년에는 재단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대부사업에도 참여했는데 그 배경은 어떤가요?

사회적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상상우리는 그 자금으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기술을 가진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처럼 서비스를 지원

하는 회사는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회사의 성장 단계에서도 자금은 계속 필요한데 조달 방법은 마땅치 않다. 상상우리도 당시에는 역량을 검증받은 단계가 아니어서 일반 은행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금융사업이 있다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금리가 낮아서 부담도 적었다.

Q 실업대책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재단과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방향성은 같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생태계는 비영리단체나 정부, 대기업이 혼자 조성할 수 없다. 함께일하는재단 같은 비영리기관에서 방향 설정을 서포트하고, 자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해줘야 한다. 자금지원 등을 통한 대기업의 협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모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Q 상상우리에 재단은 어떤 파트너였나?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2013년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선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회적기업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육성사업의 선정 여부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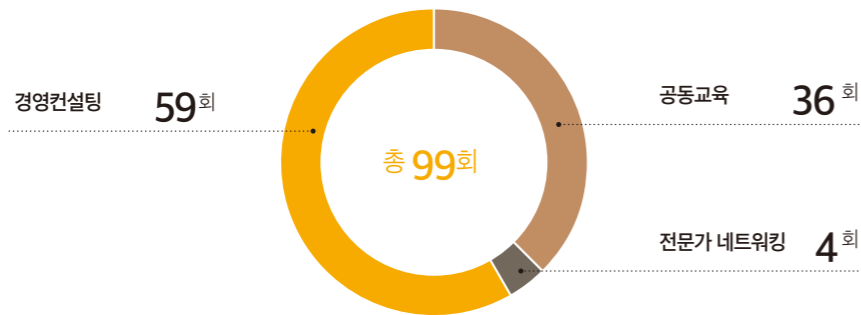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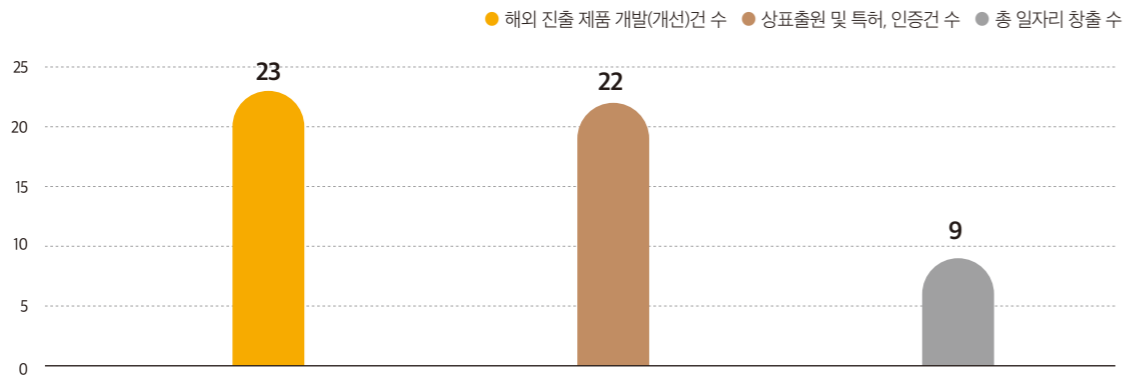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이후로도 힘들 때면 재단은 사회적금융 지원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상상우리에게 함께일하는재단은 친정이나 다름없다.

가치가세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2010년대 후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도 악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매출 부진을 만회할 대안이 절실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소기업은 해외판로를 개척할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재단은 가치가세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지원기업 성과



수출액 950,000\$

지원규모 총 12개 기업

해외 진출 (온/오프라인)기업 112개

총 사업비 1,000,000,000원

● 인터뷰

심영민 주식회사 제이사 대표

Q 사업에 참여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원사업 참여 전 자사 캐릭터 '미스터두넛땀(Mr.Donothing)'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으나 사업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 시장 분석에 따른 맞춤형 해외 진출 제품을 선정하고, 이를 상품화하기 위한 과정 전반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해외 진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2021년에는 본격적인 유통 상용화를 목표로 중화권 2개국, 10개 매장 진출도 계획했다.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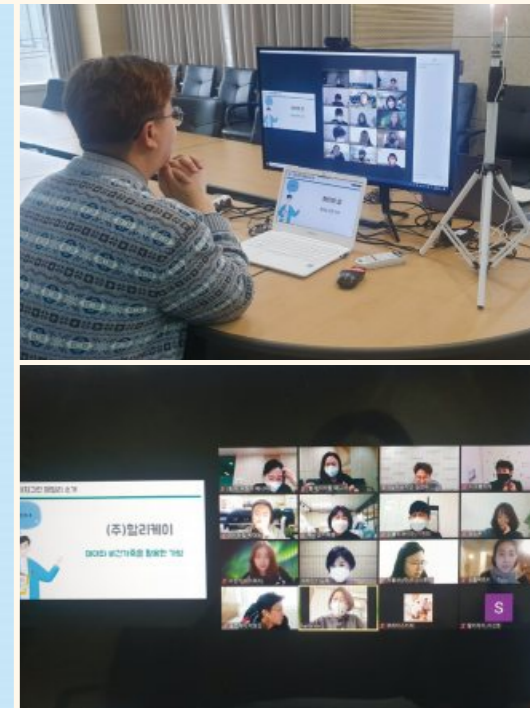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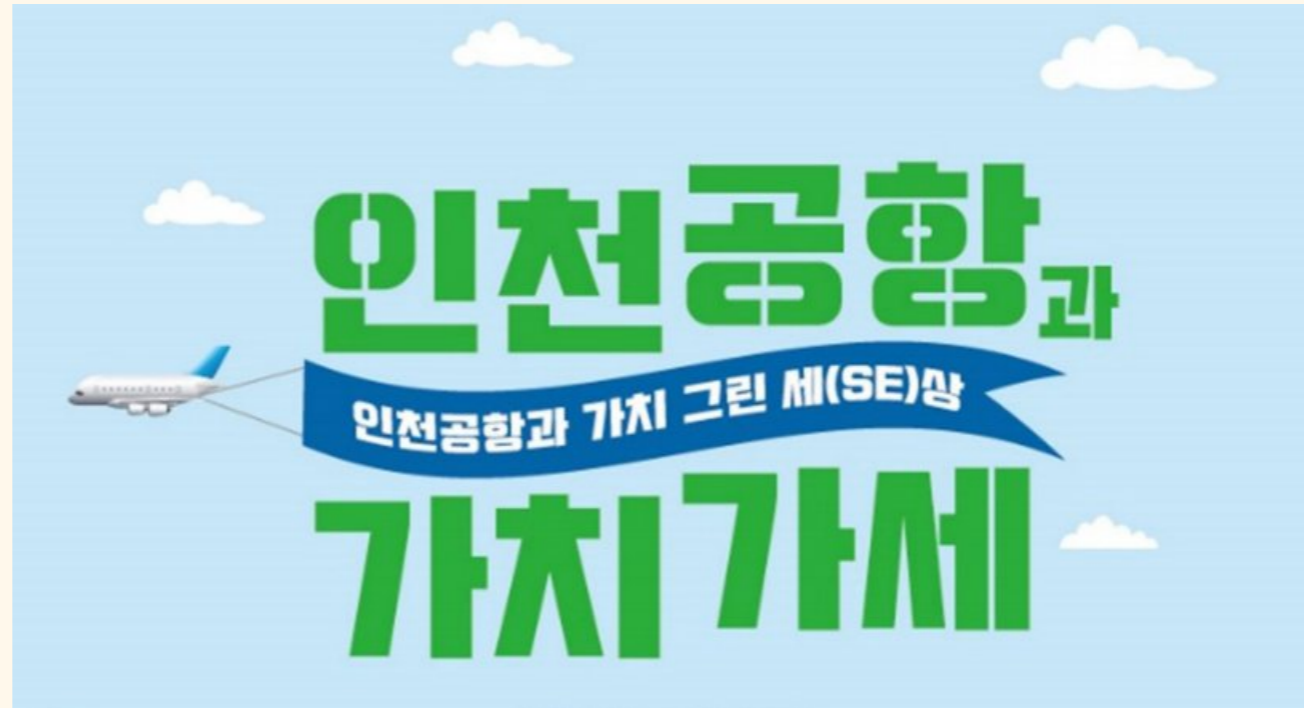
이강삼 슬로푸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대표

Q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사업 결과는 어떠한가?

2019년 말 사업을 알게 되었다. 수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라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글로벌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범위로 자금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 이 사업 덕분에 2020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진출전략을 비대면 방식으로 수정하여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신 남방시장 진출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상황에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작은 기업을 믿어 주고 큰 기회를 준 함께일하는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가치가세 가치그린 세(SE)상

가치그린 세상은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고, 상품기획이나 마케팅 등 맞춤형 성장 컨설팅과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사업역량을 높이며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도록 하여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퍼져나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참여기업 수 및 제공 컨설팅 횟수

참여기업 12개

[페이퍼팩]

• 골판지 가구 제작을 통해 일반적으로 저가 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MDF를 대체하여 MDF가 생산-폐기 단계에서 발생시켰을 환경오염 저감

[(주)위제인지]

• 재활용 나일론이 virgin 나일론을 대체하여 신규 나일론 생산에 사용되었을 플라스틱 소비 절감
• 재활용 나일론이 virgin 나일론을 대체하여 신규 나일론 생산-폐기 단계에서 발생되었을 환경오염 저감

[(주)우시산]

• 페플라스틱이 신규 플라스틱을 대체하여 신규 인형솜, 라이프박스 생산에 사용되었을 플라스틱 소비 절감
• 신규 인형솜, 라이프박스 생산에 필요한 신규 플라스틱 생산-폐기 단계에서 발생되었을 환경오염 저감

[(주)할라케이]

• 리사이클 소재 활용(커피 마대자루)
• 가족 부문 대체(비건한지 가죽)
• 대구 시니어클럽과 협업: 일자리 창출

[주식회사 엘엔제이]

• 친환경 비건 한지 가죽이 천연 소가죽을 대체하고, 커피자루 재사용을 통해 신규 마를 대체하여 소 가죽 및 신규 마 생산-폐기 단계에서 발생되었을 환경오염 저감

컨설팅 횟수 기업당 2회
(총 24회)

[주식회사 담심포]

• 천연 손뜨개실이 합성 손뜨개실을 대체하여 합성실에 쓰이는 플라스틱 소비 절감
• 천연 손뜨개실이 합성 손뜨개실을 대체하여 합성실이 생산-폐기 단계에서 발생시켰을 환경오염 저감
• 먼 무표백을 통해 일반 먼 표백과정에서 발생했을 환경오염 저감
•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촉각 만년달력 제작 및 배포

[㈜러블리페이퍼]

• 페박스/페린넨을 활용한 캔버스 제작을 통해 기존 재료인 합판 및 신규 린넨 생산-폐기시 발생되었을 환경오염 저감
•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페박스를 시세의 6배로 고가 매입하여 소득 증대

[네이크스(NAKES)]

• 매립 시 생분해되고 소각시 화학물질이 적게 나오는 선인장 가죽이 천연 소가죽을 대체하여 소가죽 생산-폐기 단계에서 발생되었을 환경오염 저감

[주식회사 브라더스키퍼]

• 공기정화식물을 통한 탄소 포집
• 공기정화식물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 보호중요야동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 교육 활동

[(주)코너스톤티엔엠]

• 바나나가루 포장 시 종이 포장으로 비닐 포장을 대체하여 비닐에 사용되었을 플라스틱 소비 절감
• 비닐 포장 생산-폐기 단계에서 발생되었을 환경오염 저감
• 공정무역을 통해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바나나를 구입하여 현지 생산자 소득 증대
• 바나나 가공 단계에서 필리핀 현지 근로자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소득 증대

● 인터뷰

기우진_ (주)러블리페이퍼 대표

Q 이번 사업을 참여하고 난 소감이 어떤가?

인천공항공과 가치그린 세(SE)상사업을 통해 러블리페이퍼의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페박스를 활용한 페이퍼 캔버스 업사이클링 DIY KIT의 환경경제적 가치평가 컨설팅으로 환경 가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수익증대 뿐만아니라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이슈를 전할 수 있었다. 러블리페이퍼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

변의현_ (주)우시산 대표

Q 사업을 참여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나?

우시산은 인천공항공과 가치그린 세(SE)상사업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성과 측정 컨설팅과 멸종위기종 상광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다.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녹인 크라우드펀딩은 개설 하루만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이른바 '돈쫄 열풍'을 맞은 펀딩은 다양한 기업, 기관들과의 협업사업으로 이어져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일하는재단과 함께 더 큰 세(SE)상을 그리고 싶다.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 다화용 면생리대가 일회용 생리대를 대체하여 일회용 생리대에 쓰이는 플라스틱 소비 절감
• 다화용 면생리대가 일회용 생리대를 대체하여 일회용 생리대를 구성하는 PP, SAP 등이 생산-폐기 단계에서 발생시켰을 환경오염 저감
• 아프리카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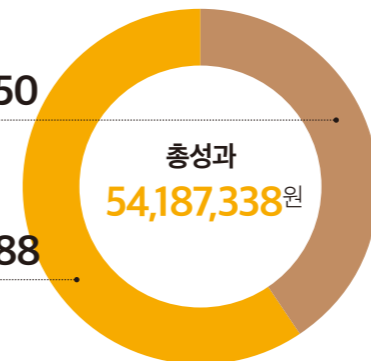
[주식회사 보틀팩토리]

• 다화용 컵 사용을 통해 일회용 컵 생산에 사용되었을 플라스틱 소비 절감
• 신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생산-폐기 단계에서 발생되었을 환경오염 저감

● 성과 가치 및 펀딩금액

환경적 성과
21,992,750

환경 외 성과
32,194,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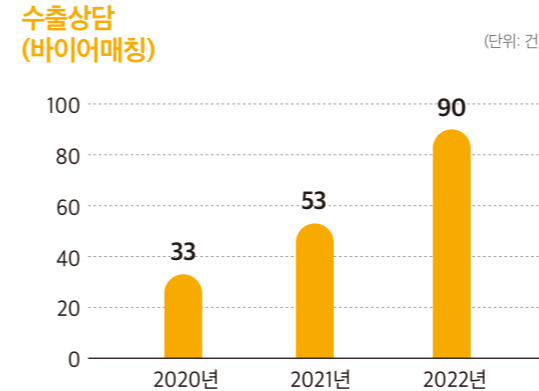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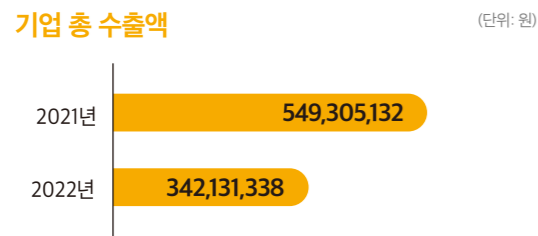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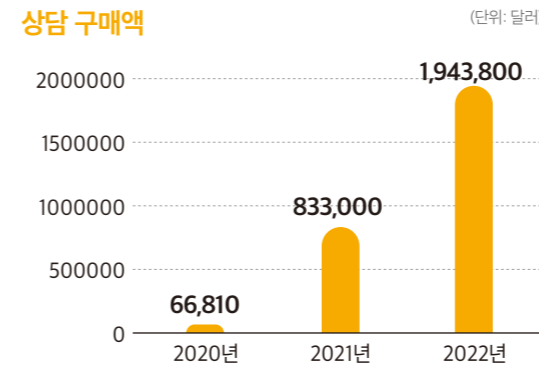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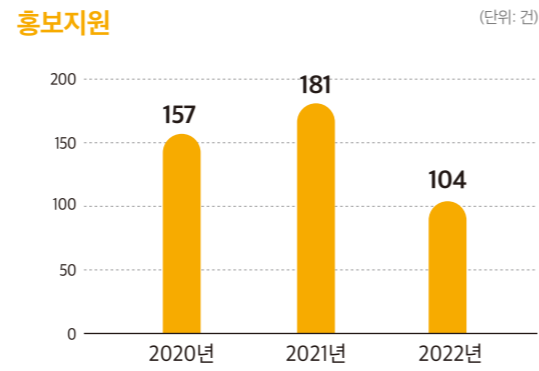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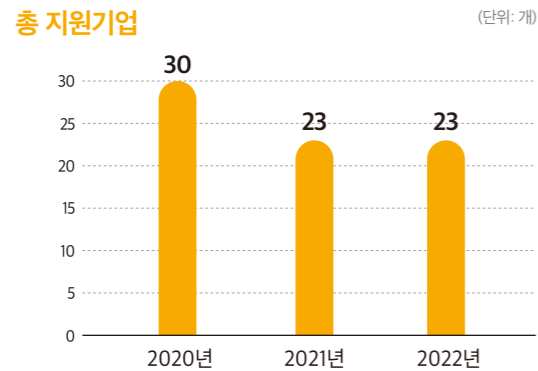
총 펀딩금액 115,642,777원

사회적경제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국내 판로확장의 한계 극복 및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으나, 대내외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출역량 강화교육, 해외 이커머스 입점지원,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제품개발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준비수준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성과



2020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완료 **23**개

2020년 입점 관련 교육시간 **90**시간

인터뷰

이현규 대표 (주)크래프터유니온 대표

Q 해외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여러 사회적기업들 및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펀딩 제품의 퀄리티를 안정화 하였고, 단가 절감을 통한 양산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싱가포르의 STYLE K 편집샵과 독점판매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해외 진출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김상연 (주)오버플로우 대표

Q 해외 진출 역량 강화교육(컨설팅)을 받고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통해 해외시장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유관기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도 선정됨으로써 해외 진출 자금 확보와 더불어 해외 진출 의지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시니어비즈니스 기금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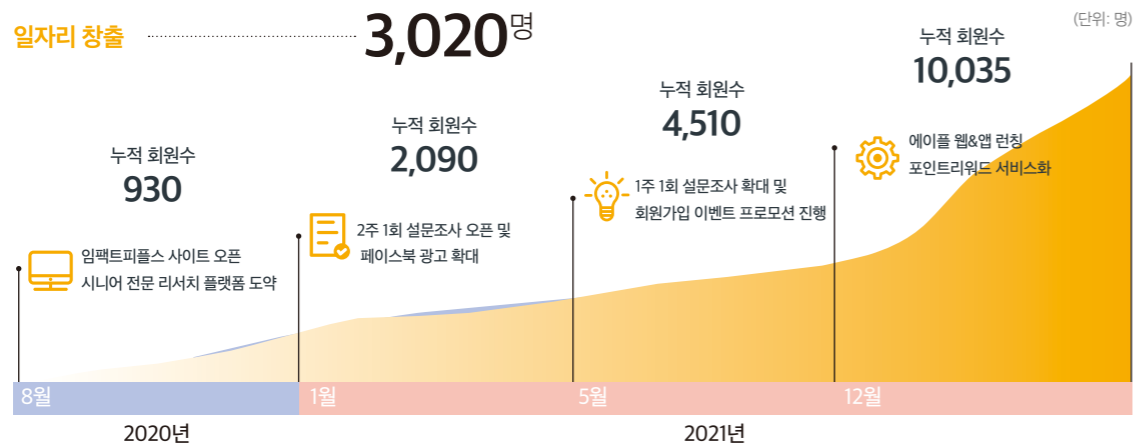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이자 문제 가운데 하나다. 재단은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액티브 시니어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니어가 액티브 시니어로 거듭나는 새로운 직업으로 시니어케어 매니저를 개발했다. 시니어케어 매니저는 시니어 스스로 시니어를 돕도록 하는 새로운 일자리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통해 시니어는 경제적 자립은 물론 노년기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 기업 설립 등 재단의 지속가능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 노력은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자리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시니어케어 매니저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

수혜기관	505개	수혜 치매노인	210,380명
일자리 창출	238명	양성교육 누적제공시간	96시간

● 소셜시니어벤처 지원사업



● 소기업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지원기관	38개
일자리 창출	408명
생활용품 아이템 개발	71개

● 인터뷰

손승우_유한킴벌리 지속가능부문 전무

Q 유한킴벌리가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는 무엇이었나?

유한킴벌리는 함께일하는재단의 힘을 얻어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니어 용품을 개발하는 작은 기업 육성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그러기 위해 2단계로 구성된 액티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했다. 액티브 시니어 대국민 캠페인과 노인 관련 소기업 육성 사업이 1단계, 시니어케어 매니저 육성사업이 2단계에 해당한다.

노인용품을 개발하는 작은 기업의 육성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의 새로운 개념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

Q 시니어사업의 파트너로 함께일하는재단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그 선택에 만족했나?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께일하는재단이 가진 전문성과 열정을 느꼈고, 기대하는 성과도 상당 부분 창출할 수 있었다. 아직 기반이 약한 시니어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소기업들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시니어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했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까지 더하면서 10년을 함께할 수 있었다. 책임감 있는 훌륭한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Q 함께일하는재단과 더불어 시니어사업을 진행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한 앞으로 시니어사업은 어떻게 발전하다고 보나?

시니어산업생태계가 세상에 뿌리를 내렸다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액티브 시니어나 시니어 산업, 시니어 제품 단어는 쓰이고 있다.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싹은 돋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성장해서 숲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니어에게 일자리란 삶이자 건강이자 기쁨이자 만남이다. 좀 더 액티브하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일하는재단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공항 포티케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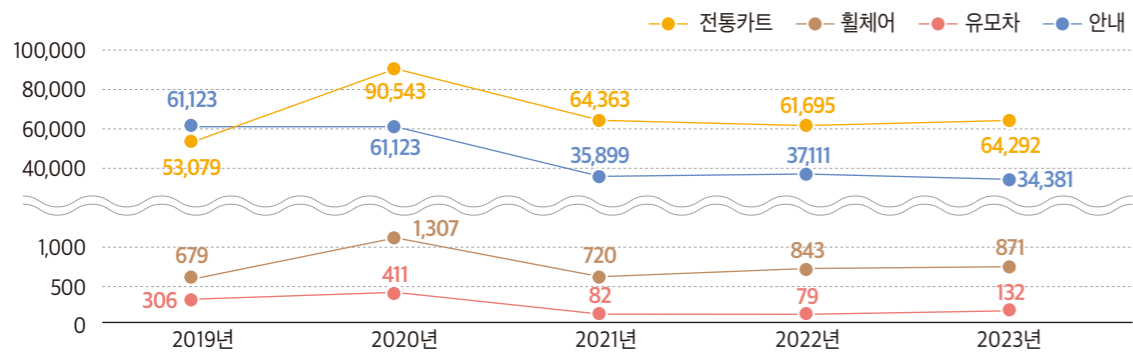
포티케어 서비스는 공항 내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움직임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복합적 임팩트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자간 협력 구조 구축을 통해 복합적 임팩트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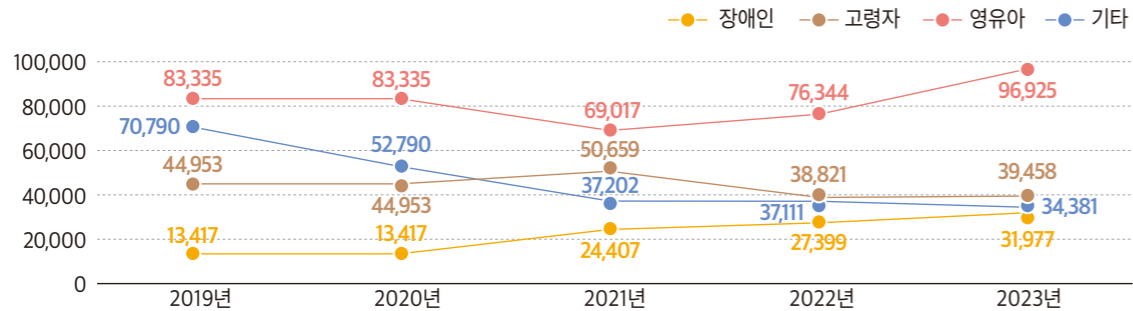
● 서비스 제공건 수

(단위: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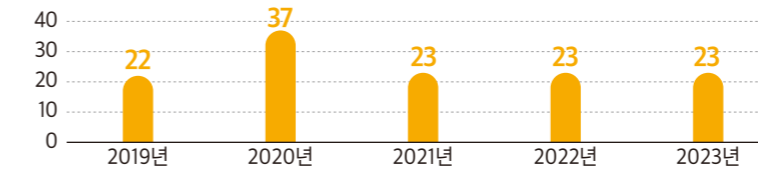


● 서비스 수혜인원

(단위: 명)



● 고용인원



총 인원 128명

● 인터뷰

원영오_리베라빗 대표

Q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해주는데 고객분들의 반응이 어떤가?

사업 초기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보고 좀 의아하셨던 것 같은데 부모님 같고 할아버지 같아서 그런지 친절하게 대해준다.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행에 대한 설렘을 안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으셔서 상호 간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는 것도 같다.

Q 시니어 직원이라서 좋은 점은 어떻게 있을까?

시니어는 드러나지 않아도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는 재능과 경험을 발휘해오셨던 분들이다. '일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 있고 방법을 보유하고 있어서 업무 적응

력이 무척 빠르다. 또한 '은퇴'를 경험한 분들로서 지금의 일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서비스'를 제 2의 인생이자 사회봉사로 접근하는 태도가 뚜렷하다. 이것이 여행을 떠나거나 마치고 돌아오는 고객분들에게도 전달되는지, 만나고 응대하는 관계 안에서 행복함이 전파되고 나눠짐을 느낀다.

Q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포티케어 서비스가 어떻게 기억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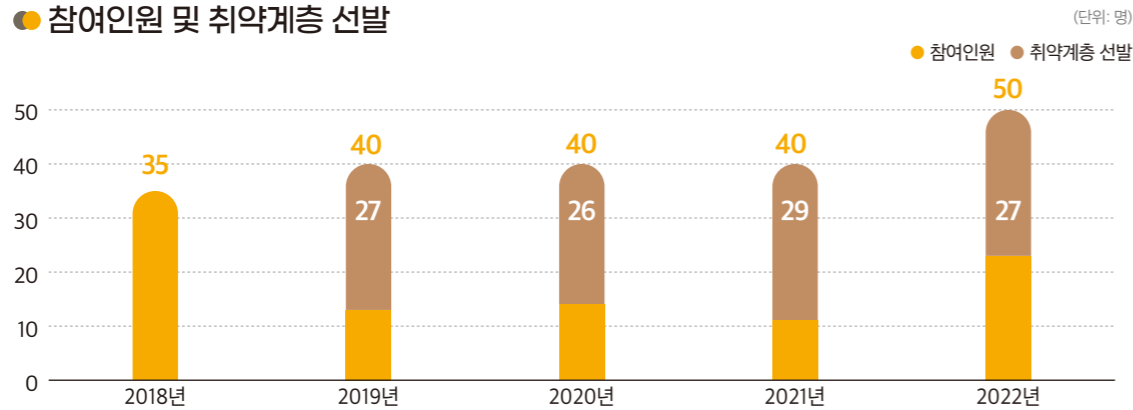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서비스로 기억되면 좋겠다. 사실 노화뿐 아니라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우리 모두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면 더욱 친절한 서비스로 찾아뵙겠다.

특성화 고교생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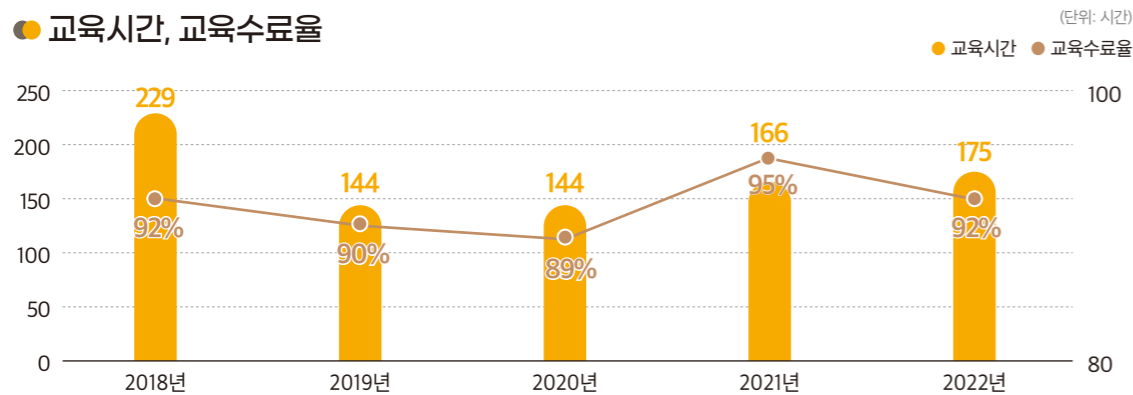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취업교육에도 사교육의 영향력이 증대했다. 재단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자격증 취득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시대적 변화에 맞춰 학생들의 정보보안 능력을 강화하여 화이트해커로 양성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실무 전문가 멘토링과 해커톤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전 역량 향상을 도모한 재단의 사업 방향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화상교육 및 대회로 탈바꿈되어 전국의 모든 특성화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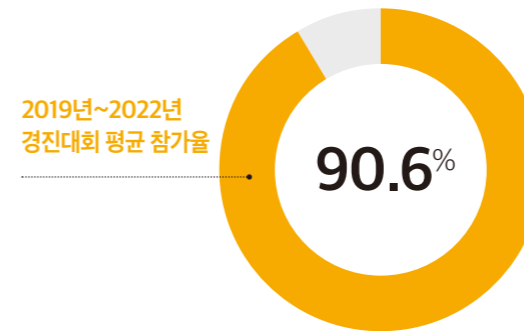
● 참여인원 및 취약계층 선발



● 교육시간, 교육수료율



● 교육 수료자 중 경진대회 참가율



● 인터뷰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 참가자 설문 응답자

Q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소감이 어떤가?
교육 커리큘럼과 대회 준비 및 진행이 원활하여 교육 수강 및 대회를 참가하며 관련 진로를 간접 경험하고 체험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여러가지 해킹에 관한 넓은 교육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임도현_참여자

Q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한 소감이 어떤가?
이번 사업을 참여한 덕분에 저의 정보보안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대오토에버사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실력을 키워 훌륭한 해커로 거듭나면 좋겠다.

김동연_참여자

Q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함께일하는재단과 현대오토에버가 운영하는 '화이트해커 양성교육'의 지원자 모집 소식을 학교에서 듣고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됐다.

Q 학교 수업과 병행해야 하는 교육이라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

내가 원했던 교육이고, 재미있어서 병행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았다. 휴식시간에 놀이하듯 즐기면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교육이 주말에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숙학교라는 특성상 수업을 들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난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와 장소를 빌리고, 화상카메라를 켜기 위해 매번 교실 가장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함께일하는재단과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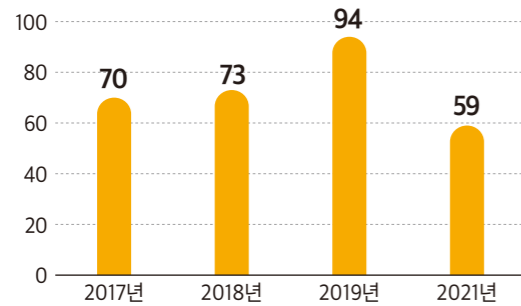
Hello New() World

Hello New() World는 고등학생들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해커톤대회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사회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내면, 대회 기간 동안 멘토가 아이디어를 구체화도록 돕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된다. Hello New() World는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주기도 하지만, 창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진로 옵션을 부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회적 가치 발굴과 IT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종합해서 미래형 일자리를 탐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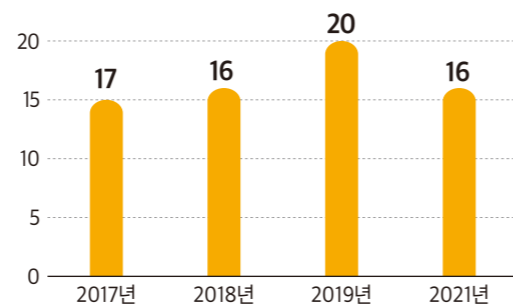
● 참여인원

(단위: 명)



● 참여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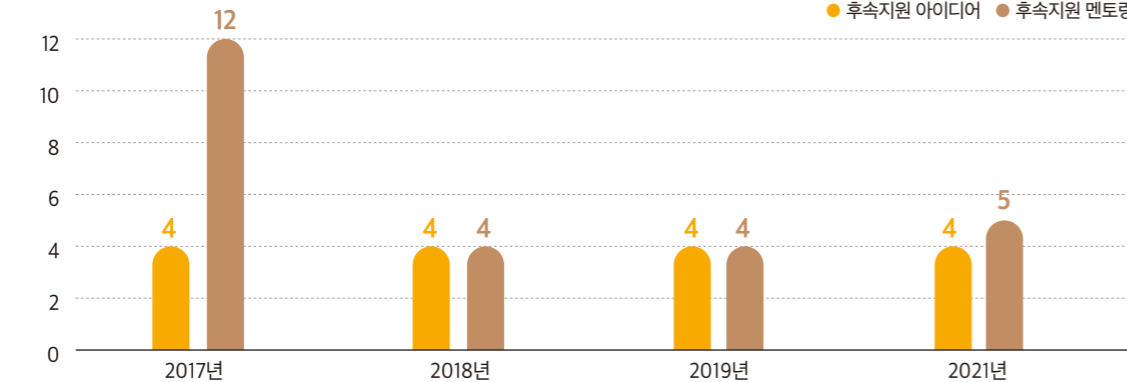
(단위: 개)



● 후속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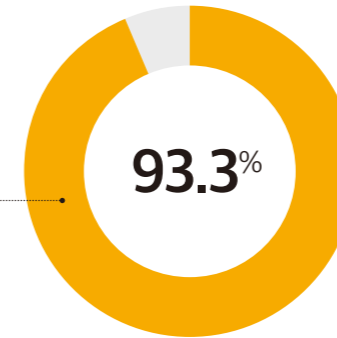
(단위: 개)

● 후속지원 아이디어 ● 후속지원 멘토링



● 만족도

2017년 ~ 2021년
평균 사업 참여
만족도



● 총 후속지원 아이디어 및 금액

총 후속지원 아이디어 16개
총 후속지원 금액 29,287,121원

● 인터뷰

이우진_참여자

Q 해커톤대회에 참가해본 소감이 어땠나?

이번에 직접 사회문제를 찾아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_참여자학교

Q 이번 대회를 참가해서 어떤 도움이 됐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실제 고민했던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기획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확장될 수 있었고 대회에 참여해 자신감이 생겼다.

최혜인_비즈니스 멘토

Q 해커톤대회에 참가한 멘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고도화하는 과정이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대회에서 멈추지 말고 주변의 사회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잘 간직하여 훌륭한 인재로 나아가길 응원하겠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Smile Together Partnership(STP)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국경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 활동을 결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범위 역시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넓어지는 추세다.

재단은 2011년 'SBS희망 TV' 캠페인을 시작으로 개인 기부, 후원금으로 빈곤아동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환경 등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성과 지표



구분	지원기간	일자리 창출 (직접고용)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부양가족	빈곤아동 지원	지역리더십 육성	지역사회기여 프로젝트 수	지역사회기여 프로젝트 수혜자 수
STP 1기	2011~2013	441	82	108	2,249	219	16	2,532
STP 2기	2013~2015	561	-	748	3,420	2,083	21	40
STP 3기	2015~2017	1,689	1,488	1,915	33,832	13,371	25	87
STP 4기	2016~2018	111	6	249	2,531	463	43	-
STP 5기	2017~2019	1,198	939	2,180	16,821	4,392	76	23
STP 6기	2018~2020	2,116	1,714	10,853	8,990	3,096	96	1,403
STP 7기	2019~2021	338	80	622	1,594	892	74	1,255
STP 8기	2020~2022	229	688	2,863	5,599	1,068	57	4,644
STP 9기	2021~2023	195	87	546	42,715	1,047	19	2,844
계	-	6,878명	5,084명	20,084명	117,751명	26,631명	427건	12,828명

● 인터뷰

Della_STP 지원기관 자바라 아카데미 수혜자

Q 사업에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떠하냐?

STP의 지원을 받은 자바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 음식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모든 이들은 나에게 두 번째 가족이며,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M.S(Dao의 엔젤)_STP 지원기관 Dao Ethical Gifts

Q 사업을 통해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

Dao는 여자로서의 삶을 더 좋게 변화 시켜 주었다. Dao를 통해 비닐밭에 대한 나의 창의력과 적성을 발견함으로써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다. Dao를 알기 전 나는 미혼모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음식과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행복하다.

PART 3

부록



- 01. 역대 임직원 명단
- 02. 재단현황

- 03. 주요 통계 데이터
(각 사업별 현황, 실적 등)
- 04. 숫자로 보는 재단 20년의 성과
- 05. 주요 연표

- 06. 파트너기관 리스트

- 07. 정관



n1

역대 임직원 명단

역대 이사장

1대 故 강 원 용 (전)이사장



기본사항

생년월일 : 1917년 7월 3일(2006년 8월 17일 소천)

학력

1948	한신대학교 신학 학사	1962	매니토바대학교 신학 명예박사
1954	매니토바대학교 조직신학 학사	1994	원광대학교 철학 명예박사
1956	유니언신학대학대학원 신학 석사	1995	이화여자대학교 문학 명예박사
1957	뉴스쿨대학교 대학원		

교계 경력

1957~1986	경동교회 담임목사	1970~1974	아시아 기독교사회운동기관협의회 회장
1986~2006	경동교회 명예목사	1972	세계 기독교사회운동기관협의회 회장
1964, 198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1973~1977	아시아기독교협의회 회장
1966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회장	1984	세계종교평화회의 한국위원장
1966~1967	한국종교인협회 회장	1994	세계종교인평화회의 공동의장
1968~1973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1965~1996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1968~1975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중앙위원	1996~2000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사회 경력

1962~1967	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	1998~2006	대통령자문기구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장
1987~1988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장	1998~2000	통일공동회의 의장
1988~1991	방송위원회 위원장	2000~2006	대화문화아카데미 명예이사장
1997	세계연극제 대회장	2000~2006	평화포럼 이사장
1998~2003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	2003~2006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이사장

포상내역

1969	국민훈장 모란장	2000	제17회 니와노평화상
1972	국민훈장 동백장	2002	제6회 만해평화대상
1988	국민훈장 청룡장	2004	파라디스상
1997	한신상	2006	국민훈장 무궁화장

2대 故 송 월 주 (전)이사장



기본사항

생년월일 : 1935년 4월 16일 (2021년 7월 22일 열반)

법명 : 태공 월주(太空月珠)

성명 : 송현섭

학력

1955	정읍농림고등학교 졸업	1998	중등교 명예졸업(47회)
1969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2016	중앙승가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 취득
1996	원광대학교 대학원 명예철학박사 학위 취득		

교계 경력

1961 ~ 1974	금산사 주지, 전북총무원장, 금산상업중·고등학교 이사장	1988	10·27법난진상규명추진위원회 대표
1965 ~ 1967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	1990 ~ 2021	금산사, 영화사, 실상사 조실
1968 ~ 1974	학교법인 동국학원(동국대학교) 이사	1992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1966 ~ 1981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제2대, 3대, 4대, 5대, 6대)	1994 ~ 1998	조계종 총무원장(제28대)
1978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제5대)	1995 ~ 1998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1980	조계종 총무원장(제17대)	1995 ~ 1998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1988 ~ 1994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9대, 10대)	2017 ~ 2021	조계종 원로의원

사회 경력

1988 ~ 1990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1998 ~ 2003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
1989 ~ 199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8 ~ 2021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장
1990 ~ 1995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2004 ~ 2021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1996 ~ 1998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겸 이사장	2006 ~ 2021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1996 ~ 200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겸 이사장		

포상내역

2000	국민훈장 모란장	2012	제16회 만해대상(평화부문)
2005	조계종 포교대상(종정상)	2013	미안마 최고작가(사따마 조디까다자) 수훈
2010	제1회 민세(안세홍 선생)상	2013	제11회 대원상 포교대상
2010	캄보디아 국왕 훈장	2017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로패
2011	국민훈장 무궁화장		

n1

역대 임직원 명단

현 이사장

3대 이 세 중 이사장

기본사항

생년월일 : 1935년 2월 13일



학력

1953.03	경기도등학교 졸업	1998.05	광운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1956.12	제8회 고등고시 행정과 및 사법과 합격	2001.11	인제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1957.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교계 경력

1978.05	한국기독교 장로회 창현교회 장로
---------	-------------------

사회경력

1957.03~1960.05	육군 법무관 (대위 예편)	1993.04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1960.08	춘천지방법원 판사	1994.09	한국시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1961.0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5.09	(재)삼성문화재단 이사
1963.07	서울형사 지방법원 판사	1995.09	(사)시민운동지원기금 이사장
1963.10	변호사 개업	1996.05	통일고문회의 위원
1979.05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위원	1997.02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1982.04	대한상사증재단 증재위원	1998.04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1982.05	학교법인 한신대학 감사	1998.06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1984.12	재단법인 한국 간연구재단 이사	1998.08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1987.01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2002.11	(재)환경재단 이사장
1988.09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2004.06	(사)노사문제연구소 이사장
1992.02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2005.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1993.02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2~2018	(재)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1993.03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포상내역

1995.05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5.	제8회 효령대상 사회봉사부문
1998.03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상	2014.08	제18회 만해대상 실천부문
2001.01	자랑스러운 경기인(경기고)상	2018.11	민세상 사회통합부문상

현 이사회

이사장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 이사장	이사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사	최종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사	김현대	전)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이사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이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사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감사	오영	법무법인 동북아 고문 겸 공인회계사
이사	이우희	전)에스텍시스템 부회장	감사	강희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사	박재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현 운영위원회

위원(당연직)	최종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위원(위촉)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위원(위촉)	황필규	NCCK 인권센터 이사	위원(위촉)	차희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위원(위촉)	오혜란	사)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위원(위촉)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위원(위촉)	민영서	사)스파크 상임대표	위원(당연직)	이원태	(재)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현 재원운용위원회

위원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위원	황성호	위너스투자자문(주)회장
위원	김성림	스위스재보험 위험관리책임자
위원	신진호	한국투신운용 정보전략담당상무

현 지역개발금고관리위원회

위원	장대철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위원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대표 변호사
위원	김예희	다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계사

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자문위원

위원	박석희	㈜네츄럴스페이스 건축사무소 대표
----	-----	-------------------

n1

역대 임직원 명단

역대 상임이사

1대 상임이사 성한표

1990~1991	한겨레신문 경제담당 편집부위원장	1999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1993~1994	한겨레신문 기획담당 이사	2002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1997~1997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상무이사	2003~2005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상임이사
1999	한겨레신문 부사장		

2대 상임이사 안재웅

1976~1980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2007~2017	(재)다솜이재단 이사장
1980~1986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아시아태평양 총무(홍콩)	2006~2010	호서대 초빙교수
1995~199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2012~2014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2001~2005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총무(홍콩)	2020~2023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2006~2009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상임이사	2016~현재	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재단 이사장
2006~2009	(재)행복나눔재단 이사		

3대 상임이사 이광택

1968~197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199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연수과정 주임교수)
1980~1987	독일연방공화국 Bremen대학교 법학박사	1994~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1975~1976	한국일보(The Korea Times) 기자	2005~2009	(사)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
1976~1977	(재)크리스찬 아카데미 산업사회 교육간사	2009~2012	(재)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1978~1985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17~현재	(사)한국ILO협회장
1987~1988	Bremen대학교 노동정치연구소 연구위원	2020~현재	연론인권센터 이사장

4대 상임이사 이세중 (현 이사장)

역대 이사 및 운영위원 수

역대 이사 : 41명(감사포함)

역대 운영위원 : 45명(당연직 상임이사, 사무국장 제외)

역대 이사 및 운영위원 전문계열 비중

시민사회 및 노동계	28명 33%	학계	12명 14%	법률 등 전문계	6명 7%	86명
종교계	6명 7%	정부	2명 2%	기업계	32명 37%	100%

역대 이사 및 감사

이사진

김재구(한국경영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양상우(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전))
김주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전))	엄기영(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전))
강영훈(국무총리(전), 제13대 국회의원)	윤석만(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전))
고광현(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전))	은방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전))
고희범(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전))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전))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전))	이광택(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김우겸(한국전력공사 부사장(전))	이금희(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전))
김재철(문화방송 대표이사(전))	이우희(에스텍시스템 부회장)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이세중(환경재단 명예이사장, 대한변협 회장(전))
김화중(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전))	전팔근(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의 의장(전), 원광대 명예교수)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전), 19대 국회의원)	정영무(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전))
문국현(18대 국회의원)	정태기(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전))
박인구(동원그룹 부회장)	조인국(한국전력공사 부사장(전))
박재완(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기획부재정부 장관(전))	진동수(금융위원회 위원장(전))
박한용(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전))	최기산(천주교 인천교구장(전))
서형수(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전))	최문순(문화방송 대표이사(전))
성한표(한겨레신문사 부사장(전))	최종태(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안재웅(다솜이재단 이사장(전))	

감사진

강지원(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전), 변호사)	이경우(법무법인(유)한결한울대표변호사)
강희원(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정희(공인회계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대표)
오영(법무법인 동북아 고문 겸 공인회계사)	최재황(공인노무사)

n1

역대 임직원 명단

역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운영위원회 (재임 당시 직함)

- 강남식(한국여성연구소 소장)
- 강익구(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 강희원(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 김용철(문화방송 전무이사)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김종각(한국노총 정책기획실장)
-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노혁진(문화방송 편성국 부국장)
-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민영서((사)스파크 상임대표)
- 박기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1처장)
- 박태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변철환(한국기업노동복지법학회 이사)
- 성정현(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손경숙(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
- 신명호(도시연구소 부소장)
- 신철영(경실연 사무총장)
- 안택호(문화방송 편성국 부국장)
- 오귀환(인터넷한겨레 상임고문)
- 오혜란((사)아시아위민브리τζ 두런두런)
- 이광택(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경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재임 당시 직함)

- 강희원(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고희면(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곽수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길현종(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강식(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준철(달로이트앤진회계법인 전무),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혜원(한국고원대학교 교수),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 박태주(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변철환(함께일하는재단 책임연구원),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상달(융합경제연구소 대표), 안재웅(다솜이재단 이사장), 양용희(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형식(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연구위원(전)), 이광택(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세중

- 이동웅(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이민우(한국노총 기획정책실장)
- 이수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고용안정센터 소장)
- 이정식(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정광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1처장)
- 정대순(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
-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조복행(문화방송 글로벌사업본부장)
- 조영복(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조준모(승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진용한(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
- 차희원(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최인규(전북 실업자종합지원센터장)
- 최진섭(문화방송 편성국 부국장)
- 허 식(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황주석(YMCA전국연맹 대외협력국장)
- 황필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이은애(서울시사회적경제개발센터 센터장),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홍직(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선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정태길(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제갈재상(함께일하는재단 수석연구원), 조영복(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 최종태(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허식(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현미라(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기돈(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역대 직원 명단

사무국

강 윤, 강신희, 강예나, 강예경, 강하늘, 고미선, 고병기, 고영철, 고은진, 고현선, 공은주, 곽자경, 구혜진, 권소현, 권영태, 권오철, 권현경, 금민정, 김가영, 김귀자, 김규성, 김나연, 김당환, 김대경, 김대웅, 김명진, 김석영, 김선영, 김설경, 김성규, 김성은,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수연, 김수임, 김수지, 김수현, 김수희, 김연수, 김영석, 김원석, 김유동, 김유신, 김은주, 김종남, 김종수, 김종한, 김종현, 김주영, 김지영, 김지희, 김진용, 김진주, 김창주, 김채원, 김천명, 김태인, 김학석, 김현미, 김현정, 김형주, 김형환, 김혜영, 나현윤, 명경화, 문 혈, 문서연, 문재선, 문현주, 민경갑, 민세희, 민세희, 박가현, 박경연, 박나래, 박대환, 박명순, 박민숙, 박병혁, 박선정, 박성철, 박성희, 박솔잎, 박수미, 박애경, 박영민, 박우영, 박윤미, 박응숙, 박인정, 박정화, 박제휘, 박지영, 박지현, 박진영, 박진완, 박초롱, 박현옥, 박혜영, 배사은, 백순정, 백은선, 백조희, 서보국, 서영혜, 서예진, 서유경, 서일화, 서주미, 서현정, 성지아, 손가연, 손고은, 송미선, 송소연, 송아영, 송원규, 송지현, 신정아, 신혜영, 신희정, 심재균, 양새싹, 양소영, 양수복 양순철, 양으뜸, 엄인숙, 여정아, 오상석, 오지원, 오한길, 우순영, 원영남, 원이슬, 유가향, 유연성, 유연정, 유윤희, 유지민, 윤광용, 윤석철, 윤성원, 윤여정, 윤영주, 윤희선, 음은영, 이 슨, 이고은, 이다선, 이명아, 이명호, 이명희, 이명희, 이민정, 이빠라, 이승민, 이신원, 이아라, 이양주, 이영남, 이요한, 이우재, 이원태, 이은애, 이은주, 이은진, 이자람, 이재선, 이재섭, 이정미, 이정미, 이종미, 이종선, 이진선, 이진화, 이창환, 이하정, 이현정, 이혜미, 이혜심, 이효진, 이희정, 임소희, 양수복, 장경아, 장동열, 장미정, 장영은, 장인후, 장한보, 전미아, 전소연, 정구철, 정도영, 정범모, 정상용, 정상훈, 정수영, 정승훈, 정유진, 정재원, 정지현, 정태길, 정현민, 조 연, 조대연, 조리지, 조미연, 조민재, 조세훈, 조영정, 조이순, 조지수, 조하나, 지은주, 진 옥, 창기정, 채혜영, 최계진, 최관목, 최다미, 최서윤, 최우현, 최정보, 최혜진, 하정은, 한동우, 한미진, 한정임, 한지희, 한호연, 허나윤, 허윤정, 허준형, 홍두리, 홍은주, 홍지현, 황 룡, 황 인, 황정란

정책연구원

박소영, 박윤정, 변철환, 이공순, 이정봉, 이정현, 제갈재상, 홍원표

내마을형 사회적기업설립지원단

김현하, 김민서, 김영남, 남호근, 윤석정, 이나연, 조대연, 조현아, 지현정, 진형우, 최 준

문화재사업단

김명은, 김세정, 김지혜, 김혜리, 성혜선, 손용진, 양현모, 우선미, 이동범, 이용재, 이철재, 조연주, 차지은, 홍정현

결식아웃지원단

강계순, 강영혜, 김명륜, 김미경, 김선미, 김영이, 김옥순, 김지수, 박기복, 박용석, 박울심, 배주영, 신혜경, 용운철, 윤일형, 윤주일, 이선화(법인), 이선화(센터), 전수현, 조인선, 최효길, 하소희, 한명섭, 함옥미

아동복지지원센터

김근정, 김연정, 노연희, 박정남, 양인선, 임흥기, 차 준, 천진욱

포스코 재가간병 서비스 사업단

변재숙 외 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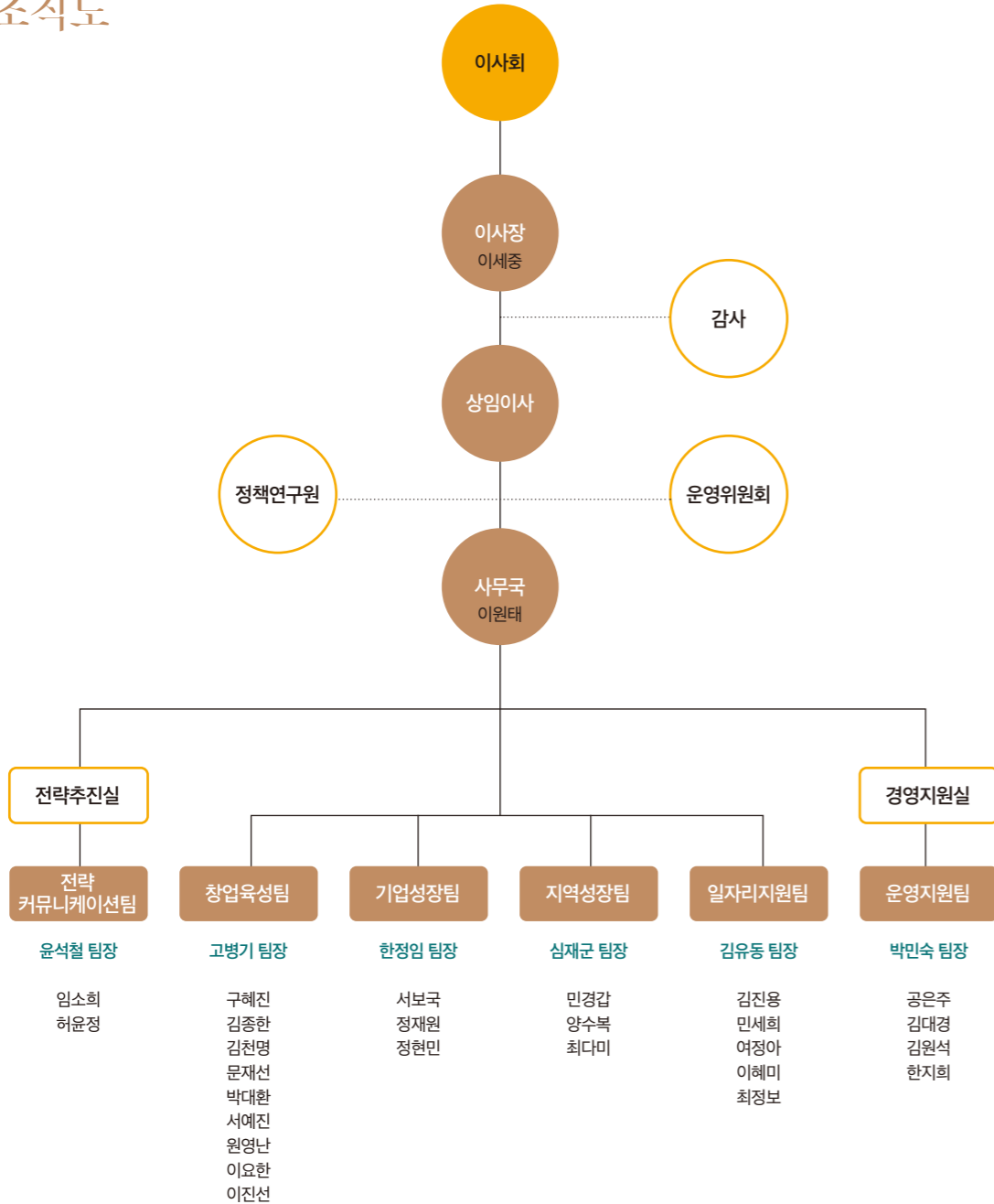
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

박정희, 유재호, 송민정, 박필선, 배정은 외 375명



재단현황

조직도



일자리지원팀



지역성장팀



전략커뮤니케이션팀





주요 통계 데이터 (각 사업별 현황, 실적 등)

2003년

(단위: 원)

일자리생태계구축	1,128,336,528
사회적경제제자금지원	437,608,824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13,727,404

2004년

(단위: 원)

취업역량 강화	1,625,100,830
일자리생태계구축	1,466,370,259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65,622,710
사회적경제제자금지원	150,000,000

2005년

(단위: 원)

일자리생태계구축	3,203,718,152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73,894,360
창업육성	72,720,000

2006년

(단위: 원)

일자리생태계구축	9,634,155,354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83,514,753
창업육성	48,116,000

2007년

(단위: 원)

일자리생태계구축	14,558,832,659
사회적경제제자금지원	1,193,230,835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248,215,901

2008년

(단위: 원)

일자리생태계구축	6,202,313,196
사회적경제제자금지원	4,981,940,417
창업육성	901,575,245
성장지원	639,555,197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297,463,325
취업역량 강화	237,301,612
국제협력	98,111,888

2009년

(단위: 원)

일자리생태계구축	7,406,385,131
창업육성	1,264,777,687
사회적경제자금지원	1,182,496,303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011,784,176
성장지원	884,946,697
국제협력	174,187,790
취업역량 강화	34,040,688

2010년

(단위: 원)

일자리생태계구축	3,068,264,589
창업육성	2,577,952,985
사회적경제자금지원	2,422,687,810
성장지원	352,577,466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336,415,174
취업역량 강화	333,710,850
국제협력	268,534,351
판로 개척	174,196,890

2011년

(단위: 원)

일자리생태계구축	4,378,387,444
창업육성	3,904,929,464
사회적경제자금지원	2,116,997,728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403,590,876
국제협력	291,666,726
취업역량 강화	256,781,029
지역경제활성화	10,412,340

2012년

(단위: 원)

사회적경제자금지원	2,336,691,326
창업육성	1,979,367,238
성장지원	1,697,332,184
일자리생태계구축	1,474,621,794
국제협력	418,077,940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355,151,760
지역경제활성화	221,940,106
취업역량 강화	7,371,885

2013년

(단위: 원)

창업육성	2,424,937,054
사회적경제자금지원	2,231,150,047
성장지원	1,941,630,558
일자리생태계구축	1,860,859,127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461,751,997
국제협력	280,371,714
지역경제활성화	168,522,404

2014년

(단위: 원)

창업육성	1,655,232,908
성장지원	1,570,318,795
사회적경제자금지원	1,536,746,765
국제협력	1,205,787,123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498,124,315
일자리생태계구축	256,618,221

2015년

(단위: 원)

일자리생태계구축	1,589,633,373
창업육성	1,529,934,406
성장지원	1,375,614,642
사회적경제자금지원	1,159,643,353
국제협력	750,023,969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303,013,585

2016년

(단위: 원)

창업육성	1,960,276,508
국제협력	939,715,321
성장지원	846,801,712
사회적경제자금지원	651,878,893
일자리생태계구축	217,859,445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201,338,008
취업역량 강화	136,861,148
지역경제활성화	94,916,384

2017년

(단위: 원)

창업육성	1,158,072,389
성장지원	977,027,405
국제협력	675,184,924
취업역량 강화	360,744,192
사회적경제자금지원	281,357,420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51,044,450
일자리생태계구축	136,252,396
지역경제활성화	102,381,784

268

2018년

(단위: 원)

성장지원	2,368,541,184
창업육성	1,676,741,531
판로 개척	1,028,773,168
사회적경제자금지원	982,188,377
일자리생태계구축	796,111,046
국제협력	613,662,907
취업역량 강화	437,908,054
지역경제활성화	283,774,439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33,350,414

2019년

(단위: 원)

창업육성	1,843,713,986
성장지원	1,560,407,109
사회적경제자금지원	1,159,181,995
국제협력	886,288,767
지역경제활성화	855,022,031
취업역량 강화	672,925,284
일자리생태계구축	627,176,939
판로 개척	425,406,569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49,912,433

269

2020년

(단위: 원)

성장지원	2,301,756,630
창업육성	1,982,109,172
사회적경제자금지원	1,811,437,484
판로 개척	1,473,810,937
지역경제활성화	1,235,350,440
일자리생태계구축	995,707,212
국제협력	693,650,726
취업역량 강화	504,203,741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58,116,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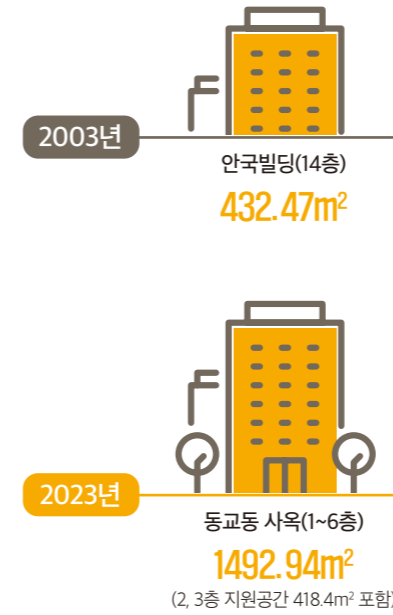
2021년

	(단위: 원)
성장지원	3,767,842,833
사회적경제자금지원	2,366,815,151
창업육성	1,747,995,080
판로 개척	1,641,020,479
일자리생태계구축	896,146,586
국제협력	570,240,424
지역경제활성화	489,925,046
취업역량 강화	344,309,924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40,571,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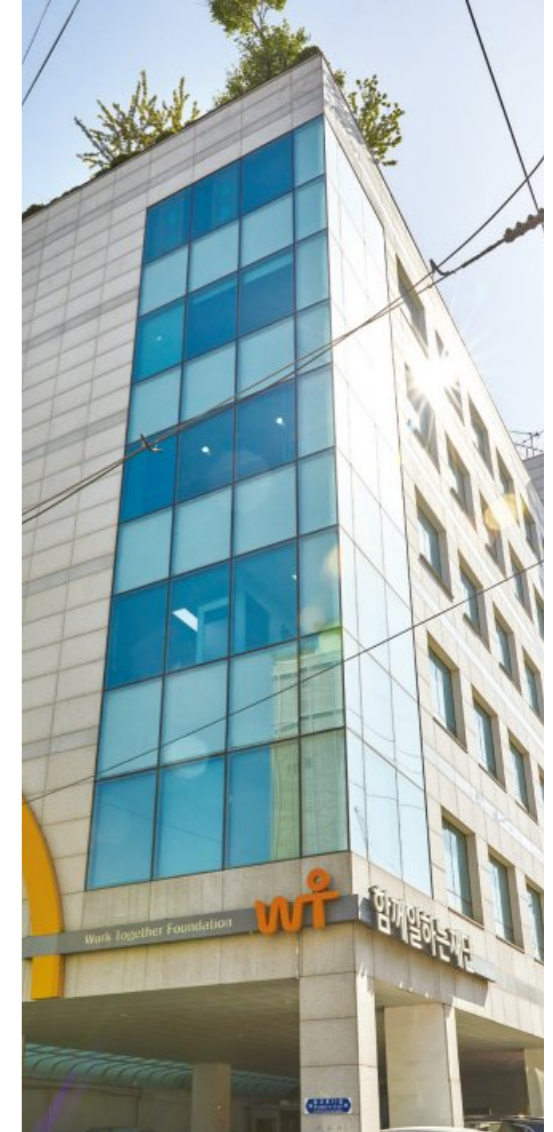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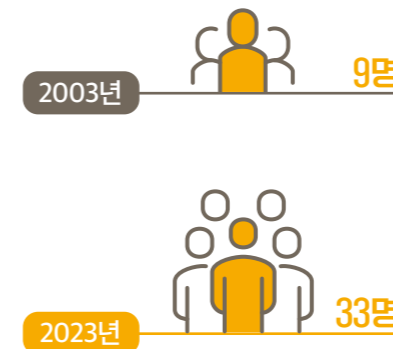
2022년

	(단위: 원)
성장지원	6,893,435,547
창업육성	1,968,537,895
사회적경제자금지원	1,256,247,197
일자리생태계구축	901,361,524
판로 개척	730,218,279
취업역량 강화	581,412,497
국제협력	326,787,658
기타사업(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147,657,337
지역경제활성화	8,745,234

업무공간의 변화



직원 수의 변화





숫자로 보는 재단 20년의 성과

재단 수입(2003년~2022년)

(금액:원)

연도	합계	개인기부금	기업기부금	프로젝트용역	기타
2003년	8,495,000	8,495,000	-	-	-
2004년	3,297,315,055	26,087,930	1,440,000,000	-	1,831,227,125
2005년	3,610,293,136	4,358,670	1,855,747,880	-	1,750,186,586
2006년	11,041,287,827	4,391,970	6,427,584,000	2,444,125,530	2,165,186,327
2007년	16,460,946,656	11,352,880	5,509,476,906	7,507,003,990	3,433,112,880
2008년	9,774,041,975	14,142,566	3,937,326,068	3,739,789,477	2,082,783,864
2009년	10,960,026,465	241,618,383	4,976,082,495	4,104,742,041	1,637,583,546
2010년	9,886,177,169	868,536,707	5,181,093,636	2,425,570,396	1,410,976,430
2011년	10,652,400,182	1,581,846,288	6,738,843,305	880,873,724	1,450,836,865
2012년	9,890,015,851	1,392,908,748	4,738,659,813	2,302,155,419	1,456,291,871
2013년	6,738,298,379	1,177,345,613	3,302,348,953	1,105,693,485	1,152,910,328
2014년	6,466,263,980	973,312,800	2,662,811,691	1,522,662,447	1,307,477,042
2015년	5,971,528,686	810,482,280	2,704,705,245	1,472,961,464	983,379,697
2016년	4,219,602,942	748,181,310	1,544,580,889	1,219,576,724	707,264,019
2017년	4,107,559,120	672,543,313	1,688,663,328	1,059,142,140	687,210,339
2018년	8,468,096,148	601,822,392	5,609,218,624	1,464,613,378	792,441,754
2019년	9,102,023,999	536,230,900	5,684,509,932	1,752,350,916	1,128,932,251
2020년	9,207,916,064	488,176,173	6,171,061,145	1,850,486,024	698,192,722
2021년	9,730,053,466	435,676,820	7,068,092,228	1,554,358,256	671,926,162
2022년	12,132,772,791	426,109,000	9,600,169,410	1,340,161,060	766,333,321

재단 지출(2003년~2022년)

(금액: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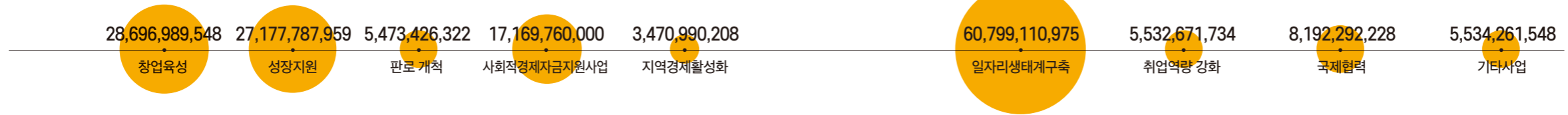
구분	합계	사업비	운영비
2003년	2,024	1,679	344
2004년	4,283	3,407	876
2005년	3,957	3,350	606
2006년	10,779	9,865	913
2007년	17,295	16,000	1,294
2008년	14,566	13,358	1,208
2009년	13,266	11,958	1,307
2010년	11,149	9,534	1,614
2011년	12,959	11,362	1,597
2012년	9,721	8,490	1,231
2013년	10,683	9,369	1,314
2014년	8,187	6,723	1,464
2015년	8,242	6,708	1,534
2016년	6,208	5,050	1,159
2017년	4,993	3,842	1,151
2018년	9,456	8,321	1,135
2019년	9,270	8,180	1,090
2020년	11,954	11,156	798
2021년	13,015	11,965	1,050
2022년	13,870	12,814	1,056



숫자로 보는 재단 20년의 성과

각 분야별 사업비 비율

*사회적경제자금지원사업 :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 총액



분야별 사업비 지출 현황 (결산서 기준)

구분	창업육성	성장지원	판로 개척	사회적경제자금지원	지역경제활성화
2003년				437,608,824	
2004년				150,000,000	
2005년	72,720,000				
2006년	48,116,000				
2007년				1,193,230,835	
2008년	901,575,245	639,555,197		4,981,940,417	
2009년	1,264,777,687	884,946,697		1,182,496,303	
2010년	2,577,952,985	352,577,466	174,196,890	2,422,687,810	
2011년	3,904,929,464			2,116,997,728	10,412,340
2012년	1,979,367,238	1,697,332,184		2,336,691,326	221,940,106
2013년	2,424,937,054	1,941,630,558		2,231,150,047	168,522,404
2014년	1,655,232,908	1,570,318,795		1,536,746,765	
2015년	1,529,934,406	1,375,614,642		1,159,643,353	
2016년	1,960,276,508	846,801,712		651,878,893	94,916,384
2017년	1,158,072,389	977,027,405		281,357,420	102,381,784
2018년	1,676,741,531	2,368,541,184	1,028,773,168	982,188,377	283,774,439
2019년	1,843,713,986	1,560,407,109	425,406,569	1,159,181,995	855,022,031
2020년	1,982,109,172	2,301,756,630	1,473,810,937	1,811,437,484	1,235,350,440
2021년	1,747,995,080	3,767,842,833	1,641,020,479	2,366,815,151	489,925,046
2022년	1,968,537,895	6,893,435,547	730,218,279	1,256,247,197	8,745,234
총합계	28,696,989,548	27,177,787,959	5,473,426,322	28,258,299,925	3,470,990,208

일자리생태계구축	취업역량 강화	국제협력	기타사업 (홍보·모금·정책연구·기타 포함)	총합계
1,128,336,528			113,727,404	1,679,672,756
1,466,370,259	1,625,100,830		165,622,710	3,407,093,799
3,203,718,152			73,894,360	3,350,332,512
9,634,155,354			183,514,753	9,865,786,107
14,558,832,659			248,215,901	16,000,279,395
6,202,313,196	237,301,612	98,111,888	297,463,325	13,358,260,880
7,406,385,131	34,040,688	174,187,790	1,011,784,176	11,958,618,472
3,068,264,589	333,710,850	268,534,351	336,415,174	9,534,340,115
4,378,387,444	256,781,029	291,666,726	403,590,876	11,362,765,607
1,474,621,794	7,371,885	418,077,940	355,151,760	8,490,554,233
1,860,859,127		280,371,714	461,751,997	9,369,222,901
256,618,221		1,205,787,123	498,124,315	6,722,828,127
1,589,633,373		750,023,969	303,013,585	6,707,863,328
217,859,445	136,861,148	939,715,321	201,338,008	5,049,647,419
136,252,396	360,744,192	675,184,924	151,044,450	3,842,064,960
796,111,046	437,908,054	613,662,907	133,350,414	8,321,051,120
627,176,939	672,925,284	886,288,767	149,912,433	8,180,035,113
995,707,212	504,203,741	693,650,726	158,116,907	11,156,143,249
896,146,586	344,309,924	570,240,424	140,571,663	11,964,867,186
901,361,524	581,412,497	326,787,658	147,657,337	12,814,403,168
60,799,110,975	5,532,671,734	8,192,292,228	5,534,261,548	173,135,830,447

05

주요 연표

2003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출범 사회적기업 지역개발금고사업(대부사업) 개시 사회적기업 학교 개설 청년실업 채용박람회 개최(노동부, MBC, 한겨레신문사) MBC 희망 기금 릴레이 캠페인 진행
2004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사업 개시(교보생명)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때사업 개시(삼성증권)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 출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개시(노동부)
2005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사업 개시(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모니터링사업 개시
2006	결식아웃 행복도시락사업 개시(SK) 사랑나눔 무료간병사업 개시(포스코) 재단 정책연구원 개소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 희망청 개소 대학 및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시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워크숍 개시(노동부)
2007	사회적기업저널 번역 출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개시(보건복지부) 사회적일자리 참여단체 경영컨설팅사업 개시(노동부) 사회적기업 설립(인중)지원기관 지원사업 개시(노동부)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시범사업 개시(서울지방노동청)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사업 개시 피터드러커 혁신상 '우수상' 수상
2008	복지사업 지원 개시(휴먼예금관리재단) (재)함께일하는재단으로 명칭 변경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노동부, SK) 제1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개최 소셜벤처 경연대회 운영(노동부) 문화재관리 일자리사업 개시(문화재청) 사회적기업 육성 공헌 국무총리상 수상 신재생에너지 우드펠릿사업 개시(강원랜드)
2009	SBS희망TV 모금 캠페인 진행 사회적기업을 위한 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 개시(신한은행) 윤리적소비 촉진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개시(G마켓)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개시(BAT코리아) 소셜벤처인큐베이팅 마포센터 개소(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청소년 꿈터사업 개시(KB국민은행)

	1사 1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개시(한국수출입은행)
2010	실직-빈곤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라이트 어 램프 개시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사업 개시(LH) 사회적기업 유동 지원 프로젝트 개시(현대홈쇼핑)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개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사업 개시(한국주택금융공사) 제2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개최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양천센터 개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녹색성장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개시(LG) 사회적기업 인증 가이드북 발간
2011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개시(한화) 제3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개최 청년층 대안사회적기업전망 설립 운영 사업 개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개시(금천구) 시니어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개시(유한킴벌리)
2012	액티브 시니어 생활용품 공모사업 개시(유한킴벌리) SE 희망씨앗 전파사업 개시(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 드라이브 프로젝트 개시(SK)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 개시(한국전력공사) 한화B&B 사회적기업 전환사업 개시(한화갤러리아) 시니어 기금 전달식 개최(유한킴벌리) (예비)사회적기업 IT 기기 및 교육 지원사업 개시(삼성SDS) 전통시장 소상공인분야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운영모델 개발 용역사업 개시(서울시)
2013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개최 주관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발족(한국수출입은행)
2015	지구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시(KOICA) 양천구 항공소음대책지역 소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개시(한국공항공사)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로 사업 이관 <무업사회> 번역서 출간
2016	특성화 고교생 IT 희망키움 지원사업 개시(신세계아이앤씨) 시니어케어 매니저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 개시(유한킴벌리) 캠코 희망Replay,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 개시(한국자산관리공사)
2017	소셜벤처성장나눔사업 Go Together 프로젝트 개시 허그 세어하우스 1호점 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겨레 나눔꽃 캠페인 진행 카카오 같이가치 클라우드펀딩 캠페인 진행 소셜테크 이노베이션랩 개소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개시(한국전력공사) 허그 세어하우스 2호점 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 공항 포티케어 서비스 확대 및 전문화 사회공헌사업 개시(한국공항공사) Salta Programme 지원사업 개시(자라코리아)
2018	마음톡톡 치료사 경제적 자생조직 구축사업 개시(GS칼텍스) BUFF(부산지역대학생 역량 강화 네트워크) 3기 개시(한국자산관리공사)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지원사업 개시(에스-오일)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 개시(현대오일뱅크) Hello New() World 해커톤대회 개최(신세계아이앤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개시(MG새마을금고중앙회) 가치(Value)여행 사업 개시(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그룹사 이진지역 농수축산물 박람회 개최(한국전력공사) 허그 세어하우스 3호점 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아카데미 사업 진행(현대백화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이전 개소
2019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네트워크(AVFN) 가입 증평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진행(SK이노베이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지원사업 개시(이마트) 소셜 시니어벤처 설립 및 지원사업 개시(유한킴벌리)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개시(인천국제공항공사)
2020	허그 세어하우스 4호점 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지원사업 개시 서울시 골목길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해외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한전KDN)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개시(한전KDN) 디지털 월드포럼 사전행사 개최 양천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지원사업 개시(한국공항공사)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개시(울산항만공사) 5060 그린체인지메이커 사업 개시(한국지역난방공사) 디지털 사회적기업월드포럼 골드스폰서 참여 공동 개최(한국국제협력단) 사회적경제조직 해외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개시(한국공항공사) 공항거점 소공인 판로지원 채널 구축사업 개시(한국공항공사) The minimize 사업 개시(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가치그린 세(SE)상 사업 개시(인천국제공항공사)
2021	청년 취창업 준비생 디지털 교육기기 지원사업 개시(ITI코리아) 사회적경제조직 동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 개시(울산항만공사)

	허그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 및 세어하우스 5호점 개소(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개시(한전KDN) 청년이 그린(Green) 창업캠프 개최(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회적경제조직 해외 진출 지원사업 개시(한국공항공사) Try Everything 협력 프로그램 '지역기반 로컬블류-업 스테이션' 진행(서울산업진흥원) 함께 서울-S 프로젝트 진행 강서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진행(강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실버스폰서 참여 공동 개최(한국국제협력단) 포스트 코로나시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 포럼 공동 개최(서울시 청년청) 시니어(화환) 지원순환 매니저 양성사업 개시(착한사람들)
2022	사회적경제 근로자 복지지원사업 개시(하나은행) 202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개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사회적경제조직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활주로 상점 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교육 및 연계 지원사업 3기 개시 가치행복행 온라인 입점사업 개시 (한국공항공사) 청(소)년 인턴십 지원사업 개시 사회적경제기업 ICT 솔루션 및 교육 지원사업 개시 (한국전력공사) 2022 특성화 고교생 IT 꿈나무 성장지원사업 개시(현대오일뱅크) KRX 사회복지시설 아동 문화-예체능교육 지원사업 개시 (KRX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2022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지원사업 개시 (에스오일) 2022 Hello New() World 지원사업 개시 (신세계아이앤씨) 2022 MG 휴먼 브릿지 청년창업캠프 개최 (MG새마을금고중앙회) MG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판로지원 '무궁무진한 MG희망나눔 상생 스토어' 개시 (MG새마을금고중앙회) MG 희망나눔 소셜 성장지원사업 5기 개시 (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회적경제기업 해외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개시 (한전KDN)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개시 (한전KDN)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2022 INSPIRED FORUM(1차-2차) 개최 (YBI)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함성소리 캠퍼스 1기 개시 (YBI) 액티브 시니어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 개시 (상상우리) SOVAC 2022 오프라인 행사 파트너사 참여 (소셜밸류커넥트)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개시 (한전KDN) 5060 그린체인지메이커 3기 개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코로나 극복 재도약 프로그램 함성소리 1차 IR Demo Day 개최 (YBI) 캠코 희망Replay, 2022 대학생 취업잡(Job)이 6기 개시 (캠코)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 개시 (한국전력공사)



파트너기관 리스트

<p>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비아 강원랜드 경남은행 경우실업 고려아연 교보생명 국민은행 국민은행 동탄지점 국민은행동탄노동 국민카드 국순당 국제로타리3640지구 군장열병합발전 글로벌녹색성장 글자와기록사이 기보오렌지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p>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눔발전소 남방건설산업 남양알앤씨 네모네 네오위즈마법나무 노벨리스 논산시사회적경제과 농업회사법인 살림농산 농협은행 전북영업부 뉴블랙 <p>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명복지재단 대웅제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더봄넷(thebomenet Co.,Ltd.) 두뇌로 세계로 디하이브 	<p>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버트윌터스코리아 로칼크린 롯데캐피탈 롯데호텔 리딩투자증권 링크케이, 엠버서더 동대문 호텔 <p>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콜컨설팅그룹 만도 미리미 <p>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텍 법무법인 디라이트 보잉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한국 본아이에프 본아이에프 와이파이센터 본에코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 비카인드 빔 빙그레 <p>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단법인 이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삼성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증권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이어파마코리아 서울관광마케팅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선명프로퍼티스 소셜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쉐어앤케어 스노우피크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신세계프라퍼티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협중앙회 씨즈 <p>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모레퍼시픽 아산나눔재단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본점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아놀자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에너지공단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에스티케이 에스-오일(S-OIL) 에이치엘클레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프알엘코리아 엔씨엔스페이스 엘오케이 여수열병합발전 에스코홀딩스 오케이저축은행 오케이캐피탈 와이즈클래스에이 우리은행 우리카드 울산항만공사 원주 한살림 위제너레이션 유한책임회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 유한컴벌리 이디야 이마트 이마트24 이베이지마켓 이새 FnC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성빌딩 <p>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라코리아 자산관리공사 재단법인 렛츠런재단 재단법인 케이알엑스국민행복 재단 전북에너지서비스 제이텍트코리아 주도도시보증공사 중부발전 지에스리테일 홈쇼핑 	<p>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 케이티앤지 	<p>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오롱인더스트리 크레진 <p>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티빙 <p>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크라상 파스토 포스코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청암재단 포스파워 폭스바겐 푸르덴셜생명보험 <p>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투어 한국가스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충북지역 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직업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투자증권 한국퓨얼셀 한독 한라 한라오엠에스 한라홀딩스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케이디엔 한전케이피에스 한화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한화비엔비 한화생명보험 한화에너지 한화엘앤씨 한화케이칼 한화테크엠 한화토탈 한화투자증권 해피브릿지협동조합 해피빈 행복나눔재단 헨켈코리아 서울지점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면세점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현대오��에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홈쇼핑 호텔롯데롯데월드 호텔신라 효성 <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G손해보험 <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카드 <p>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ogle.org GS칼텍스 <p>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KB데이터시스템 KB부동산신탁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KB신용정보 KB인베스트먼트 KB자산운용 KB저축은행 KB증권 KB캐피탈 KT&G 상상펀드기금운영 위원회 	<p>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G디스플레이 LG전자 LH인천지역본부 <p>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C <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S SK SK가스 SK건설 SK그룹 SK네트웍스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텔레콤 SK하이닉스 <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IMPSON MICHAEL SID_NEY <p>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YBI (Youth Business International)
--	---	---	--	--	--	--	---	--

n7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후신으로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가치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9>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8.07.29>

제3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혹은 국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수행한다. <개정 2005.03.03>

1. 실업자 지원사업
2. 실업자의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4. 저소득 청년실업 해소사업
5. 실업극복과 관련된 사회적 연대외식 고취를 위한 각종 홍보 및 정책연구, 교육사업 <개정 2005.03.03>
6. 사회적기업 설립 및 경영지원 <개정 2009.02.28>
7. 기타 실업극복을 위한 관련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모금 또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6.21>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1. 출판업
2. 연구용역사업
3. 식재 <개정 2009.06.17>
4. 부동산 임대업 <개정 2014.02.26.>
5. 전자상거래 <개정 2021.11.25.>
6.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사업

④ 법인이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5.07.15>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①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노동계· 여성계· 실업문제 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2.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되 감사 중 1인은 공인 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선임된 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4.02.26>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이내에 보선한다. ② 삭제 <개정 2014.02.26>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 법인의 업무 집행과 이사회의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4.02.26>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이사회 의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6. 이사가 목적의 사업을하거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의 유지(留止)를 청구하는 일

제10조(임원의 대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법인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 의결로 추대 또는 선임한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 의 구성)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회 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제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차입금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안전에 관한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이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제16조(의결체적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되는 경우
3. 임원이 소속된 법인· 단체의 사업을 이 법인이 지원하는 경우

제17조 <삭제> <개정 2020.07.09>

제18조(서면결 의 금지) 이사회 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19조(회의록) 이사회 의 회의록은 이사장, 상임이사 그리고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조직

제20조(운영위원회) 이사회 부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법인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과 위촉위원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한다.

1.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노동계· 여성계·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2. 고용· 실업 등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 ③ 위촉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03.03>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결사항의 구체적 집행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4조(특별위원회) ① 모금 또는 특별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03.03>

② 특별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03.03>

제25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기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07.29>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2.26>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에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에 기재한 목록과 같다. <개정 2014.02.26.>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

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2.26>

② 법인이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평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운영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과실(果實),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07.29>

제29조(회계 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하며,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7.29>

제30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6>

②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6>

③ 회계연도 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이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 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34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① 감사는 연회 이상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5인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2.26>

제36조(법인해산) 법인이 제4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37조(전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

여재산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한다. **제38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 등에 공고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2.26>

제41조(정책연구원) ① 설립 및 고용창출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정책연구원을 둔다.

② 상근 연구원은 3인 이내로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원의 사무소, 임명절차, 직무 및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07.29>

제42조(정보공개)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02.18>

제43조(정치관여금지) 법인은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없다. <신설 2015.07.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02.26.>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 설립 준비행위는 이 법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인 세기구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06.23>, <개정 2005.03.03>, <개정 2005.06.21>, <개정 2008.07.29>, <개정 2009.02.18>, <개정 2009.06.17>, <개정 2014.02.26>, <개정 2015.07.15>, <개정 2018.08.02>, <개정 2020.07.09>, <개정 2021.11.25.>

(별지1) <개정 2014.02.26., 개정 2018.08.02. 개정 2020.07.09. 개정 2021.11.25.>

시대적 다리를 건너는 재단의 역사



네 시기로 구분한 재단의 20년

함께일하는재단의 20년사 편찬은, 여러 시대의 다리를 건넌 재단의 발자취를 다시금 돌아보고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단의 20년을 ‘여명기- 정착기- 발전기- 전환기’의 시대적 구분으로 크게 나누어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로써 시대의 변화와 전환에 따라 함께 진화하고 발전한 재단의 면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여명기’는 대량실업시대, 실업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 국민운동의 연대에서 시작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과 함께 민간이 주도한 실업기금모금운동은, 갑작스러운 실업대란 속에 생계조차 해결 할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독교의 강원용 목사님,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님, 불교의 송월주 스님이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되며 실업기금모금운동을 기반으로 한 민간연대의 출발이 함께일하는재단 탄생의 여명이 되었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정착기’는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굳건한 민간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주도형 실업대책기관이 출범함으로써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에서 ‘함께일하는재단’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바뀐 환경에 맞는 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능동적인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구축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씨앗을 적극적으로 뿌립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제도적인 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활발히 전개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발전기’는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선도적인 싹을 틔우면서 시작합니다. 국내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강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와 사회적경제 모델의 다각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발길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전환기’는 기술혁명의 시대, 일자리의 미래를 찾아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면서 시작합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기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의 선두적

역할을 구축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지원과 창업육성을 시작으로 성장지원에서 자립지원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에 맞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숨가쁜 변화의 시대에 대응한, 재단의 체질 강화의 노력도 함께 합니다.

재단이 걸어온 길, 다양한 장르 속에서 조망

재단이 걸어온 길을 선명하면서도 다층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여러 장르와 섹션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20년사 편찬의 중심 영역인 통사를 주축으로 삼고, 주요 이슈를 담은 재단 테마사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재단이 걸어온 길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방증하는 사진들도 엄선해 수록했습니다. 더불어 심층적으로 분석과 고찰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역사를 담은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힘 모아 엮어낸 20년사

재단 20년사의 완성과 발간은 안팎으로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대내적으로는 20년사 제작 편찬위원회, 편찬실무 TF, 조직의 팀 구성원, 대외적으로는 발간 기획사, 편찬 자문위원회 등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사사제작에 참여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정리와 기록은 지속 발전을 위한 기반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모쪼록 함께일하는재단 20년사가 재단의 앞날과 한국 사회의 발전에 바람직하고 우수한 경험적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일하는재단 편찬위원장 **최중태**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최종태 이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편찬위원	박재완 이사(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김재구 이사(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강희원 감사(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편찬총괄	이원태 사무국장
편찬실무	윤석철 팀장(전략커뮤니케이션팀) 허윤정 책임매니저(전략커뮤니케이션팀) 김진용 선임매니저(일자리지원팀) 임소희 전임매니저(전략커뮤니케이션팀)

[도움을 주신 분들]

췌사하기획	
사업책임	김종훈
총괄기획	박세진, 김도훈
기획진행	최혜정
집필	이중한
교정교열	김민정, 김서울
아트디렉팅	황지현
디자인	김지연, 한수연
촬영	서원경
제작	김 석, 김성윤
인쇄	셀렉션프린팅

함께일하는재단 20년사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열어나가는 미래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동교동 203-4) www.hamkke.org
발행인	이세중
발행일	2023년 6월 23일
제작	쥬시하기획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7길 13 프러스원빌딩 2층
ISBN	919-11-92222-25-7 03060

<비매품>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wi 함께일하는재단